

한·일 수산물 무역구조 변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2002. 12

김정봉·주문배·홍현표·안재현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김 정 봉 : 제1장~제6장

◆ 연구진

-주 문 배 : 제3장 제5절, 제4장 제3~4절

-홍 현 표 : 제4장 제1~2절

-안 재 현 : 제2장 제1~2절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어 명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장 성 식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실 사무관)

◆ 조 일 환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사무관)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구조는 국내소비의 감소와 수출수요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동안 우리는 낙후된 수산업의 생산 측면만 들여다보며 그 대책에 골몰하다가 마침내 2001년에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수산물 무역수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산물 수급구조가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내 내수시장을 놓고 보면, 그 동안 소비가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할 우려마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내수가 모자랄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수산물 수출은 최근 수년 동안 정체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국내생산량 자체가 감소하여 줄어드는 내수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체결된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조업어장이 위축되었고, 그 동안 과잉어획으로 연근해의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획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일견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 수산정책도 여기에 매달려 자원조성과 관리, 그리고 어업 구조조정 등 어업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더구나 WTO를 중심으로 세계 수산물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무역적자를 단계적으로라도 해소해 나가려면 수입수산물보다는 국산 수산물로 내수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수출을 촉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무역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에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일본 소비자가 선호하는 어종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역시 세계적인 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조건도 동시에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수급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한·일간 수산물 무역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간 무역구조의 변동요인과 일본시장에서 각국의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생산 측면에서 수출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유통 분야에서 품질안정성 및 고급화 등을 통한 수산물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내수 확충과 성장동력의 창출 방안 등을 도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도로 보여진다.

향후 WTO 체제 아래서 수산물의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수산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담당자와 어업인 및 무역관계 종사자, 그리고 더 많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 보고서는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의 김정봉 부연구위원, 주문배 부연구위원, 홍현표 책임연구원, 그리고 안재현 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그리고 연구수행 과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김정택 센터장, 신영태 박사께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자료정리 및 원고수정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김영준 연구원에게도 필자를 대신하여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2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2. 한·일 수산물 수급실태	53
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실태	53
2) 일본의 수산물 수급실태	54
3. 수산물 생산구조의 변화	56
1) 신어업질서로 인한 수산물 생산과 무역변화	56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구조 변화	58
3) 일본의 수산물 생산구조 변화	62
4.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	65
1)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소비 변화	66
2) 일본의 수산물 소비구조	73
5. 한·일 수산물 무역환경의 변화	78
1) 관세	79
2) 비관세	84
3) 수산보조금	87
6. 구조변동요인 분석의 종합	93
제 4 장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구조 분석	95
1. 수산물 무역구조 결정요인	95
1) 이론 모형	95
2) 경쟁력 측정 지표	98
2. 국내 수산물의 비교우위 분석	100
1) 분석의 개요	100
2) 전체 수산물 비교우위 분석	100
3) 수산물의 국가별 비교우위 분석	104
4) 국가별·제품종류별 산업내 비교우위 분석	105
3. 주요경쟁국과의 수산물 수출경합도 분석	109
1) 분석범위	110
2) 분석방법	111
3) 분석결과	111

4.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 분석	113
1) 분석범위 / 114	
2) 분석방법 / 114	
3) 분석결과 / 115	
5. 국제경쟁력 분석의 종합	118
제 5 장 수산물 무역구조의 고도화 전략	119
1. 기본방향	119
2.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	119
1)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 120	
2) 새로운 수출상품의 지속적 창출 / 121	
3)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 / 122	
4) 동북아 수산물 국제 분업체제 구축 / 122	
3. 수출 공급기반의 확충	123
1) 연근해어업의 적정자원관리체제 구축 / 124	
2) 수출전략 양식품목의 증점 육성 / 125	
3) 원양어업의 어선생력화 / 127	
4. 수산물 무역촉진을 위한 성장동력의 강화	128
1) 수산물 종합무역정보 체계 구축 / 128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 129	
3) 자금 및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 129	
5. 수산물 수출입관련 제도 개편	131
1) 수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 131	
2) 비관세조치의 개선 / 133	
제 6 장 결 론	137
1. 요약	137
2. 정책제언	140
참고문헌	143

표 목 차

<표 1-1> 기존 연구의 유형별 사례	6
<표 2-1>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	9
<표 2-2>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입액	10
<표 2-3>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실적	14
<표 2-4>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변화 추이	16
<표 2-5> 우리나라 수산물 제품형태별 수출 현황	17
<표 2-6> 우리나라 수산물 제품형태별 수입 현황	18
<표 2-7> 주요 어종별 연도별 수출 추이	19
<표 2-8> 주요 어종별 연도별 수입 추이	21
<표 2-9>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추이	22
<표 2-10>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국가별 비중(2001년도)	23
<표 2-11> 우리나라 10대 수입품목의 국가별 비중(2001년도)	24
<표 2-12> 일본의 주요국별 수산물 수입 추이	25
<표 2-13> 국별 제품형태별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1999년도)	26
<표 2-14> 일본의 연도별 제품형태별 수산물 수출액	28
<표 2-15> 일본의 연도별 제품형태별 수산물 수입액	28
<표 2-16>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29
<표 2-17>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비율(2001년)	30
<표 2-18> 일본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비율(2001년)	31
<표 2-19> 한·일 수산물 무역 추이	33
<표 2-20> 우리나라 대일 수산물 수출입 상위품목(2001년도)	34
<표 2-21> 일본 참치류 수입시장의 최근 동향	36
<표 2-22> 우리나라의 봉장어 품목별 국별 수출 비중(2001년도)	38
<표 2-23> 우리나라의 한·일간 봉장어 품목별 수출입 실적	38
<표 2-24> 우리나라의 한·일간 굴 관련제품별 수출입 실적	40
<표 2-25> 우리나라의 굴 관련제품별 일본 수출 비중(2001년도)	41
<표 2-26> 우리나라의 피조개 관련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42

<표 2-27> 우리나라 피조개 관련제품별 국별 수출 비중(2001년도)	42
<표 2-28> 일본 해조류 수입시장의 최근 동향	43
<표 2-29> 우리나라의 명태 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44
<표 2-30> 우리나라의 명태 제품별 국별 수입 비중(2001년도)	45
<표 2-31> 우리나라의 갈치 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46
<표 2-32> 우리나라의 갈치 제품별 국별 수입 비중(2001년도)	46
<표 2-33> 우리나라의 돔 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47
<표 2-34> 우리나라의 돔 제품별 국별 수입 비중(2001년도)	47
<표 2-35> 우리나라의 꽁치 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48
<표 2-36> 우리나라의 꽁치 제품별 국별 수입 비중(2001년도)	49
<표 3-1> 국내 수산물 수급 현황	54
<표 3-2> 일본의 수산물 수급 동향	55
<표 3-3> 우리나라의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58
<표 3-4> 우리나라의 수산물 종류별 생산실태	59
<표 3-5> 연근해어업 어종별 생산량	60
<표 3-6>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추이	60
<표 3-7> 한국의 수산물 생산전망	61
<표 3-8> 일본의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 추이	62
<표 3-9> 일본의 수산물류별 생산량 추이	63
<표 3-10>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위수산물 생산량 추이	64
<표 3-11> 일본의 2012년 수산물 생산목표	65
<표 3-12>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수산식품 공급 추이	67
<표 3-13> 1인 1일당 수산식품류별 공급량	67
<표 3-14> 우리나라의 식품종류별 소비지출액(1인 1개월 기준)	69
<표 3-15> 수산물 품목별 소비지출액 추이(1인 1개월 기준)	70
<표 3-16> 소비자의 수산식품 선호도 및 주요 구매처	72
<표 3-17> 일본의 어패류 1인 1일당 식품 및 단백질 공급량	73
<표 3-18> 일본의 수산물 용도별 국내소비 동향	74
<표 3-19> 어패류 품목별 가계소비 지출액의 추이	75
<표 3-20> WTO/DDA 수산물 협상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	78

<표 3-21>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기본관세율 구조(2002년도)	81
<표 3-22> 수산식품 품목분류별 기본관세율 구조(2002년도)	81
<표 3-23> 한·일 양국의 수산물 기본 관세율 구조(1999년도 기준)	82
<표 3-24> 10대 수입수산물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실행관세율 비교	83
<표 3-25>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제도 시행 현황	85
<표 3-26> 일본의 9종 어패류에 대한 쿼터량 추이	86
<표 3-27> 일본의 한국산 김 수입 쿼터량 추이	87
<표 3-28> OECD 주요회원국의 수산분야 정부재정지원 실태(1999년도)	91
<표 4-1> 국별·품목별 RCA	102
<표 4-2> 우리나라 수산물의 품목별 세계시장 수출 비중	104
<표 4-3> 우리나라 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의 국별·연도별 RMI	105
<표 4-4> 국별·품목별 ITI	107
<표 4-5>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품목별 국제경쟁력 지수	109
<표 4-6> 수산물 수입 점유율 분석 범위	110
<표 4-7>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품목별(4단위)·국별 경합도(2000년도)	112
<표 4-8>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주요품목별(9단위)· 국별 경합도(2000년도)	113
<표 4-9> CMS 모델의 분석기준	114
<표 4-10> 연도별 대일수출 증감요인 추이	116
<표 4-11> 품목별 수출증감요인 변동 추이	116
<표 5-1> 수출가능 양식품목의 전략적 분류 및 육성방안	126
<부표 1>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품목별(4단위)·국별 경합도	147
<부표 2>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주요 품목별(9단위)·국별 경합도	148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7
<그림 2-1>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 변동 추이	13
<그림 2-2>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입 변동 추이	32
<그림 2-3> 일본의 다랭이·가다랭이류 수급 추이	35
<그림 3-1> 일본 수산물의 자급률 추이와 수입 의존도	56
<그림 3-2> 수입국의 관세율 감축과 국제가격 변동	80
<그림 3-3> 수출국의 재정지원과 국제가격 변동	89
<그림 4-1> 수산물 품목특화의 수요·공급 곡선	97

<요 약>

1.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은 국내 소비의 감소와 수출수요의 정체에 따른 국내 공급여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의 감소와 국내 생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최근들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80년 이후 수산물의 수출수요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입수산물의 비중은 연평균 15.7%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 도에는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이와 같은 배경에는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점과, 그 밖에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 UR협상과 수산물시장의 개방 등 수산물 무역과 관련한 외부환경의 변화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일본의 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수산물 교역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수산물 교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연구대상
 -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무역구조
 -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간 품목별 경쟁력 현황
 -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련 제도의 특징
- 연구방법
 - WTO, OECD, 국내외 무역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

- 주요 연구대상별로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동 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의 검토
- 변동요인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등을 활용

3)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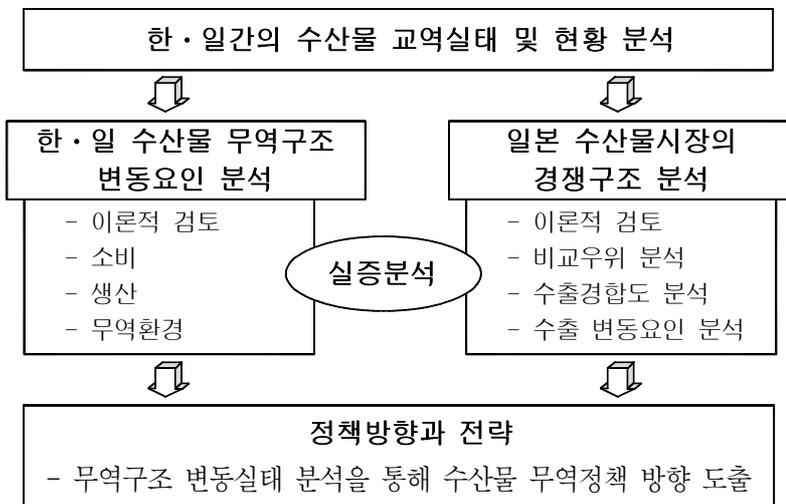
-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선행연구가 있으나, 양국간 무역 및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음
 - 국제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연구
 - 교역 당사국에 초점을 두어 양국간 특정상품의 수출입실태와 원인분석을 수행하는 산업내 무역에 관한 연구
 -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상대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한 국가의 수출입시장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
 - 자국의 무역구조와 산업구조의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산업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등

4) 이 연구의 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 앞서 제시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함

<그림 요약-1>

연구의 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2. 한·일 수산물 교역실태 분석

1) 세계 수산물 교역실태

- 세계 수산물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연평균 14.5%씩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라 관할해역이 확대된 캐나다·베트남·페루 등이 새로운 주요 수출국으로 떠오름
- 세계 수산물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실태

-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원인은 단순히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 수출 공급기반의 약화로 인한 수출의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3) 일본의 수산물 교역실태

- 일본은 세계 제2위의 수산물 생산국이며, 전세계 수산물 수입액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
- 중국 수산물의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2001년 16.4%), 미국은 10% 내외로 안정적이고, 한국은 약간씩 낮아지고 있음

4) 한·일 양국간의 수산물 무역실태

-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며, 수입국은 중국, 미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이 8.4%를 점유하여 4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은 수출금액 중 13.1%를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는 총 수입의 6.8%를 수입하고 있음

5) 실태분석 종합

- 우리나라 수산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국내 공급기반의 약화로 인한 수출감소가 수입증가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봉장어와 삼치를 중심으로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신선·냉장제품의 경우는 물량보다는 가격요인에 의해 1990년대 초반 이후 수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는 돔, 농어 등 활어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제품형태별로는 일본과 중국의 신선·냉장제품이, 그리고 북양어장 상실로 인한 대구·명태·명란 등의 냉동어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3. 한·일 수산물 무역구조 변동요인 분석

1) 수산업의 구조변화와 무역

- 개방경제에서 수산물의 국내 소비·수출 등의 수요요인과 국내 생산·수입 등의 공급요인, 그리고 국내 총수요 대비 국내 생산의 자급률 등이 국내 수산업의 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검토함

2) 한·일 수산물 수급실태

-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요증대가 국내 공급의 축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산물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 수산물의 국내생산 공급이 연평균 4.1%씩 감소하여 수산물 수입이 1978년에 비해 2000년도에 약 4배로 증가하였음

3) 수산물 생산구조의 변화

-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쪽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 중 어류의 생산비중은 대폭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패류·연체동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산물 생산기반도 급속히 악화되어, 1980년 약 1,100만톤 상회하던 수산물 생산량이 그 이후 연평균 2.7%씩 감소하여 2001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600만톤으로 감소하였음

4)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

-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성향은 종래의 단순한 선어나 부식 개념에서 벗어나서 즉석·편리·고차가공품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다양화 및 편리화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일본도 어로기술과 양식기술의 발달, 유통부문의 냉동·가공기술과 물류기술의 발전·보급에 따라 국민소득 향상을 배경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소비증가 및 소비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10여년 동안 일본 가계의 해조류 소비지출은 다소 감소한 반면 패류는 약간 증가함. 또한 대형할인점 및 외식산업 등을 통한 직접구매의 증가 등으로 시장외 유통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5) 한·일 수산물 무역환경의 변화

① 관세

-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패류는 기본관세가 평균 16.3%임. 그러나 활어 및 냉동어류는 10%, 신선·냉장어류와 훈제한 어류 등은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은 단순평균 관세율이 1997년에 9.4%에서 1999년에는 8%로 1.4%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무역량 기준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9년에 4.3% 수준임
-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중 15%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약 70%에 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118개 어패류에 7.4%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② 비관세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에 대해 특별히 비관세장벽을 마련하지 않았음. 다만 수입수산물의 검사,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 원산지표시제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긴급조정조치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극적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자국 산업의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할당·관세할당 등 각종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음

③ 수산보조금

- WTO협상에서 일본은 수산보조금이 생산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으나 과잉어획능력의 삭감, 자원의 관리 및 보호육성 등 수산자원의 유지 및 관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입장을 취함
-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수산보조금은 양국이 지닌 수산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일본 시장에서의 수산물 경쟁구조 분석

1) 수산물 무역구조 결정요인

- 수산물의 무역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적 함의에 따르면 자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것임. 그리고 국내 수요패턴이 자국 비교우위가 가장 한계점에 이른 품목으로 확산될수록 자국의 수출특화범위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한계 수출산업의 성장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제무역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의 도구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무역특화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IITI) 및 상대적 시장집중도지수(Relative Market Intensity; RMI) 등임

2) 국내 수산물의 비교우위 분석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수산물 교역국들은 대체로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와 통조림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교열위에 있음
- RMI 지표로 측정된 결과, 우리나라 수산물은 일본, 중국, 태국의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편, 미국의 시장에서는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경쟁국과의 수산물 수출경합도 분석

- 우리나라 수산물이 일본 수입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주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한 결과, 수산물 전품종에 대해서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태국 등과는 경쟁관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 분석

- 불변시장점유율 분석(CMS)결과에 따르면, 1996~1999년 기간중 우리나라 수산물이 대일 수산물 수출을 주도한 것은 주로 경쟁력 향상 때문이었으며, 일본의 수산물 수입품목이 달라진 점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일본시장에서 중국, 태국 등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원천은 주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5. 수산물 무역구조의 고도화 전략

1) 기본방향

-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이 수산물 무역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

시킴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함

- 그리고 국내 어업생산 구조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산물 공급기반 및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해야 함

2)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

①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 선어의 원료어 처리·포장·수송기술을 고도화하고, 어획 후 어체의 변질이나 성분 분해를 방지하며, 양식수산물의 우량종묘 생산 및 양성관리를 전문화하는 등 제품의 다양성과 고품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변화에 부응하여 제품의 표준화·등급화·소포장·디자인 등의 제품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수출수산물에 대한 제품안전성 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함

② 새로운 수출상품의 지속적 창출

- 즉석식품·간편식품·연제품을 원료로 한 기능성 건강식품 등의 한계수출 품목을 개발하여 다품종 소량수출의 공급기반을 확충해야 함

③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

- 수입국 소비자의 기호와 무역정책, 수입시장 내의 경쟁관계 등에 대한 시장조사와 정보수집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해외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 시장의 유효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수산박람회 참여 등 적극적 이벤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④ 동북아 수산물 국제분업체제 구축

- 지역 수산경제체제나 어업관리체제를 무역과 연계시켜 광역의 해양생태자원과 어업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역내 무역질서의 안정화를 추진함
-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분업체계를 유도하고, 수산물 허브(Hub)시장을 구축하여 국제거래기반을 확보함

3) 수출 공급기반의 확충

- 연근해어업의 생산구조를 장기 지속가능한 어업체제로 전환하되 경쟁력을 지닌 어종의 자원증식과 품종 확대를 추진하고, 양식어업은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
- 원양어업은 어선생력화를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능력을 유지함

4) 수산물 무역촉진을 위한 성장동력의 강화

- 세계 수산물 수급상황과 경쟁국가의 생산·소비·가격 등의 시장정보, 그리고 새로운 기술정보 등을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제(수산물종합무역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가공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함. 또한 소규모 가공업자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금지대상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해 나감

5) 수산물 수출입관련 제도 개편

- 한·일간의 수산물 교역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결과를 적극 수용하거나 쌍무협상을 추진하여 관세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해 상호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식품의 관세체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 방식으로 개편하도록 함
 - 관세율의 다단계화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관세체계의 도입
 - 품목분류 및 기본관세율 체계의 합리화
 - 종량세제도 도입·확대 및 고관세율의 완화
 - 탄력관세제도 적극적 활용
- 비관세조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생 및 검사·검역제도(SPS),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함

6. 결론

- 이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 수출의 장기 정체와 지속적인 수입증가로 인하여 야기된 최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한·일 간의 수산물 무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음
-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분석대상과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한 본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무역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동북아 수산물 허브(Hub)시장 조성
 -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해외 수출시장의 다변화
 -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 정착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구조는 국내 소비의 감소와 수출수요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의 감소로 인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수산물 수급구조에 있어서 1980년 이후 수산물 수출수요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총공급량에 대한 수입수산물의 비중은 연평균 15.7%의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같은 수산물 수출의 장기 정체와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01년도에는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무역역조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이후 각종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연안 수산자원 보유국의 자원자국화 정책에 의한 조업구역의 축소 등 생산과 관련된 외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UR협상과 수산물시장의 개방, APEC에서의 수산분야 조기자유화조치 타결 등 수산물 무역과 관련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기인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재정, 즉 1990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자금,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투입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고려할 때 수산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수산업에 있어서 장기지속적 어업생산 구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미덕일 수 있다는 일부의 수입예찬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동안의 수출정책이 수입관리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수산업이 국민경제와 국제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높

은 외화가득률로 인하여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각광받던 경제개발 초기 연대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지는 모르겠으나, 부존자원이 중요한 국제경쟁력 요소가 되는 수산업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산업의 성장과 산업종사자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선호하고,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가인 일본을 인근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그들이 소비하는 수산물의 약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선호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세계적인 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어 일본 수산물시장의 진입조건은 훨씬 용이해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다른 수산물 수출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수산물 생산정책, 무역정책 등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GATT/BOP 조항의 졸업으로 모든 수산물은 1997년까지 완전 개방되었고, 한·중 국교수립 이후 중국의 저가 수산물이 대량 수입되면서부터 국내 수산물 무역정책 중 수출정책은 사라지고 오직 수입관리에만 전념해 옴으로써 수산물 수급상 국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한편으로는 일부 품목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폭락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관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국제교역체제에서 수산물 수입관리 중심의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수출촉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의존도가 75%에 이르는 일본의 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간의 수산물 교역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한·일간 무역 여건 아래에서 수산물 무역구조를 고도화시

키는 무역정책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수산업 생산기반의 효율화와 유통 및 시장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무역구조, ii)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간 비교우위 현황, iii)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련 제도의 특징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로부터 한·일 간 무역구조의 변동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무역구조의 변동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조사, 통계분석 및 계량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는 WTO, OECD, FAO의 Working Paper 혹은 Meeting Report, 국내외 무역관련 연구보고서, 논문을 조사하였다.

둘째, 한·일 간 수산물 무역구조의 변동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주요 연구대상별로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동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여 이 연구의 전체적인 유효성(Effectiveness)과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이론적 모형(Theoretical Model)에서 제시된 기본적 함의를 토대로 실증분석 모형(Empirical Model)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Fao 통계자료, 국내외 수산물 수출입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성장률, 경쟁력 지수, 확률 등을 추정·분석하는 통계분석기법(Statistical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넷째, 필요시 불변시장점유율 분석과 같은 계량경제학적 분석(Econometrics Analysis)을 이용하였다.

3. 선행연구

지금까지 무역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 국가의 수출 및 수입을 대상으로 경쟁력 분석 및 수출 촉진방안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수산물 교역의 양 당사국을 대상으로 상대국의 소비 및 시장행태, 수입환경 등 제

도적 연구를 바탕으로 자국의 수출입 전략품목과 수출 촉진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수출국 입장에서 수입국인 일본의 수산물 수입가격 반응과 수입성향을 분석하여 수출 전략품목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수출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무역구조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첫째, 국제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연구, 둘째, 교역 당사국에 초점을 두어 양국간 특정상품의 수출입 교역실태와 원인분석을 수행하는 산업내 무역에 관한 연구, 셋째,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상대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한 국가의 수출입시장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 넷째, 자국의 무역구조와 산업구조의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산업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의 연구로서 Bhagwati,¹⁾ Leamer²⁾ 등은 헉셔-올린-사무엘슨 모형을 다상품·다생산 요소의 경우로 확장시켜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문배·심기섭³⁾은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와 무역특화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IITI) 등을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영수⁴⁾는 세계 교역환경 변화와 각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및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의 수산물 무역구조와 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주문배⁵⁾는 WTO 뉴라운드 대비 수산물 HS분류 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연구의 일부로 RCA법, CMS모형을 이용하여 주요국의 수출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번째 경우의 연구로서 김승진⁶⁾은 한·미·일 3국의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과 산업내 무역의 요인 및 변화추이에 관한 비교정태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수산물분야에서는 박성쾌·김정봉⁷⁾이 「UR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증대 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여건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 수산물시장에서의

1) Bhagwati, J., "The Heckscher-Ohlin Theorem in the Multi-Commodity Case", *JPE*, 1972.

2) Leamer, E. E., "The Leontief Paradox, Reconsider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No.3, 1980, pp.495~503.

3) 주문배·심기섭 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4) 장영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성격구분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문집」, 제28권 1호, 1997.

5) 주문배, 「수산물 HS 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해양수산부, 2001.

6) 김승진,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경쟁력과 산업내무역의 변화추이」, 한국경제연구원, 1987.

7) 박성쾌·김정봉, 「UR 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경쟁력 분석과 일본의 무역관련 제도 분석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Grubel et al.,⁸⁾ Brander,⁹⁾ Krugman¹⁰⁾ 등은 양국의 다양한 산업특성의 변수들을 가지고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경우의 연구로서 유철호·허덕¹¹⁾은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 수출증대방안」 연구에서 일본의 돈육시장 분석을 통하여 국내 양돈산업 육성방안을 연구하였다. 거꾸로 조덕래¹²⁾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국내 수입수요를 분석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문제점을 주요 논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김정봉 외¹³⁾는 「중국 수산업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일본 수산물 수입 시장에서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수산물 생산 증장기 추세분석과 수산물 교역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바 있다. 홍성걸 외¹⁴⁾는 수산물 수출 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제도와 실태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고 수출 촉진 방안과 효율적인 수입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교역환경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한 국가의 수요 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례로는 아끼야 시게오(秋谷重男외),¹⁵⁾ 오노세이치로(小野征一郎)¹⁶⁾ 등이 일본의 수산물 소비에 관해 연구한 것이 있다.

넷째로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연관성을 기초로 산업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연구로는 홍현표¹⁷⁾가 다부분 리카르도 모형으로부터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품목별 비교우위 구분을 통한 무역구조의 결정을 분석하고, 이들 무역구조가 다시 국내 소비, 생산부분 등과 함께 해당 산업의 구조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Chenery¹⁸⁾는 산업성장의 패턴과 구조변화 요인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8) Grubel, H. G. and Lloyd, P. J.,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London, 1975.

9) Brander, J. A. and Taylor, M. S., "International Trade and Open-Access Renewable Resources: The Small Open Economy Cas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30, 1997.

10) Krugman, P. R.,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 No.4, 1979.

11) 유철호·허덕,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 수출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12) 조덕래, 「韓國의 農産物 輸入需要 分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3) 김정봉 외, 「중국 수산업의 조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4) 홍성걸 외,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15) 秋谷重男 外, "食肉と魚介の競合に關する研究", 「水産經濟研究」, No.31, 1979.

16) 小野征一郎, "公海漁場の現状と課題", 「漁業經濟研究」, No.39-2, 1994.

17) 홍현표 외, "국제무역과 산업경제", 「국제무역과 한국경제」, 박영사, 1992.

18) Chenery, H. B.,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ER* 50(Sep), 1960.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 다음의 <표 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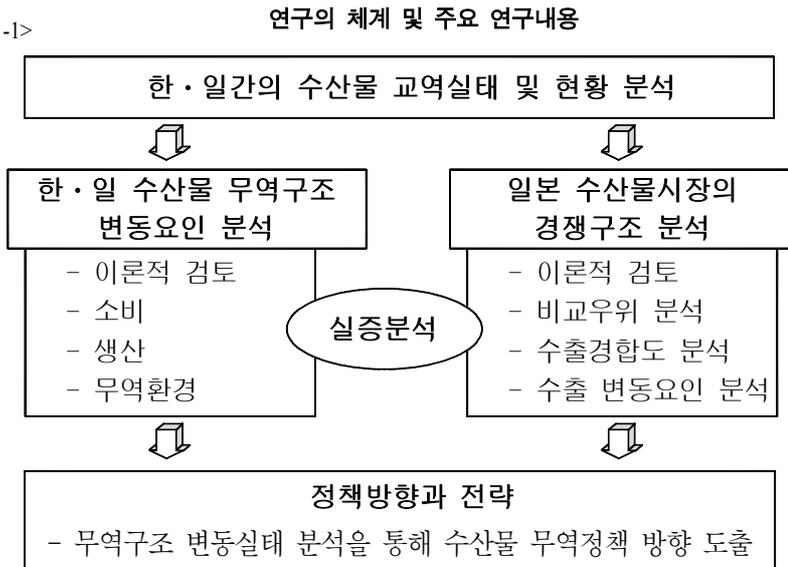
<표 1-1> 기존 연구의 유형별 사례

구 분	연구자(연도)	주요 연구내용
다국간 비교우위 분석	심기섭(1999)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IITI) 등을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
	장영수(1997)	최근의 세계 교역환경 변화와 각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및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의 수산물 무역구조와 전망에 대해 분석
	주문배(2001)	WTO 뉴라운드 대비 수산물 HS분류 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연구의 일부로 RCA지수법, CMS모델을 이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분석
	Bhagwati(1972) Leamer(1980)	헤셔-올린-사무엘슨 모형을 다상품·다생산 요소의 경우로 확장시켜 분석
동일업종 내 양국모형	김승진(1987)	제조업 주요품목의 한·미·일 3국간 산업내 무역요인 및 비교우위 분석
	박성쾌·김정봉 (1991.12)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여건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 수산물 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과 일본의 무역관련 제도 분석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을 제시
	Grubel et al.(1975) Brander(1998) Krugman(1979)	양국간의 산업내 무역의 요인을 설명함
자국 혹은 상대국 사례연구	유철호·허덕(1991)	일본의 돈육시장 분석을 통하여 국내 양돈산업 육성방안을 연구
	조덕래(1991)	농산물을 대상으로 국내 수입수요를 분석
	김정봉·고재모· 류호영(1996)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수산물 생산 증장기 추세분석과 수산물 교역의 비교우위를 분석
	홍성걸·박성쾌· 김정봉(1998)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제도와 실태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고 수출촉진 방안과 효율적 수입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秋谷重男 외(1979) 小野征一郎(1988)	일본의 수산물 소비에 관한 연구
산업구조 및 무역	홍현표(1992)	다부문 리카르도 모형의 무역구조 결정 및 내수, 생산부문 등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요인 분석
	Chennery(1960) Kuznetz(1966)	산업성장 패턴에 따른 수출입 및 산업구조 변화를 연구함

4. 연구의 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그림 1-1>과 같은 체계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1-1>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주요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각각에 있어서 수산물 교역실태 분석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양국의 지위를 파악하여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국간 수산물의 무역구조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 수산물의 소비, 생산 및 무역환경적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일간 수산물 무역구조의 원인으로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구조 분석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우위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비교우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비교우위지수 분석, 수출경합도 분석,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등의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대일 수산물 변동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분석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한·일간의 수산물 무역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제 2 장 한·일 수산물 교역실태 분석

1. 세계 수산물 교역실태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어선규모의 확대와 어획성능의 획기적인 개선 및 미개척 원양어장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유엔해양법이 발효된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특히 원양어업의 발전은 수산자원의 빈국(貧國)에게도 해양개척을 통한 부의 창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원양어장 개발로 인하여 수산물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 기호도가 비교적 낮았던 국가들도 세계의 수산물 수요의 확대에 따라 해외 수산시장 지향적 수산물 생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생산량의 확대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전반적인 증가는 1970년대 후반의 수산자원 보유 연안국가들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와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른 원양어업의 제약 등으로 자원부국의 과잉생산 문제와 자원빈국의 과소생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UR협상이 진전되면서 다국간 혹은 양국간 협상에 의한 국경조치의 완화로 국제 수산물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세계 수산물 총수출액은 연안국가들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직전인 1976년에 약 80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약 553억달러로 연평균 8.1%씩 증가해 왔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2000년 현재 세계 수산물 수출 20대 국가 중에서 러시아만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나머지 모든 국가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도 역시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전통적 수산국가인 구 소련에서부터 따진다면 장기 수산물 수출추이는 증가추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표 2-1> 참조).

이들 20대 국가의 수산물 수출증가율을 보면, 베트남이 연평균 26.3%씩 증가하여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과 세계 수산물 수출 1위 국가인 태국이 14.5%씩 증가해 왔다. 이어서 칠레가 12.3%, 인도네시아가 10.8%씩 증가하여 10% 이상의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6.2%의 증가로 세계 평균증가율을 밑돌고 있으며, 이들 20개 국가 중에서 대만,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

<표 2-1>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76	1980	1985	1990	1995	2000	연평균 증가율(%)
세계 총수출액	7,980	15,517	17,130	35,825	51,938	55,296	8.1
태국	150	358	675	2,267	4,454	4,384	14.5
중국	127	263	268	1,303	2,926	3,709	14.5
노르웨이	655	975	922	2,066	3,140	3,550	7.0
미국	372	1,002	1,162	3,110	3,494	3,119	8.9
캐나다	604	1,082	1,343	2,256	2,327	2,835	6.4
덴마크	521	1,001	964	2,165	2,471	2,766	6.9
칠레	101	323	437	885	1,771	1,849	12.3
대만	432	810	997	1,275	1,829	1,763	5.8
스페인	245	344	355	749	1,208	1,617	7.8
인도네시아	124	211	237	997	1,692	1,610	10.8
한국	329	682	859	1,481	1,713	1,490	6.2
베트남	-	11	74	176	513	1,480	26.3
인디아	193	269	299	472	1,048	1,418	8.3
러시아	-	-	-	-	1,635	1,390	-2.7
네델란드	267	529	550	1,318	1,464	1,352	6.7
영국	153	373	368	972	1,209	1,270	8.8
아이슬란드	290	709	617	1,241	1,343	1,236	6.0
페루	215	321	222	400	870	1,129	6.9
독일	173	318	287	669	907	1,114	7.7
프랑스	181	410	365	940	1,002	1,109	7.5

자료 : <http://www.fao.org/fi/statist/FISOFT/FISHPLUS.asp>(2002. 10. 2)

그러나 수산물 수출증가율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세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총 수산물 수출은 1976~1985년간에는 연평균 7.9%씩 증가, 1985~1995년간은 연평균 10.6%씩 증가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어 왔으나, 1995~2000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1.1%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수산물 수출이 증가한 국가와 감소한 국가는 동일하게 각각 10개국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수출

이 증가한 국가 중에는 베트남만이 연평균 19.3%씩의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해 왔으며, 인도가 5.1%, 스페인이 5.0%, 페루가 4.4%, 중국이 4.0%씩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 기간 2.3%의 감소로, 감소추세를 보인 10개 국가 중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세계 수산물 총 수입규모는 1976년 약 71억달러였으나 연평균 9%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약 609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0년 현재 국가별 수입비중은 일본이 세계 총 수산물 수입의 25.8%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1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미국이 17.3%, 스페인이 5.5%, 프랑스가 3.7%로, 이들 4개국의 수입규모가 세계 총 수입규모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76	1980	1985	1990	1995	2000	연평균 증가율(%)
세계 총수입액	17,130	16,562	19,491	39,991	57,070	60,926	10.5
일본	1,850	3,253	4,852	10,905	18,147	15,743	8.9
미국	1,891	2,633	4,052	5,619	7,221	10,556	7.1
스페인	152	544	414	2,377	3,119	3,372	13.2
프랑스	575	1,239	1,057	2,849	3,256	3,018	6.9
이태리	397	847	998	2,482	2,309	2,555	7.7
독일	540	1,031	829	1,914	2,504	2,282	5.9
영국	519	1,046	949	1,934	1,934	2,210	6.0
홍콩	182	361	472	1,112	1,861	1,970	10.0
덴마크	117	332	382	1,116	1,622	1,860	11.7
중국	-	-	95	224	957	1,821	20.3
캐나다	184	302	356	631	1,052	1,409	8.5
한국	17	36	99	391	850	1,399	19.3
네델란드	201	391	309	771	1,200	1,172	7.3
벨기에	216	408	305	757	1,041	1,039	6.5
포르투갈	110	101	202	608	764	863	8.6
태국	7	23	138	803	875	827	21.0
스웨덴	195	325	245	450	546	712	5.3
노르웨이	27	70	71	239	494	612	13.3
대만	180	486	894	426	643	579	4.8
싱가포르	68	142	204	366	672	566	8.8

자료 : <http://www.fao.org./fi/statist/FISOFT/FISHPLUS.asp>(2002. 10. 2)

국가별 수산물 수입추이를 보면, 세계 20대 수입국가 모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태국이 연평균 21%씩의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어서 중국이 20.3%, 우리나라가 19.3%, 노르웨이가 13.3%, 스페인이 13.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가인 일본은 세계 평균 증가율과 비슷한 연평균 8.9%씩 증가해 왔고, 제2위의 수입국가인 미국은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7.1%씩 증가해 왔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산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 폭이 큰 반면, EU 국가들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대별 수산물 수입증가 현상을 살펴보면, 세계 수산물 총수입액은 1976~1985년에는 연평균 10.6%씩 증가해 왔으며, 1985~1995년 사이에는 연평균 10.3%씩, 그리고 1995~2000년 사이에는 연평균 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 1위의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는 1995년 이전의 양 기간에 각각 10.1%, 14.1%씩 증가해 왔으나 1995~2000년에는 오히려 1.2%씩 감소해 왔다. 한편 중국은 1985~1995년 사이에 연평균 23.3%씩 증가해 왔으며, 1995~2000년 사이에도 세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11.3%씩의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도 연대별로 각각 19.2%, 21.6%, 8.7%의 증가율로 세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총 수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전까지 1% 미만이었으나 2000년에는 2.3%로 높아졌다. 특히 1998년도 IMF의 위기상황에서 1% 수준으로 낮아졌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급격한 증가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의 세계 수산물 교역 추이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수산물 교역규모는 국제적인 해양생물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를 통한 배타적 관할해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원 보유국가로부터 수산물 소비국가로의 수산물의 국제적인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둘째, 세계 최대의 인구규모와 더불어 20세기 후반부터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 수출은 연평균 14.5%로 세계 총수출 증가율 8.1%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입의 증가율도 역시 20.3%로 연평균 9.0%인 세계 수산물 총수입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세계 수산물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 의하여 주도되며,

특히 세계 수산물시장은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라 관할해역이 축소된 국가,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태국 등의 수산물 수출은 다소 위축된 반면, 캐나다, 베트남, 페루 등은 새로운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국민기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한국,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의 수산물 수입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실태

2001년 11월 14일 WTO/DDA의 채택은 UR협정에 이어 또 한번의 새로운 교역 질서의 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국내 수산업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WTO/DDA는 정해진 개혁의 원칙에 따라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의 폭을 결정짓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더 시장지향적이면서 ‘예외 없는 관세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UR협상 결과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이미 1980년대 후반을 분수령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즉 19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과 국내 수산물시장의 불가피한 개방화 추세, 1994년 ‘UN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EEZ체제의 정착, WTO체제의 출범과 GATT체제 하에서 약속한 수산물 전 품목의 수량제한 철폐 및 수입 자유화 실시, APEC 조기 자유화 조치에 의한 수산물 관세의 무세화 추진, 한·일, 한·중 어업협상에 따른 어장축소와 생산기반의 약화 등 수산업은 변화와 충격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 1960~70년대 고도 경제개발시대에 있어서 우리 수산업은 무역수지의 흑자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나 지난해에 처음으로 3억 7천만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수산물 무역수지의 적자는 금년 상반기에 있어서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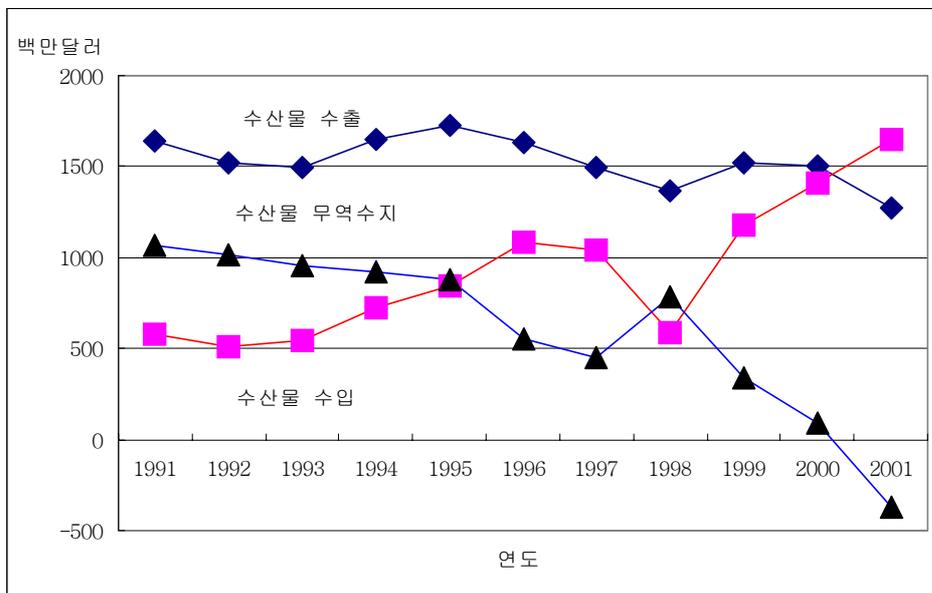
이와 같은 국제적인 어업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수산자원 감퇴로 인한 어업생산의 축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산 저가수산물의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수산물의 공급구조는 최근 급격히 변해 왔다.

1) 수산물 무역수지의 변화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12억 7천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16억 5천만달러로 늘어나 3억 8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향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양법협약 발효 및 200해리 경제수역체제의 정착에서 비롯된 원양어업의 위축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근해어장의 축소, 그리고 연안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수출공급기반이 약화된 반면, 소비는 소득 증가에 힘입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2-1>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 변동 추이



<표 2-3>은 1975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의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1975년 불과 3억 8,800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 17억 2,100만달러에 이르는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수산물 수입은 1989년 GATT/BOP 조항의 졸업에 따라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제한 금지'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UR협상에 의한 수산물의 수입개방예시계획에 따라 제1차 예시품목의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증가 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제2차 개방예시품목이 자유화된 1996년 이후 10억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2년간에는 전년 대비 약 20%씩 증가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 수산물의 무역규모가 세계 총 수산물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세계 총 수산물 수출의 7.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3~4%, 1990년대에는 1~2%,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1% 미만으로 낮아졌다. 반면 수산물 수입은 1999년 이전까지는 1% 미만에서 2002년에는 1.2%에 이르게 되었다.

<표 2-3>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실적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산물 수출		수산물 수입		수산물 무역수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975	388	7.2	-	-	-
1980	760	4.3	37	0.2	723
1985	891	2.9	83	0.3	808
1990	1,513	2.3	368	0.5	1,145
1991	1,643	2.3	576	0.7	1,067
1992	1,518	2.0	506	0.6	1,012
1993	1,497	1.8	542	0.6	955
1994	1,647	1.7	726	0.7	921
1995	1,721	1.4	843	0.6	878
1996	1,635	1.3	1,080	0.7	555
1997	1,493	1.1	1,045	0.7	448
1998	1,369	1.0	587	0.6	782
1999	1,521	1.1	1,179	1.0	342
2000	1,504	0.8	1,411	0.9	93
2001	1,274	0.8	1,648	1.2	△ 374

주 : 1)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물 자료는 FAO 자료와 상이한 수치를 보일 수 있음.

2) *는 세계 수산물 총수출(입)금액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금액 비율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1.

<http://www.momaf.go.kr/data/statistics/statistics.asp>(2002. 8. 18)

이와 같은 수산물 무역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몇 가지의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무역수지의 역전은 단순한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국내 수출의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국내 수출의 공급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동안 무역수지 흑자의 시현은 국내 수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품목 제한, 고관세 등 강력한 국경보호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수산물 수입개방예시계획의 이행 속도에 따라 수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수산물 무역의 흐름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산물 관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향후 국제적인 수입자유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수산물 수입의 확대가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공급기반인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생산여건이 상당 기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가와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산물 무역수지 변화를 보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0%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 흑자로 다른 나라들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시켜 왔다. 그러나 대일 수산물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7억 9천만달러 정도에 그쳐 2년 전의 약 1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대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수출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1999년 10억 4,800만달러의 흑자를 시현했으나 불과 2년 후인 2001년에는 7억 8,500만달러의 흑자로 약 3/4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999년 3억 5,400만달러의 적자에서 2001년에는 5억 7,900만달러로 약 1.6배 늘어났다. 이 외에도 태국(3.3배), 대만(2.9배), 캐나다(1.75배) 등과의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본에 대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중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이다.

<표 2-4>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연도 국가명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일본	1,155	107	1,048	1,125	185	940	925	139	785
중국	59	413	△ 354	84	487	△ 403	56	634	△ 579
미국	76	130	△ 54	79	145	△ 67	82	159	△ 76
스페인	36	10	26	25	10	15	42	9	33
태국	29	44	△ 15	23	68	△ 45	33	83	△ 50
대만	11	21	△ 10	18	31	△ 13	17	46	△ 29
캐나다	11	19	△ 8	13	19	△ 6	11	25	△ 14
필리핀	18	11	7	13	17	△ 4	6	18	△ 12
홍콩	12	13	△ 1	13	10	3	10	4	6
인도네시아	9	23	△ 14	7	28	△ 21	5	25	△ 21
총계	1,521	1,179	342	1,504	1,410	94	1,273	1,648	△ 375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2) 수산물 수출입 실적

(1) 제품형태별 수출입 실적

수산물 무역통계상의 제품형태별 통계체계가 개정된 1994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의 제품형태별 수출실적을 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품목의 절대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구성에 있어서는 최근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냉동품은 거의 40%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로 지속돼 오고 있고, 신선·냉장품 역시 15~1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제품형태의 수출규모는 총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염장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1.1%포인트에 불과하다.

<표 2-5>

우리나라 수산물 제품형태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계	활어	신선·냉장	냉동	훈제	건조	염장	통조림	기타
1994 (A)	1,647 (100)	90 (5.5)	300 (18.2)	692 (42.0)	10 (1.4)	109 (6.6)	44 (2.7)	64 (3.9)	337 (20.5)
1995	1,721 (100)	105 (6.1)	297 (17.3)	729 (42.4)	4 (0.5)	102 (5.9)	39 (2.3)	70 (4.1)	374 (21.7)
1996	1,635 (100)	79 (4.8)	256 (15.7)	723 (44.2)	5 (0.7)	74 (4.5)	37 (2.3)	50 (3.1)	412 (25.2)
1997	1,493 (100)	85 (5.7)	217 (14.5)	666 (44.6)	4 (0.6)	69 (4.6)	34 (2.3)	41 (2.7)	376 (25.2)
1998	1,369 (100)	63 (4.6)	247 (18.0)	607 (44.3)	2 (0.3)	86 (6.3)	28 (2.0)	47 (3.4)	288 (21.0)
1999	1,521 (100)	91 (6.0)	266 (17.5)	679 (44.6)	1 (0.1)	87 (5.7)	32 (2.1)	57 (3.7)	309 (20.3)
2000	1,505 (100)	85 (5.6)	270 (17.9)	670 (44.5)	1 (0.1)	80 (5.3)	28 (1.9)	46 (3.1)	325 (21.6)
2001 (B)	1,274 (100)	73 (5.7)	230 (18.1)	544 (42.7)	1 (0.2)	81 (6.4)	21 (1.6)	48 (3.8)	275 (21.6)
B/A	0.75	0.81	0.77	0.79	0.1	0.74	0.47	0.75	0.82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호.

한편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물 수입의 경우는 절대금액의 증가와 더불어 상품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는 냉동품은 1994년 5억 4,200만달러에서 2001년에는 11억 1,100만달러로 2.3배 증가하였으며, 신선·냉장품은 동 기간에 4.2배 증가한 1억 5천만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활어의 경우에는 1994년 2,400만달러에서 2001년에는 1억 3,200만달러로 7년 동안 5.5배나 증가하였으며, 건조제품 역시 수입실적은 다소 미미하나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입비중이 3%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염장품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조림은 동 기간에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표 2-6>

우리나라 수산물 제품형태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계	활어	신선·냉장	냉동	훈제	건조	염장	통조림	기타
1994 (A)	726 (100)	24 (3.3)	36 (5.0)	542 (74.7)	- (0.0)	1 (0.1)	23 (3.2)	13 (1.8)	88 (12.1)
1995	843 (100)	29 (3.4)	48 (5.7)	592 (70.2)	1 (0.2)	3 (0.4)	23 (2.7)	17 (2.0)	130 (15.4)
1996	1,080 (100)	46 (4.3)	64 (5.9)	734 (68.0)	- (0.0)	9 (0.8)	29 (2.7)	2 (0.2)	194 (18.0)
1997	1,045 (100)	43 (4.1)	65 (6.2)	717 (68.6)	1 (0.1)	10 (1.0)	30 (2.9)	2 (0.2)	178 (17.0)
1998	587 (100)	21 (3.6)	25 (4.3)	431 (73.4)	1 (0.2)	10 (1.7)	14 (2.4)	1 (0.2)	85 (14.5)
1999	1,179 (100)	73 (6.2)	71 (6.0)	860 (72.9)	1 (0.1)	21 (1.8)	22 (1.9)	1 (0.1)	129 (10.9)
2000	1,411 (100)	119 (8.4)	118 (8.4)	928 (65.8)	2 (0.2)	46 (3.3)	22 (1.6)	3 (0.2)	173 (12.3)
2001 (B)	1,648 (100)	132 (8.0)	150 (9.1)	1,111 (67.4)	2 (0.2)	50 (3.0)	23 (1.4)	6 (0.4)	174 (10.6)
B/A	2.27	5.5	4.2	2.0	-	50.0	1.0	0.5	2.0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호.

이상의 제품형태별 수출입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수산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제품형태별 구성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산물 무역환경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경쟁력이 퇴보하거나 공급기반이 취약해진 제품은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육성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상품 구성은 수출, 수입 모두 냉동품과 신선·냉장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내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종별 수출입실적

2001년도 HSK 기준 수출수산물의 품목수는 총 281종인데, 이들 품목 중 15대 품목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참치, 굴, 오징어, 붕장어, 생선묵의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상품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을 보면, 1996년 이후 이들 15대 품목 중 굴(4.3%), 오징어(1.8%), 넙치(9.9%), 김(26.0%), 바지락(3.9%) 등 5개 품목만 수출증가 현상을 보인 반면, 나머지 10개 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품목 중에서는 김의 증가추세가 가장 두드러지며, 넙치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김의 증가는 그 동안 일본의 IQ품목으로 수출이 중단되어 오다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넙치의 경우는 국내 양식의 대표종으로 해외수요, 특히 중국 및 일본의 수입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품목은 생선묵(Δ 18.8%), 피조개(Δ 15.3%), 성게(Δ 14.4%), 계류(Δ 13.3%), 미역(Δ 12.6%)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선묵은 국내 가공연제품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원양어업 및 국내 수산물 가공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이의 수출 둔화는 곧 수산물 가공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최근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영효율성 저하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선묵의 가장 근원적인 수출감소 요인은 원료 수산물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조개의 수출감소는 국내 피조개 양식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피조개는 장기간에 걸친 연작으로 어장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른 주집산지의 양식장 생태환경이 나빠지면서 채묘부진 및 집단폐사의 빈발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게 역시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표 2-7>

주요 어종별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어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증가율(%)
총계	1,635	1,493	1,369	1,521	1,504	1,274	-4.1
참치류	313	307	286	294	230	257	-3.2
굴	98	80	86	111	130	126	4.3
붕장어	106	103	83	94	91	74	-5.8
오징어	61	119	75	68	92	68	1.8

주요 어종별 연도별 수출 추이(계속)

어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증가율(%)
생선목	175	138	107	80	59	50	-18.8
넙치	25	21	33	43	42	44	9.9
피조개	114	75	60	49	53	42	-15.3
김	10	14	26	25	31	40	26.0
게류	73	73	48	47	45	31	-13.3
툫	35	31	39	38	30	31	-2.0
바지락	23	19	29	24	27	29	3.9
미역	47	42	33	34	30	21	-12.6
고등어	30	12	12	26	26	18	-8.2
성게	33	22	23	19	17	13	-14.4
전갱이	21	9	14	7	13	12	-8.9
소라	17	12	13	14	15	12	-5.6
기타	469	428	415	562	588	418	-1.9

주 : 1) 어종별 수출금액은 당해 어종의 모든 제품형태를 합산한 것임.

2) kg을 ton으로 환산시 오차 발생(오차 허용범위 ± 2)

자료 : <http://www.momaf.go.kr/doc/2002%20stat/index.html>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품목은 305종에 이르고 있는데,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비중이 큰 15대 수입품목의 대부분은 냉동품이며, 최근 6년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8종이며, 감소한 품목은 7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가어종과 감소어종의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갈치(냉동), 고등어(냉동) 등 대중어와 활어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 중에서 활뱀장어는 연평균 94.7%씩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냉동갈치가 79.5%씩, 냉동고등어가 49.7%씩 증가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농어, 돔의 활어 수입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수입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 기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조미오징어로서 매년 20.4%씩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주요 어종별 연도별 수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증가율(%)
총계	1,080	1,045	587	1,179	1,411	1,648	7.3
조기(냉동)	165	34	52	131	141	147	△1.9
명란(냉동)	120	77	61	143	114	95	△3.8
갈치(냉동)	2	33	29	34	45	67	79.5
명태연육(냉동)	63	73	36	41	43	56	△1.9
새우(냉동)	72	65	17	26	41	50	△5.9
고등어(냉동)	4	6	4	16	20	45	49.7
낙지(냉동)	45	29	19	32	31	37	△3.2
뱀장어(활)	-	1	1	15	15	28	94.7
명태(냉동)	32	20	10	37	28	28	△2.2
농어(활)	16	15	5	13	19	21	4.6
복어(냉동)	10	5	3	7	13	19	11.2
돔(활)	11	11	2	10	9	15	5.3
갈치(신냉)	-	6	7	23	26	12	14.9
홍어(냉동)	14	18	7	9	15	12	△2.5
조미오징어	47	40	4	16	20	12	△20.4
기타	620	596	317	613	791	983	9.1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3) 주요 국가별 수출입 실적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출입 금액의 변동추이를 보면,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수출에 있어서는 8대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서 중국, 대만, 홍콩이 각각 연평균 4.3%, 1.1%, 13.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순증가량은 일본의 동 기간 감소량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체 수출금액은 연평균 1.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IMF 외환위기에 의한 경기의 침체를 벗어나면서 수출이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0년도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국별 수출의존도를 보면, 일본이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국 5.6%, 미국 5.3%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9>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연평균 증가율(%)	
					금액	구성비		
수출	전체	1,635	1,493	1,369	1,521	1,504	100.0	-1.7
	일본	1,217	1,018	896	1,155	1,125	74.8	-1.4
	중국	68	114	97	59	84	5.6	4.3
	미국	83	70	63	76	79	5.3	-1.0
	EU	105	104	146	85	65	4.3	-9.1
	태국	39	46	34	29	23	1.5	-10.0
	대만	17	10	14	11	18	1.2	1.1
	홍콩	7	5	24	12	13	0.9	13.2
	러시아	9	33	30	10	5	0.3	-11.1
수입	전체	1,080	1,045	587	1,179	1,411	100.0	5.5
	중국	217	272	197	413	487	45.1	17.5
	일본	59	72	38	107	185	13.1	25.7
	미국	176	130	84	130	145	10.3	-3.8
	러시아	214	176	106	205	125	8.9	-10.2
	태국	63	68	25	44	68	4.8	1.5
	인도네시아	21	21	16	23	28	2.0	5.9
	아르헨티나	36	31	12	11	9	0.6	-24.2

주 : EU는 15개 회원국 합계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1.

한편 수산물 수입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5.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연평균 25.7%씩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도 연평균 17.5%씩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약 30%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불과 5년전인 1996년도에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이 19.8%로 2위 국가였던 러시아는 2000년도에 8.9%로 4위로 낮아졌으며, 1996년도 국내시장 점유율 5.5%로 5위 국가였던 일본은 동 기간 점유율이 7.6% 상승한 13.1%로 2위 국가로 부상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 및 수입 수산물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수산상품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표 2-10>과 같다. 눈다랭이(냉동)를 비롯한 굴(산 것, 신선·냉장), 캐비아 대용품, 활넙치, 피조개(산 것, 신선·냉장), 등은 90%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붕장어 피레트(신선·냉장)는 100%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고차가공품인 생선묵은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유럽 및 미주 지역에 수출되고 있으며, 오징어(냉동)의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0>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국가별 비중(2001년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별	수출 실적	품목별 비중*	주요 국가별 비중
1	눈다랭이(냉동)	140	11.0	일본(99.8), 중국(0.2)
2	황다랭이(냉동)	71	5.6	스페인(5.5), 이탈리아(1.1), 프랑스(0.3)
3	오징어(냉동)	59	4.6	중국(42.4), 스페인(21.8), 미국(11.8)
4	굴(산 것, 신선·냉장)	52	4.1	일본(99.8)
5	캐비아 대용품	49	3.8	일본(99.0), 미국(0.1)
6	생선묵(게맛살)	45	3.6	스페인(33.8), 이탈리아(18.0), 미국(12.9)
7	넙치(활어)	41	3.2	일본(96.6), 중국(3.3)
8	피조개 (산 것, 신선·냉장)	40	3.1	일본(99.2), 중국(0.7)
9	굴(냉동)	37	2.9	일본(81.6), 중국(3.7), 대만(2.7)
10	붕장어 피레트 (신선·냉장)	35	2.8	일본(100)

주 : *는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에서 품목당 금액비율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한편 <표 2-11>에서처럼 우리나라 10대 수입 수산상품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품목별로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비교적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의 수입수산물인 냉동조기의 경우는 99.8%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명란은 러시아(82.5%), 냉동갈치는 중국(68.1%), 냉동아귀는 미국(53.8%), 명태연육 역시 미국(96.8%)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다.

<표 2-11>

우리나라 10대 수입품목의 국가별 비중(2001년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별	수입 실적	품목별 비중*	주요 국가별 비중
1	조기(냉동)	147	8.9	중국(99.8), 일본(0.1), 베트남(0.1)
2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96	5.7	러시아(82.5), 미국(8.1), 일본(4.2)
3	갈치(냉동)	68	4.0	중국(68.1), 인도(11.2), 인도네시아(9.1)
4	아귀(냉동)	59	3.6	미국(53.8), 중국(28.2), 남아프리카(6.8)
5	명태연육(냉동)	56	3.4	미국(96.8), 러시아(1.7),
6	기타연육(냉동)	54	3.3	태국(28.7), 베트남(27.9), 중국(8.5)
7	기타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50	3.0	태국(60.5), 필리핀(11.7), 캐나다(7.2)
8	고등어(냉동)	45	2.7	대만(25.1), 노르웨이(25.0), 중국(10.4)
9	까나리(냉동)	44	2.7	중국(99.6), 아르헨티나(0.4),
10	낙지(냉동)	37	2.2	중국(92.8), 베트남(4.4),

주 : *는 전체 수산물 수입액 중에서 품목당 금액비율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이상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실적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일본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품목별 수출에 있어서도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경우 일본시장의 수입여건 변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자율적인 생산조정이 어렵고, 국내 생산자의 가격교섭력이 저하될 수밖

에 없다.

둘째,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일본산 수산물은 가격경쟁에서의 비교열위로 인하여 상당히 제한적인 물량이 수입되었으나,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호도가 큰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면에 있어서 비교우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일본의 수산물 교역실태

1) 국별 수출입 실태

일본의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 1984년 1,280만톤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00년에는 640만톤에 그친 반면, 소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소득 증대 등에 힘입어 착실히 늘어났다. 그 결과 수산물 수입은 지난 1961년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전세계 수산물 수입액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표 2-12>

일본의 주요국별 수산물 수입 추이

단위 : 억엔, %

국가별	1989		1995		1997		1999		2001		연평균 증가율 (%)
	금액	비율									
총수입	14,500	100	17,212	100	19,456	100	17,394	100	17,237	100	1.3
중 국	959	6.6	1,942	7.0	2,767	6.4	2,482	7.3	2,821	16.4	8.6
미 국	2,620	18.1	2,300	11.3	2,024	14.2	1,745	14.2	1,749	10.1	△3.1
태 국	1,031	7.1	1,468	13.5	1,386	10.4	1,178	10.0	1,302	7.6	1.8
러시아	338	2.3	1,262	7.3	1,260	6.5	1,359	7.8	1,266	7.3	10.7
한 국	1,823	12.6	1,218	8.5	1,244	7.1	1,263	6.8	1,164	6.8	△3.4
인도네 시아	793	5.5	1,239	7.2	1,423	7.3	1,095	6.3	1,164	6.8	3.0

자료 : 日本水産物輸入協會, 「1999年度 水産物輸入統計年報」, 2000.
日本農林統計協會, 「水産白書 2001」, 2002.

<표 2-12>에서와 같이 일본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미국, 태국, 러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에는 16.4%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10% 선에서 안정되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약간씩 낮아지고 있다.

2) 국별 제품형태별 수출입 실태

1999년도 일본의 제품형태별 수산물 수입실적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일본의 어류 조제·가공품(1604류) 수입의 62.8%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활어(0301류), 신선·냉장어류(0302류), 연체동물(0307류), 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조제·가공품(1605류)의 5개 품목의 최대 수출국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에서도 강력한 경쟁국으로 나타났다(<표 2-13> 참조).

<표 2-13> 국별 제품형태별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1999년도) 단위 : 백만달러, %

HS	한 국		중 국		미 국		러 시 아		태 국		인도네시아	
	금액	비중										
0301	93	25.1	101	27.2	4	1.1	-	-	1	0.3	5	1.3
0302	34	3.2	172	16.2	54	5.1	8	0.8	21	1.9	130	12.3
0303	334	8.3	98	2.4	746	18.5	472	11.7	4	0.1	31	0.8
0304	109	8.2	164	12.3	272	20.4	38	2.9	201	15.1	10	0.7
0305	6	2.3	45	17.7	55	21.9	3	1.0	1	0.6	2	1.0
0306	19	0.5	138	3.8	162	4.5	603	16.6	249	6.9	268	15.7
0307	233	14.0	265	15.9	120	7.2	38	2.3	202	12.1	8	0.5
1212	85	47.8	69	38.7	1	0.4	-	0.1	-	0.1	1	0.4
1604	119	9.2	813	62.8	69	5.4	9	0.7	97	7.5	75	5.8
1605	63	7.8	266	33.3	4	0.6	10	1.2	259	32.3	65	8.1
기 타	118	18.9	36	5.8	37	5.9	7	1.2	2	0.4	69	10.9
합 계	1,112	7.3	2,167	14.2	1,525	10.0	1,189	7.8	1,038	6.8	949	6.2

주 : 0301:활어, 0302:신선·냉장어류, 0303:냉동어류, 0304: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품, 0305:건조·염장·훈제 어류,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 1212:해조류, 1604:어류 조제·가공, 1605: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조제·가공품.
 자료 : 日本水産物輸入協會, 「1999年度 水産物輸入統計年報」, 2000.

미국 또한 냉동어류(0303류), 어류의 파레트와 기타 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품(0304류) 및 건조·염장·염수장·훈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0305)류의 세 품목에서 일본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러시아는 갑각류(0306류)의 최대 수출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일본시장의 47.8%를 차지한 해조류와 기타 품목(18.9%)의 최대 수출국이나, 일본의 수입액 자체가 많지 않아 금액으로는 각각 8,500만달러와 1억 1,800만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일본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3억 3,400만달러를 기록한 냉동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의 수산물 수출은 1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연어, 송어, 가다랭이, 다랭이, 새치류 및 콩치 등이고, 홍콩, 미국, 한국, 중국 및 대만 등이 일본의 주요 수출 상대국이다.

3) 연도별 제품형태별 수출입 실태

일본의 수산물은 1960년대 환율자유화 이후 외화획득사업으로 자리 매겨져, 농산물과는 달리 일찍이 자유화 정책이 진행되었다. 일본의 수산물무역은 1970년대까지는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는 두 번의 석유위기와 1977년부터 각국에 의한 200해리 어업수역 설정이 맞물려 급속히 수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엔고 기조하에 수입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 기간 수입의 특징은 첫째, 과거에는 국내 수산물로 충족되던 식용부문에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서, 그만큼 국내 산업과의 경합이 심화되었다. 둘째, 식용 수산물 중에서도 ‘세 정상’이라 일컬어지는 새우, 연어·송어, 참치류와 이에 오징어와 문어를 합한 다섯 품목에 수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급화, 간편화를 지향하는 일본인의 식생활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활어·생선·냉동품의 형태로 항공편으로도 수입되었다.

<표 2-14>는 최근 5년간 일본의 제품형태별 수산물 수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수출규모는 1997년을 최고의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규모가 최대였던 1997년 대비 2000년도의 수출규모를 보면 염·간·훈제품(109%)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품류별 구성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대비 2000년의 구성비가 가장 크게 상승한 제품형태는 신선·냉동어류로 6.6%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구성비가 낮아진 제품형태는 진주로 4.4%포인트 감소하였고, 통조림도 동기간 0.8%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2-14>

일본의 연도별 제품형태별 수산물 수출액

단위 : 억엔

연도	합계	신선·냉 동어류	염·간· 훈제품	갑각· 연체류	통조림	수산 유지	진주	기타
1996	1,340 (100.0)	270 (20.1)	21 (1.6)	135 (10.0)	35 (2.6)	11 (0.8)	518 (38.7)	349 (26.0)
1997 (A)	1,698 (100.0)	450 (26.5)	23 (1.4)	187 (11.0)	39 (2.3)	12 (0.7)	573 (33.7)	415 (24.4)
1998	1,524 (100.0)	428 (28.1)	18 (1.2)	161 (10.6)	26 (1.7)	8 (0.5)	542 (35.6)	340 (22.3)
1999	1,414 (100.0)	354 (25.0)	14 (1.0)	118 (8.3)	28 (2.0)	12 (0.8)	557 (39.4)	332 (23.5)
2000 (B)	1,384 (100.0)	369 (26.7)	25 (1.8)	135 (9.8)	20 (1.4)	10 (0.7)	475 (34.3)	349 (25.2)
B/A (%)	81.5	82.0	109	72.2	51.2	83.3	82.9	84.1

자료 : 日本農林統計協會, 「水産白書 2001」, 2002.

다음으로 <표 2-15>를 통하여 일본의 수산물 수입추세를 보면, 수입 역시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의 추세는 비교적 완만하기는 하나 그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활·생선·냉장·냉동품과 염·간·훈제품은 2000년도의 수입규모가 1996년 대비 각각 90.2%, 64.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단지 조제품만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일본의 연도별 제품형태별 수산물 수입액

단위 : 억엔

연도	총액	활·생선· 냉장·냉동품	염·간· 훈제품	조제품	기타
1996 (A)	19,138 (100.0)	14,861 (77.7)	642 (3.4)	2,639 (13.8)	996 (5.2)
1997	19,456 (100.0)	14,967 (76.9)	514 (2.6)	2,887 (14.8)	1,089 (5.6)
1998	17,416 (100.0)	13,535 (77.7)	404 (2.3)	2,493 (14.3)	984 (5.6)
1999	17,395 (100.0)	13,669 (78.6)	411 (2.4)	2,401 (13.8)	914 (5.2)
2000 (B)	17,340 (100.0)	13,402 (77.3)	412 (2.4)	2,695 (15.5)	832 (4.8)
B/A (%)	90.6	90.2	64.2	102.1	83.5

자료 : 日本農林統計協會, 「水産白書 2001」, 2002.

4) 품목별 수출입 실태

일본은 경제발전애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국민건강 욕구증진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국내 어업생산에서 충당되지 못하는 중고급 어패류를 중심으로 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해 왔다.

<표 2-16>은 일본의 10대 수입수산물의 최근 11년간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상위 10개 품목이 일본 총 수산물 수입액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입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새우로, 전체 수입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참치류(다랭이·가다랭이류)가 11.9%, 연어·송어가 6.2%, 게 5.7%, 뱀장어조제품 4.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6>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 억엔, %

품 목	1989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증감률 '00/'99
새우	3,540	3,753	3,686	3,772	3,930	3,644	3,049	3,268	△0.7
다랭이·청새치	1,379	1,865	1,819	2,204	2,034	2,039	2,305	2,233	4.1
연어·송어	1,300	1,313	995	1,220	1,189	1,240	1,340	1,153	△1.0
게	671	1,229	1,278	1,238	1,089	957	1,049	1,067	3.9
대구	358	471	487	403	537	352	425	348	△0.2
문어	620	425	499	653	555	455	450	390	△3.8
오징어	624	570	470	572	541	521	491	465	△2.4
넙치·가자미	288	261	239	317	264	209	220	231	△1.8
청어알	230	168	173	264	172	144	411	412	5.0
연어·대구알	150	157	142	102	86	69	75	69	△6.3
뱀장어 조제품	539	872	863	1031	1152	847	777	879	4.2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 貿易レポート 2001」, 2002.

圖說, 「魚の生産から消費 -附表-, 成山堂書店, 2000.

4. 한·일 양국간 수산물 무역실태

1)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위치

일본은 세계 수산물 최대의 소비국가인 동시에 수입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나 일본 국민과의 수산물 기호도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본 수산물시장에 의존하는 수출구조를 지속해 왔다. <표 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수출금액 12억 7,400만달러의 72.6%인 약 9억 2,400만달러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국내 수산물 총 수입금액 16억 4,800만달러 중 중국(6억 3,400만달러), 미국(1억 5,900만달러), 러시아(1억 5,400만달러)에 이어 8.4%의 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로 4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표 2-18>에서와 같이 일본 전체 수산물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면, 일본은 수산물 총 수출금액 중 23.3%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에 20.0%, 이어서 우리나라에 13.1%인 1억 4,600만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표 2-17>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비율(2001년)

단위 : 천달러, %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액	비율	국가명	금액	비율
총계	1,273,619	100.0	총계	1,648,372	100.0
일본	924,373	72.6	중국	634,449	38.5
미국	82,210	6.5	미국	158,520	9.6
중국	55,709	4.4	러시아	153,726	9.3
스페인	41,503	3.3	일본	139,129	8.4
태국	32,943	2.6	베트남	101,486	6.2
대만	16,790	1.3	태국	83,288	5.1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표 2-18>

일본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비율(2001년)

단위 : 천달러, %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액	비율	국가명	금액	비율
총계	1,120,025	100.0	총계	14,236,078	100.0
홍콩	260,706	23.3	중국	2,327,904	16.4
미국	223,947	20.0	미국	1,439,779	10.1
한국	146,250	13.1	태국	1,075,391	7.6
중국	93,443	8.3	러시아	1,042,953	7.3
대만	59,173	5.3	한국	963,290	6.8
태국	58,623	2.6	인도네시아	962,208	6.8

자료 : 日本水産物輸入協會, *Statistics of Japanese Fishery Products Export 2001, 2002.*

그리고 수산물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총 수입금액의 16.4%인 23억 2,800만달러를 수입하여 가장 많으며, 그리고 미국(10.1%), 태국(7.6%), 러시아(7.3%)에 이어 우리나라로부터 9억 6,300만달러를 수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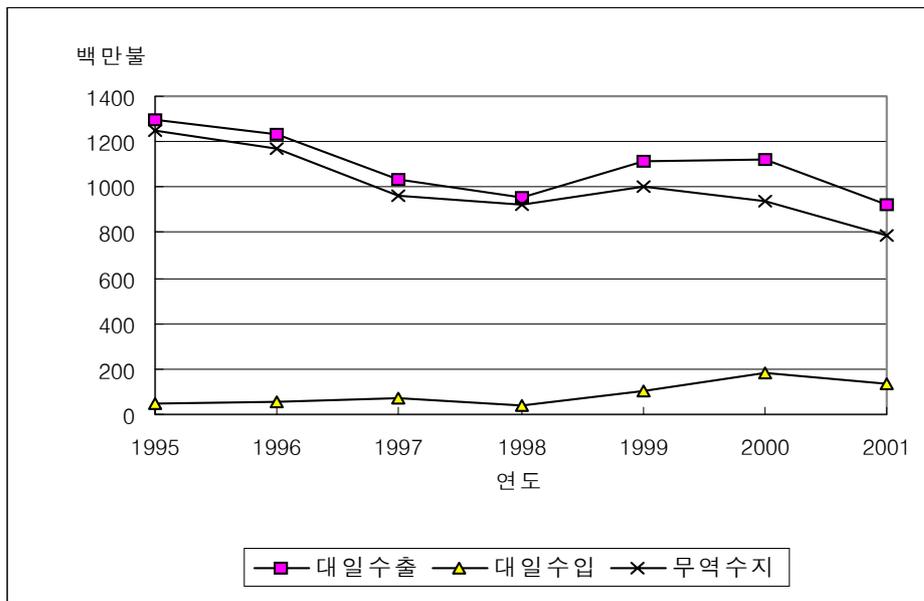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은 수산물 수출 1위인 동시에 수입 4위 국가이며, 일본에 있어서는 수출 3위, 수입 5위의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성은 양국의 수산물 수급 및 어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2>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입실적과 무역수지를 보면, 1995년 이후 수산물 수출은 1998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1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수산물 무역수지는 1995년 12억 4,800만달러의 흑자에서 2001년도에는 7억 8,500만달러의 흑자로 그 폭이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있다.¹⁹⁾

19) 일본 수산물 수입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그림 2-2>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입 변동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日本水産物輸入協會, 「1999年度 水産物輸入統計年報」, 2000.

1990년대 이전까지 한·일간의 수산물 무역은 한국의 수출, 일본의 수입이라는 일방통행적 교역 양상이었다. <표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일본시장 의존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70%를 상회하여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수산물 총 수출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시장 지향적 수출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은 연평균 16.3%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10년전인 1990년도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한·일간의 수산물 수출상황은 국내 총 수산물 수출 변동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총수출이 증가하면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이와 반대의 상황에서는 동일한 변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여건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수출변화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는 2001년 수산물 총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후술할 일본의 수산물 수출 공급기반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9>

한·일 수산물 무역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수출			수입			A/B (배)
	총수출	일본 수출(A)	비율	총수입	일본 수입(B)	비율	
1980	831	542	65.2	37	5	13.5	108.4
1985	950	681	71.6	83	17	20.4	40.1
1990	1,513	1,141	75.4	368	35	9.5	32.6
1995	1,721	1,281	74.4	843	46	5.5	27.8
2000	1,504	1,125	74.8	1,411	185	13.1	6.1
2001	1,274	924	72.5	1,648	139	8.4	9.2
연평균 증가율(%)	1.96	2.42		18.8	16.3		

자료 :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1.

2) 한·일간 주요품목별 수출입 실태

<표 2-20>은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입 상위 20개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수출측면에서는 수산물의 종류가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다양하고, 가공형태도 냉동, 신선·냉장, 활어, 건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수입수산물은 대부분이 어류 및 어류관련 조제품이며, 가공형태도 냉동품과 신선·냉장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소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출에 있어서 참치류(눈다랭이·황다랭이)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며, 굴 관련제품, 봉장어 관련제품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수산물은 명태, 갈치 등의 원어 수입과 어류 피레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간 수출입 수산물의 구성을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째, 수출품목 중 상위에 있는 눈다랭이, 황다랭이 등 참치류의 생산이 원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들 어종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참치원양어업의 구조적 문제점, 즉 어선의 노령화와 노동조건 악화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경비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봉장어와 피조개의 수출 역시 국내 자원의 고갈에 따른 원료조달 여건의

악화와 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전망이 어둡다. 요즈음 부족한 원료를 원자재 형태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다음 재차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량 있으나, 과연 이러한 형태의 수산물 교역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감소는 단순히 국내 연근해 자원의 제약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적 조건(지대, 노동, 자본, 유가 등), 국제적 자원 및 어장 이용문제가 연동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배경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2-20>

우리나라 대일 수산물 수출입 상위품목(2001년도)

단위 : 천달러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눈다랭이(냉동)	139,534	명태(신선·냉장)	28,368
2	황다랭이(냉동)	61,709	갈치(신선·냉장)	12,005
3	굴(굴치페이외 기타/산것, 신선·냉장)	52,096	돔(활어)	11,453
4	캐비아 대용물	48,278	기타 어류(냉동)	7,741
5	피조개(산것, 신선·냉장)	39,214	꽁치(학꽁치 포함(냉동))	5,811
6	넙치(활어)	39,144	기타 어류 피레트(냉동)	4,042
7	붕장어 피레트(신선·냉장)	35,082	참다랭이 피레트(냉동)	3,963
8	굴(냉동)	30,571	명란(냉동·피레트, 어육 제외)	3,945
9	기타 연체동물 (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30,402	어류의 유지, 분획물 (간유제외)	3,684
10	톳(건조)	30,023	떡장어(활어)	3,581
11	기타 어류 피레트(냉동)	26,659	농어(활어)	3,337
12	바지락(산것/신선·냉장)	26,318	명태(냉동)	3,265
13	붕장어(활어)	20,729	전복(산것, 신선, 냉장)	3,201
14	기타 조제·저장처리한 어류	19,907	참다랭이(냉동)	2,434
15	기타 계살(통조림, 훈제 외)	17,222	임연수어(냉동)	2,381
16	기타 어류(통조림 외 조제품)	16,300	멸치(건조)	2,239
17	기타 다랭이(냉동)	13,381	갈치(냉동)	2,150
18	붕장어 피레트(냉동)	12,718	기타 어류(신선, 냉장)	2,067
19	기타 어류(냉동)	11,513	문어(냉동)	1,711
20	명란(냉동)	7,815	기타 계(신선, 냉장)	1,698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3) 대일수출 주요어종별 수출입 실태

한·일간 어종별 수출입 실태 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입 20대 품목 중에서 어종별 분석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은 일본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시장 점유율과 수입시장 점유율, 경쟁국과의 가격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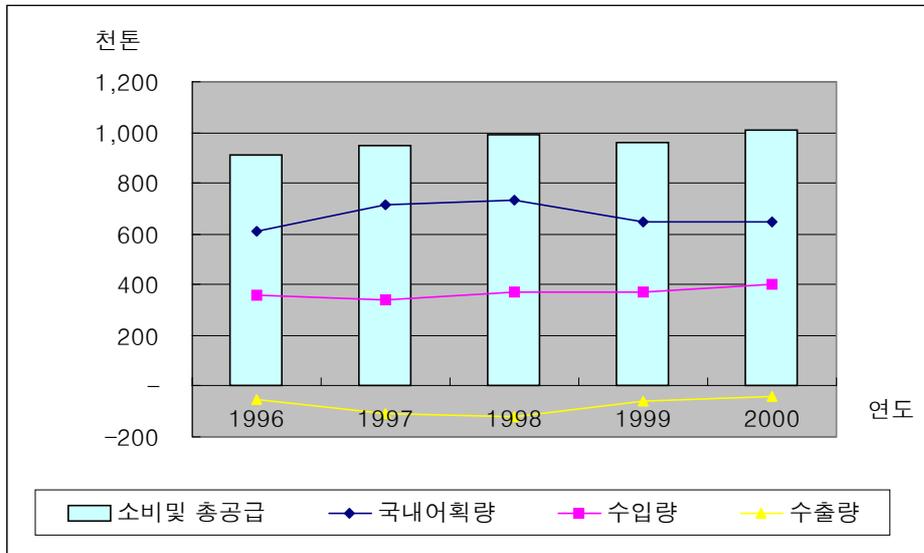
(1) 참치류

일본의 2000년 참치류(가다랭이 포함)의 수출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억 800만 달러(3만 7천톤)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1억 2천만달러(40만 7천톤)이다. 일본 국내 생산은 2000년 64만 9천톤으로서 국내 소비 97만 3천톤과 수출용 3만 7천톤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다랭이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수입증가 폭이 확대되는 한편, 국내 총공급량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3> 참조).

참치류의 일본 수입가격은 품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다랭이·가다랭이류가 전체적으로 1996년 이후 1998년까지 가격이 하락하다가 1999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전년 대비 29.9%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다.

<그림 2-3>

일본의 다랭이·가다랭이류 수급 추이



일본 참치류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은 전통적으로 오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참치 수출규모와 일본의 한국산 수입규모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다소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표 2-21>

일본 참치류 수입시장의 최근 동향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증감률		
					'99/'98	'00/'99	
황다 랭이	수입량(톤)		115,427	8,258	8,570	-92.8	3.8
	점유율 (%)	대만	33.2	34.0	31.1	2.6	-8.8
		인도네시아	14.7	12.9	9.3	-12.3	-27.5
		한국	17.8	14.0	24.7	-21.6	77.2
		싱가포르	2.4	4.7	5.8	100.3	21.6
	수입 가격 (\$/톤)	대만	3,120	3,744	3,037	20.0	-18.9
		인도네시아	5,075	6,684	7,279	31.7	8.9
		한국	2,813	4,135	2,466	47.0	-40.4
		싱가포르	5,740	6,023	5,307	4.9	-11.9
		평균	3,606	4,453	3,755	23.5	-15.7
눈다 랭이	수입량(톤)		148,671	132,916	134,734	-10.6	1.4
	점유율 (%)	대만	34.7	36.1	36.9	4.1	2.2
		한국	26.0	18.7	20.3	-28.1	8.5
		인도네시아	6.2	5.9	6.2	-4.5	5.5
		중국	0.5	1.0	5.0	114.1	408.3
		온두라스	7.7	7.1	4.6	-7.7	-36.1
	수입 가격 (\$/톤)	대만	4,752	7,213	6,324	51.8	-12.3
		한국	4,276	7,502	7,209	75.4	-3.9
		인도네시아	5,755	6,786	6,854	17.9	1.0
		중국	4,956	7,396	5,898	49.2	-20.3
온두라스		4,623	7,362	6,496	59.2	-11.8	
평균	4,853	7,293	6,650	50.3	-8.8		

자료 : 日本貿易振興會(JETRO), 「農林水産物の 貿易 2001」, 2002.

품목별로 보면, 일본은 2000년 날개다랭이를 1,968톤 수입하였으며 한국산이 44.1%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날개다랭이의 한국산 점유율은 1998년 55.8% 이래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한국산 날개다랭이 수입가격이 2,101달러/톤으로서 수입가격 평균인 2,918 달러/톤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2000년들어 한국산의 수입가격이 25.8% 상승하여 수입가격 평균의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어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점유율 하락이 심화되었다.

<표 2-21>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다랭이 중 황다랭이만이 2000년 수입 시장 점유율이 24.7%로 급격히 증가하고 그 밖의 참치류는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산 황다랭이는 1998년 일본 수입량 11만 5,427톤 중 17.8%를 차지하여 품목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품목내 2위로 올라섰다.

인도네시아산 황다랭이의 가격은 1999년 이래 급격히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한국산은 꾸준히 가격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산 황다랭이는 2000년 톤당 2,466달러로 급락하여 가격경쟁 우위로 인한 일본 수입시장 확대가 가능하였으나, 싱가포르와 대만산 황다랭이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눈다랭이 수입량은 1998년 14만 8,671톤에서 2000년 13만 4,734톤으로 감소하였다. 눈다랭이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36.9%를 점유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산이 20.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눈다랭이는 1999년과 2000년에 수입가격 평균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 반면, 값싼 중국산 눈다랭이가 일본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어 한국산 눈다랭이 생산의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붕장어

<표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붕장어 수출금액의 98.5%를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활 붕장어의 일본시장 수출의존도는 100%이며, 신선·냉장 붕장어, 신선·냉장 붕장어 피레트는 각각 99.6%, 99.9%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도 거의 90%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한·일간 수출입 붕장어 관련품목은 붕장어 활어, 붕장어 신선·냉장, 붕장어 피레트 신선·냉장, 붕장어피레트 냉동, 붕장어 냉동 등 5개 품목이다.

한편 이들 품목의 최근 3년 동안 한·일간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표 2-23>과

같다. 봉장어 수출은 신선·냉장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품목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출물량이 약 6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단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 금액은 78.3% 감소로 물량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2> 우리나라의 봉장어 품목별 국별 수출 비중(2001년도)

단위 : 톤, 천달러

품목별	수출총계		일본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9,846	74,336	9,507	73,200	-	-
활어	2,863	20,720	2,863	20,720	-	-
신선·냉장	455	3,294	454	3,236	1	13
피레트(신선·냉장)	4,226	35,084	4,226	35,082	0	2
피레트(냉동)	1,924	13,660	1,776	12,718	148	942
냉동	378	1,623	188	1,444	190	17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표 2-23> 우리나라의 한·일간 봉장어 품목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달러, 톤

품목별		수출			수입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합계	수량	14,119	11,352	9,507	94	42	118
	금액	93,485	90,718	73,209	394	160	380
	단가(\$/톤)	6,621	7,991	7,700	4,191	3,810	3,220
활어	수량	3,770	3,600	2,863	-	6	21
	금액	25,072	27,459	20,729	-	29	115
	단가(\$/톤)	6,650	7,628	7,240	-	4,833	5,476
신선·냉장	수량	111	97	454	3	-	17
	금액	872	796	3,236	5	-	15
	단가(\$/톤)	7,856	8,206	7,128	1,667	-	882

우리나라의 한·일간 봉장어 품목별 수출입 실적(계속)

품목별		수출			수입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피레트 (신선·냉장)	수량	6,354	5,214	4,226	-	-	-
	금액	44,867	44,969	35,082	-	-	-
	단가(\$/톤)	7,061	8,625	8,301	-	-	-
피레트 (냉동)	수량	3,482	2,105	1,776	91	11	46
	금액	20,464	15,397	12,718	387	62	213
	단가(\$/톤)	5,877	7,315	7,161	4,253	5,636	4,630
냉동	수량	402	336	188	-	25	34
	금액	2,210	2,097	1,444	-	69	37
	단가(\$/톤)	5,498	6,241	7,681	-	2,760	1,088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0~2002, 각 연호.

2001년을 기준으로 5개 품목중 무역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신선·냉장 봉장어 피레트로 약 3,500만달러이며, 다음으로 활 봉장어가 약 2,070만달러, 냉동 봉장어 피레트가 약 1,270만달러 순이다. 또한 봉장어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8,5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라 주조업어장인 일본 영해의 입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감과 동시에 입어조건이 까다롭게 됨으로써 향후 봉장어 통발어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3) 패류

패류는 일본 수산물 중 수출 주력상품에 해당하면서도 수입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연안의 자원상황이 악화되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항공운송과 냉동 등의 유통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양식의 주요품목인 가리비와 굴 등의 양식패류를 제외하면 수입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수입되는 패류는 일본 국내에서는 초밥, 회 및 진미가공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식생활 간편화 등 외식문화 발달과 일반 가정의 소비증가

로 패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산 굴과 피조개 등은 일본 수입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수출입 동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굴

한·일간 굴 관련품목은 굴치패(산 것, 신선·냉장), 굴(치패 이외 기타 산 것, 신선·냉장), 굴(냉동), 굴(건조), 굴(염장·염수장),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 6개 품목이다. 그러나 이들 품목 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굴(산 것, 신선·냉장), 굴(냉동)이 주도하고 있다.

<표 2-24>는 최근 3년간의 굴 관련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2001년도 현재 대일 굴 수출금액은 약 8,330만달러인 데 비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88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8,245만달러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냉동 굴을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4>

우리나라의 한·일간 굴 관련제품별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목 별		수 출			수 입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합 계	수량	11,086	14,319	14,142	47	11	276
	금액	66,894	85,351	83,327	78	72	881
	단가(\$/톤)	6,034	5,961	5,892	1,660	6,545	3,192
산것·신선 ·냉장 (치패 이외)	수량	5,796	6,650	6,987	-	6	8
	금액	40,761	46,906	52,086	-	22	60
	단가(\$/톤)	7,033	7,054	7,455	-	3,667	7,500
냉 동	수량	4,865	7,655	7,002	-	5	85
	금액	22,683	38,362	30,571	-	24	355
	단가(\$/톤)	4,662	5,011	4,366	-	4,800	4,176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0~2002, 각 연호.

그리고 2001년도 국내산 굴의 수출시장 구성비를 보면, 굴 산 것·신선·냉장 품은 99.8%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냉동 굴도 총수출금액의 81%를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미국(8.3%), 대만(2.7%)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표 2-25> 참조).

<표 2-25>

우리나라의 굴 관련제품별 일본 수출 비중(2001년도)

단위 : 톤, 천달러

품 목 별	수출총계		일 본		기 타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5,949 (100.0)	89,938 (100.0)	13,989 (87.7)	82,657 (91.9)	1,969 (12.3)	7,281 (8.1)
산것·신선·냉장 (치패 이외)	7,004 (100.0)	52,191 (100.0)	6,987 (99.8)	52,086 (99.8)	17 (0.2)	105 (0.2)
냉동	8,945 (100.0)	37,747 (100.0)	7,002 (78.3)	30,571 (81.0)	1,952 (21.7)	7,176 (19.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② 피조개

한·일간 피조개 관련 수출입품목은 피조개(활·신선·냉장)와 냉동 피조개 등 2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피조개(활·신선·냉장)이다. 최근 3년동안 피조개의 대일 수출물량은 약 22%가 감소하였으며, 금액 면에서도 약 15% 줄어들었다. 다행히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격차를 다소 완화시키고는 있으나 국내 공급기반의 약화로 인하여 당분간 수출의 회복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표 2-26> 참조).

2001년도 우리나라의 대 일본 피조개 수출액은 약 4,169만 8천달러인 데 비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3만 1천달러로 매우 미미하여 수출전액이 무역수지 흑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피조개 수출의 시장구성을 보면, 산것·신선·냉장품은 금액기준으로 99.1%를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냉동품에 있어서도 92.4%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표 2-27> 참조).

<표 2-26>

우리나라의 피조개 관련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목별		수출			수입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합 계	수량	6,188	6,114	4,863	59	82	1
	금액	49,326	49,946	41,698	157	374	31
	단가(\$/톤)	7,971	8,169	8,575	2,661	4,561	3,100
활·신선·냉장	수량	5,949	5,915	4,750	59	71	-
	금액	44,272	45,079	39,214	157	163	5
	단가(\$/톤)	7,442	7,621	8,256	2,661	2,296	-
냉 동	수량	239	199	113	-	11	1
	금액	5,054	4,867	2,484	-	211	26
	단가(\$/톤)	21,146	24,457	21,982	-	19,182	26,00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0~2002, 각 연호.

<표 2-27>

우리나라 피조개 관련제품별 국별 수출 비중(2001년도)

단위 : 톤, 천달러

품목별	수출총계		일본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산것·신선·냉장	4,959 (100.0)	39,542 (100.0)	4,750 (95.8)	39,214 (99.1)	207 (4.2)	328 (0.9)
냉동	171 (100.0)	2,689 (100.0)	113 (66.1)	2,484 (92.4)	58 (33.9)	205 (7.6)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4) 해조류

일본에서 해조류 중 톳은 건조품으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역은 염장품이 주로 유통되고 건조미역은 토산품이 많다. 일본의 해조류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2000년 1,734톤(2,648만달러)을 수출하고 5만 1,058톤(1억 2,838만달러)을 수입하고 있다. 그 중 중국산 미역 3만 556톤이 해조류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해조류 중 톳 수입량(6,088톤)의 대부분은 한국(5,294톤)에서 수입되고 있다. 미

역 수입시장도 대부분을 한국산이 점유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중국산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에는 중국산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1999년 일본 해조류 수입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1.8% 증가하였으나, 2000년 들어 17.4%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조류 평균 수입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조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역의 경우 1999년 22.3%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오히려 20.1% 감소하여 해조류 수입감소를 주도하였다. 그 중 중국산 시장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00년에는 76.3%를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미역의 수입가격이 중국산 대비 1.8배에 달하는 한국산 점유율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23.7%에 머물렀다. 최근 맛김과 기타 해조류의 수입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점은 이 품목의 수입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주목할 만하다(<표 2-28> 참조).

<표 2-28>

일본 해조류 수입시장의 최근 동향

단위 : 톤, 달러/톤

품목별	구분	1998	1999	2000	증감률(%)		
					'99/'98	'00/'99	
합계	수입량	50,752	61,814	51,058	21.8	-17.4	
	평균수입가격	2,382	2,404	2,514	0.9	4.6	
툰	수입량	7,234	7,460	6,088	3.1	-18.4	
	수입가격	6,377	6,229	5,428	-2.3	-12.9	
	한국산	수입가격	6,823	6,679	5,680	-2.1	-15.0
		점유율(%)	79.5	80.5	87.0	1.2	8.1
미역	수입량	40,954	50,096	40,035	22.3	-20.1	
	평균수입가격	1,601	1,585	1,669	-0.9	5.2	
	중국산	수입가격	1,272	1,321	1,428	3.9	8.1
		점유율(%)	69.7	74.2	76.3	6.6	2.8
	한국산	수입가격	2,358	2,348	2,444	-0.4	4.1
		점유율(%)	30.3	25.8	23.7	-14.9	-8.1
맛김	수입량	183	553	517	202.2	-6.5	
	수입가격	8,563	9,517	12,184	11.1	28.0	
기타	수입량	2,381	3,704	4,418	55.6	19.3	
	수입가격	3,216	4,717	5,033	46.7	6.7	

자료 : 일본수산물수입협회, 「수산물수입통계연보」, 1999~2001, 각 연호.

4) 일본산 수입 주요어종 수출입 실태

(1) 명태

한·일간 명태관련 수출입 제품은 명태(신선·냉장), 명태(냉동), 명태 피레트(냉동), 명태연육(냉동), 명태(훈제), 명태(북어)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중 명태 피레트(냉동), 명태(훈제), 명태(북어) 등의 한·일간 교역실적은 매우 미미하며, 신선·냉장명태와 냉동명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을 보면 1999년 대비 2000년에는 2.4배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냉동 명태가 일본에 일부 수출되고는 있으나 매우 미미한 실적으로 2001년도에 약 2,984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1년 일본에 수출한 명태의 금액은 44만 달러이었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3,207만 9천달러로, 명태 단일품목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3,163만 9천달러에 이르고 있다(<표 2-29> 참조).

<표 2-29> 우리나라의 명태 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목 별		수 출			수 입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무역총계	중량	1,088	876	113	12,147	26,777	19,956
	금액	2,785	2,360	440	13,852	33,136	32,079
명태 (신선·냉장)	중량	0	0	0	5,640	11,814	15,147
	금액	0	0	0	9,684	23,755	28,368
명태(냉동)	중량	270	866	88	6,279	14,040	4,556
	금액	566	2,289	282	3,749	8,122	3,266
명태연육 (냉동)	중량	811	0	0	228	919	217
	금액	2,180	0	0	419	1,254	30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0~2002, 각 연호.

다음으로 품목별 국별 명태수입에 있어서 신선·냉장품은 거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냉동명태의 경우는 러시아가 78.4%(2,170만 8천달러), 그 다음으로는 일본 11.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냉동 명태연육은 96.8%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

었다.

이를 정리하면, 신선·냉장 명태는 일본, 냉동 명태는 러시아, 냉동 명태연육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존자원의 유리성에 의해 명태 어장에 인접한 연안국들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선·냉장제품의 일본산 명태수입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의 대응과 지리적 인접, 동일해역 명태 어종, 운송시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30> 참조).

<표 2-30>

우리나라의 명태 제품별 국별 수입 비중(2001년도)

단위 : 천달러

품목별	전체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기타
신선·냉장	28,599 (100%)	28,368 (99.2)	5 (0.0)	-	226 (1.0)	-
냉동	27,684 (100%)	3,266 (11.8)	21,708 (78.4)	2,549 (9.2)	161 (0.6)	-
연육(냉동)	39,961 (100%)	217 (0.5)	598 (1.7)	38,677 (96.8)	50 (0.1)	419 (1.0)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2) 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치 관련 교역제품은 갈치(신선·냉장), 갈치(냉동), 갈치(염장·염수장) 등 3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 중 염장·염수장품은 최근 교역량이 매우 미미하여 제외하였다.

최근 3년 평균, 일본에 수출한 갈치의 수출금액은 169만 3천달러였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299만 6천달러로, 갈치 단일품목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2,130만 3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신선·냉장 갈치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냉동 갈치의 경우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의 수출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다소 상회하고 있다(<표 2-31> 참조).

<표 2-31>

우리나라의 갈치 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목 명		수 출			수 입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무역총계	중량	1,713	1,274	52	8,481	7,707	4,122
	금액	3,020	1,970	90	25,798	29,033	14,156
갈치 (신선,냉장)	중량	0	1	0	6,955	6,568	3,353
	금액	1	10	0	22,402	26,105	12,005
갈치(냉동)	중량	1,712	1,271	52	1,526	1,139	769
	금액	3,011	1,949	90	3,396	2,928	2,151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0~2002, 각 연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총 수입금액기준으로 신선·냉장 갈치는 96.3%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냉동 갈치의 수입은 중국 68.1% (4,533만 9천달러), 인도 11.2%(747만달러), 인도네시아 9.1% (605만 1천달러) 등이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3.2%(215만 1천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선·냉장 갈치의 경우는 일본에서, 냉동갈치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2-32> 참조).

<표 2-32>

우리나라의 갈치 제품별 국별 수입 비중(2001년도)

단위 : 천달러, %

품목	전체	일본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기타
신선·냉장	12,461 (100)	12,005 (96.3)	455 (3.7)	-	-	-
냉동	66,589 (100)	2,151 (3.2)	45,339 (68.1)	7,470 (11.2)	6,051 (9.1)	5,578 (8.4)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3) 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역되는 돔 관련제품은 돔(활어), 돔(신선·냉장), 옥돔(냉동), 기타돔(냉동)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돔(활어)으로서 수입 순위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의 고급

화 추세에 따른 생선회의 소비확대로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해 왔다.

최근 3년간 평균 일본에 수출한 돔류의 수출액은 매년 약 5백만달러를 웃돌고 있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4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3년 평균 약 9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표 2-33> 참조).

<표 2-33> 우리나라의 돔 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목 명		수 출			수 입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무역총계	중량	1,774	2,505	2,221	1,618	3,036	2,020
	금액	3,674	5,828	5,505	9,790	19,636	12,419
돔(활어)	중량	1	103	125	1,459	2,807	1,882
	금액	14	1,070	940	9,006	18,362	11,453
돔 (신선·냉장)	중량	147	33	85	709	1,057	137
	금액	57	4	28	709	1,057	957
옥돔(냉동)	중량	1	0	4	11	30	0
	금액	2	0	12	45	135	0
기타돔	중량	1,715	2,398	2,064	35	47	1
	금액	3,511	4,725	4,468	30	82	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0~2002, 각 연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돔 관련제품 국가별 수입비중을 보면, 돔(활어)의 경우는 일본에서 77%(1만 1,453톤)를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23%(3,402톤)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돔(신선·냉장)은 일본 40.7%(957톤), 뉴질랜드 38.1%(897톤)로 이들 2개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표 2-34> 참조).

<표 2-34> 우리나라의 돔 제품별 국별 수입 비중(2001년도)

단위 : 톤, 천달러

품목	전체	일본	중국	뉴질랜드	기타
돔(활어)	14,855 (100)	11,453 (77)	3,402 (23)	-	-
돔 (신선·냉장)	2,354 (100)	957 (40.7)	-	897 (38.1)	500 (21.2)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4) 콩치

한·일 양국간에 교역되고 있는 콩치 관련제품은 콩치(신선·냉장), 콩치(냉동), 콩치(밀폐용기) 등 3개 품목이다. 이들 중 양국간에 주로 많은 양을 교역하고 있는 품목은 콩치(신선·냉장), 콩치(냉동)품이다.

최근 3년 동안의 교역상황을 보면, 2000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2001년에는 완전한 역전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른 일본측 200해리 수역내의 산리쿠어장의 조업제한으로 입어가 제한되면서 국내 수급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일본산 콩치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즉 1999년과 2000년의 한·일간 콩치교역을 통한 무역수지는 평균 약 480만달러의 흑자였으나 2001년도에는 약 540만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표 2-35> 참조).

한편 콩치제품별 국별 수입비중은 콩치(신선·냉장)의 경우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콩치(냉동)의 경우는 일본에서 49.6%(581만 1천달러), 다음으로 대만 43.7%(512만 4천달러), 중국 4.8%, 러시아 1.3% 순으로 수입하고 있다.

<표 2-35>

우리나라의 콩치 제품별 일본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목 명		수 출			수 입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무역총계	중량	1,104	1,895	544	24	29	8,500
	금액	4,738	4,887	1,576	28	19	6,971
콩치* (신선·냉장)	중량	471	229	159	1	0	706
	금액	3,161	1,483	803	1	0	1,157
콩치(냉동)	중량	633	1,666	381	23	29	7,794
	금액	1,576	3,404	759	27	19	5,811

주 : *는 학콩치 포함.

자료 :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1.

<표 2-36>

우리나라의 콩치 제품별 국별 수입 비중(2001년도)

단위 : 천달러, %

품목	전체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신선·냉장	1156 (100)	1,157 (100)	-	-	-	-
냉동	11,715 (100)	5,811 (49.6)	5,124 (43.7)	567 (4.8)	154 (1.3)	59 (0.5)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5. 실태분석 종합

이 장에서는 수산물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초창기 한국 경제에 있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산물 수출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수산물 수출의 성장발전은 1988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교역실태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수산물 교역 추이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 수산물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원 보유국가로부터 수산물 소비국가로의 수산물의 국제적인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수산물 수출이 1976년 이래 평균 14.5%, 수산물 수입은 평균 20.3% 상승하여 주요 수산물 수출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세계 수산물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 의하여 주도되며, 특히 세계 수산물시장은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라 관할해역이 확대된 캐나다, 베트남, 페루 등이 새로운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실태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로의 전환은 단순히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국내 수출 공급기반의 약화로 인한 수출의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수산물 무역의 흐름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수산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제품형태별 구성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산물 무역환경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수산물의 상품구성은 모두 냉동품과 신선·냉장품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내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일본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시장의 수입여건 변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자율적인 생산조정이 어렵고, 국내 생산자의 가격교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가로부터의 수산물 국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일본산 수산물은 가격경쟁에서의 비교열위로 인하여 상당히 제한적인 물량이 수입되었으나,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품별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봉장어와 삼치를 중심으로 일본시장에 수출되어 온 신선·냉장품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물량보다는 금액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 수출가격 상승요인보다는 오히려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랭이(일명 참치)를 중심으로 한 냉동 어류는 앞의 신선·냉장 수산물과는 반대로 수출물량은 감소하였으나 가격은 포함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과거부터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가공품 수출의 중심이 되었던 피레트·어육의 수출규모는 원료부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넷째, 건조·염장·훈제의 경우에도 원료부족으로 현저한 감소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연체동물은 수출 물량면에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돔, 농어 등의 활어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신선·냉장 역시 앞의 활어와 마찬가지로 리드타임(lead time)의 단축이 상품 가치의 보전과 직결되고 있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냉동어류의 수입은 대부분 EEZ체제의 확산으로, 상실된 어장에서의 어획을 대체하는 성격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북양어장의 상실로 과거 북양 저서어 종에 속했던 대구, 명태 그리고 부산물인 명란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피레트·연육 수입의 경우도 앞의 냉동어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200해리 선포로 인한 어장상실에 따라 명태, 가자미, 대구류의 연육과 피레트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다섯째, 건조·염장·훈제는 명태 건포류, 건멸치 등 대중소비 지향적 수산가공품과 연어훈제 등 고급소비 지향성 수산가공품으로 양분되어 있다.

제 3 장 한·일 수산물 무역구조 변동요인 분석

1. 수산업의 구조변화와 무역

전통적 1차 산업으로서 내수의존형에 머무르던 수산업이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였다. 즉 개방경제 하에서는 수산물의 국내소비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수출 등 수요요인이 확대되고, 기존의 국내생산과 해외로부터의 수입 등 공급요인의 불확실성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이 같은 수급 메커니즘의 구조변화에는 거시적으로는 자국과 타국의 국민소득 수준과 인구, 국제적인 통상환경 등과 같은 외생변수도 영향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산업의 구조변화를 우선 개방경제 하의 공급측면의 변화요인들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 수산업의 산업구조는 기본적으로 국내생산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어획노력량과 연근해에 분포하는 어업자원 부존량 등의 영향을 받고,²⁰⁾ 아울러 자국의 국민소득 수준과 인구규모 등도 국내 수산업의 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인구의 규모는 국내시장의 규모와 비례하고 시장규모는 규모의 경제 달성에 영향을 주어 단위당 생산비용을 결정하므로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수산물의 규모가 수산물 공급량을 결정하여 결국 국내 수산업의 구조변화를 야기시킨다. 국내 공급량이 감소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입이 증가하거나, 혹은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열세일 경우에는 수입수산물이 국내시장에 넘쳐흐르는 사태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생산물은 팔리지 않는 재고가 쌓여 구조조정 등 구조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 때 수산물의 수입은 국내시장의 상황과 자국민 소득수준, 그리고 해외 수출국과 우리나라 수산물간의 비교우위 등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무역발생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 개방경제 하의 수요측면에서는 수산물 수급구조가 국내수요와 해외

20) 예컨대 $X_S = X(F, R)$ 와 같은 국내생산함수를 상정할 수 있다.

수요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급 균형 메커니즘을 경유하여 국내산업의 생산기반에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중 국내수요는 자국민의 인구 수와 국민소득 수준 등의 영향을 받아 시장규모와 수요량이 결정되고, 해외수요에 해당하는 수출수요는 자국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수준과 외국의 국민소득 수준과 같은 시장수요 결정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Chenery²¹⁾는 이처럼 개방경제 하에서 무역구조를 결정하는 수출입 등을 포함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매개로 하여 국내 산업의 구조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 수산물이 가격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수요와 공급을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으로 다시 분류하면, 생산, 국내소비, 무역 등의 3가지 분야가 상호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수산업의 구조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런데 이들 세 가지의 범주들은 자국 국민경제의 성장과 수산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나라마다 특색 있는 경로를 통해 수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각 나라마다 수산업의 초기조건, 수산자원 부존량 및 정부정책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수산물의 국내 총수요 중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율로 표시되는 자급률 변수도 국내 수산업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변수 혹은 정책의 목표나 현황지표 등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²³⁾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산업에 있어서 수산물의 수급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생산구조 및 소비패턴의 변화실태로부터 한·일간의 무역구조 변동요인을 도출하도록 한다.

21) Chenery. H. B.,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ER* 50(Sep.), 1960, pp.624~654 참조.

22) 즉 $\Delta X = [1 - uA]^{-1} [u\Delta F + \Delta E + \Delta u(F + W) + u\Delta AX]$ 와 같이 쓸 수 있음. 단, F = 최종소비, E = 수출, W = 중간수요, A = 기술투입계수이다. 이에 관해서는 홍현표의 "국제무역과 산업구조", 「국제무역과 한국경제」, 1992, pp. 255~259, 참조.

23) 즉 국내 생산량은 국내총수요와 수출에서 수입량을 차감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수급 균형을 이루고, 그 중에서 자급률 u 는 $u = \frac{D - M}{D_F + D_W}$ 로 쓸 수 있을 것임(단, D_F = 국내수산물 최종수요, D_W = 국내수산물 중간수요).

2. 한·일 수산물 수급실태

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실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요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수산물 생산은 자연조건의 변화, 즉 해양여건에 따른 변동과 어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생산량의 추정과 계획생산이 곤란하다. 이와 같은 생산의 불확실성과 계절성으로 인하여 수산물 수급과 가격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표 3-1>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요 및 공급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물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1970년대는 원양어업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을 시도한 시기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제한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일부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세계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수산물시장도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수산물시장의 개방예시가 종료된 1997년 이후에는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장의 축소와 연근해어업의 자원량 감소 및 원양어장의 상실 등의 여파로 수산물 생산도 감소함에 따라 수산물 수급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선 수산물 수요에 있어서 국내 소비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현재 326만톤으로 1975년도 156만 2천톤의 약 2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생산은 연근해 어업의 과도한 어획에 따른 어업자원의 감소, 200해리 경제수역체제의 정착에 따른 자원 보유국가의 입어조건 강화, 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인한 원양어장의 축소, 연안양식어장의 환경악화에 기인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1980년대 이후 정체상태를 지속하다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수산물 수요증대와 국내공급의 감소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산물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수출용 원자재와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수산물을 수입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급어종을 중심으로 절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1인 1년당 수산식품 공급량도 1995년도 45.1kg을 정점으로 2000년에는 35.6kg으로 감소하였다.<표 3-1> 참조)

이상에서와 같이 수산물에 대한 수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공급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의 감소로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수산물의 자급수준도 2000년부터 100%를 밑돌게 되었다.

<표 3-1>

국내 수산물 수급 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연 도							연평균 증가율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수요	국내 소비	1,562	1,746	2,318	2,583	3,150	2,668	3,260	2.8
	수출	573	696	867	1,058	1,170	1,338	1,080	2.4
	이월	0	77	102	290	371	510	641	
	수출/총수요(%)	26.8	27.6	23.6	26.9	24.9	29.6	21.7	
계		2,135	2,519	3,287	3,931	4,691	4,516	4,981	3.2
공급	국내 생산	2,135	2,410	3,103	3,275	3,348	2,514	2,665	0.8
	수입	0	41	91	380	948	1,420	1,806	18.7
	재고	0	68	93	276	395	582	510	
	수입/총공급(%)	0	1.62	2.76	9.7	20.2	31.4	36.3	
1인1년당 공급량(kg)		29.9	27.0	37.2	38.2	45.1	35.6		
자급률(%)		136.0	132.7	129.6	121.7	104.0	93.9	81.7	

2) 일본의 수산물 수급실태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수산물 수요의 특징은 한마디로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수입의 급증, 200해리 시대의 도래 및 일본 국내어업의 재편성에 따른 공급부문의 변화와 외식 확대, 조리가공식품 수요의 증가,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 진행, 냉동보관시설 투자 증대 등 수요부문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참치, 연어, 새우 등이 대량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수산물 수요의 장기적인 경향은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1980년대 이전에는 육류나 수산식품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적었다. 수산물 소비증가에 부응하는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가격상승이 만성화되는 시기였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소득수준이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수산물 수요도 증가했다. 특히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가 수산물 소비형태에 반영되면서 수산물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수산물 시장을 둘러싼 변화의 특징을 <표 3-2>을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산물 총공급량은 1982년 1,509만 9천톤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77% 수준인 1,161만 9천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총수요량 역시 동 기간에 76%로 감소하여 공급량과 수요량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총공급량의 구성내용을 보면 국내생산 공급이 연평균 4.1%씩 감소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입수산물로 충당함으로써 수산물 수입은 1978년 대비 2000년도에 약 4배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수출수요는 1978년 104만 6천톤에서 2000년도에는 26만 4천톤으로, 약 1/4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은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52.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일본의 수산물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0년에는 50% 선을 넘어섰다.

<표 3-2> 일본의 수산물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1978	1982	1985	1995	1999	2000* (보도치)	연평균 증감률
총공급량	11,665	15,099	13,721	13,523	11,681	11,619	△ 0.5
국내 생산	10,186	11,800	11,464	6,768	5,949	5,736	△ 4.1
식 용	7,368	7,183	7,268	5,255	4,612	4,527	△ 1.9
비식용	2,818	4,617	4,196	1,531	1,337	1,209	△ 9.1
수 입	1,479	3,299	2,257	6,755	5,731	5,883	2.6
식 용	1,082	2,362	1,880	3,872	4,061	4,249	3.2
비식용	392	937	337	2,883	1,670	1,634	1.2
총수요량	11,741	14,651	13,602	12,189	10,903	11,121	△ 1.6
국내 소비	10,695	13,068	12,263	11,906	10,659	10,857	△ 1.2
식 용	7,742	8,765	8,416	8,921	8,211	8,514	0.1
비식용	2,953	4,303	3,847	2,985	2,348	2,343	△ 5.1
수 출	1,046	1,583	1,357	283	244	264	△ 9.2
식 용	740	506	601	263	238	253	△ 6.3
비식용	306	1,079	756	20	6	11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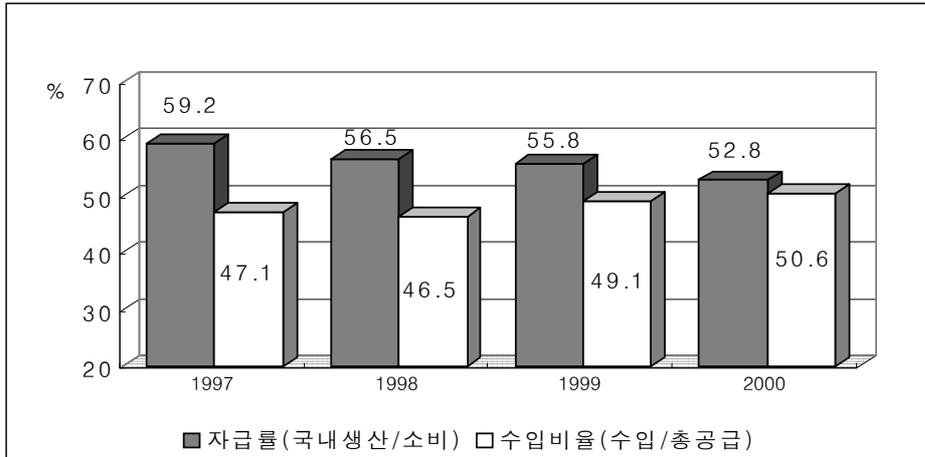
주 : 1) 수치는 원어로 환산한 것이며, 고래류와 해조류는 포함하지 않음.

2) 식용이라는 것은 어개류로부터 비식용(사이료)을 제외한 것임.

3) *는 2000년도 일본수산물 수급에 관한 보도치임.

자료 : 日本 農林統計協會, 「水産白書 2001」, 2002.

<그림 3-1> 일본 수산물의 자급률 추이와 수입 의존도



3. 수산물 생산구조의 변화

1) 신어업질서로 인한 수산물 생산과 무역변화

신어업질서는 자국에서 생산한 어획물을 국가간 무역형태라는 시장기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용 및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질서는 EEZ체제의 성립으로 연안국이 어업자원의 배타적 개발·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종전의 근해어업 중심이었던 연안국의 경우 어장축소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와 EEZ 어업에 따른 비용 및 불확실성의 증가 등 그 영향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 근해어장이 점차 사라지고 어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또 연안주의 어업관리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외부효과는 국내 어획물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EZ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은 연안국의 국내 어업관리체제에 준하여 국내외 어업을 관리하고 규제하므로 어업국의 어선, 어망 등을 포함한 조업조건이 연안국의 어업관리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타국과의 어업협정이나 합의에 의해서 연안국의 어업관리를 달리 적용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어업관리체제에 의해서 모든 국내외 어업활동이 규제되고 관리된다. 따라서 EEZ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 연안국의 결정에 따라 소규모 어업의 형태로 입어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조업이나 항해의 안전에 위험부담이 커진다.

이와 같이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어획물의 국내공급 부족은 자연히 국제 시장을 통하여 조달되고 결국 새로운 수산물 무역환경이 조성된다. 어업의 생산구조가 종전의 대규모 근해어업과 소규모 연안어업에서 연근해의 동일한 생산구조를 지닌 EEZ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새로이 구축되고, 이에 수반하여 새로운 EEZ체제의 수산물 무역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즉 EEZ체제 하의 수산물 무역은 종전의 개방적 공급형태에서 폐쇄적 공급형태로 전환되어 비교생산우위에 입각한 고전적 무역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EEZ체제 하에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자원·이용의 결과로서 수산물 무역환경이 형성된다. 따라서 EEZ체제 하의 수산물 무역은 기본적으로 어업의 지속적 개발·이용이라는 어업관리의 효율적 접근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면 무역의 확대에 의한 어업세력과 소비의 증가 때문에 과잉 어획이 불가피하고 결국 자원고갈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어업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산업기반마저 붕괴되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과 중국도 EEZ 어업협정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3국은 어업구조의 재편을 통한 지역어업의 발전과 수산협력 및 무역의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전에 불명확한 어장이용의 경계가 EEZ를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수산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규제도 연안국 위주로 한층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 어업협정이나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요 근해어장이 축소되었다. 근해어업의 규모축소와 어획량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는 수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EZ 어업관리체계가 정착되면서 인접국가간 어장의 배타적 이용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어업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어획량의 안정적 확보는 점차 어려운 형국으로 변할 것이다. 비록 상호입어의 어업형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연안국의 제도적 제한이 강화되어 어획량의 감축이나 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생산규모의 축소로 귀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구조의 변화 속에서 종전의 시장공급 규모를 유지하려면 결국 어획량의 감소에 상응하는 수산물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는 곧 제3국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무역의 확대에 이어져 새로운 수산물 무역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어장의 축소와 어장의 배타적 이용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별로 특수한 어종에 대한 특화가 보다 강화되어 수산물의 무역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획노력량의 자발적인 규제가 불가능한 어업관리체제를 지닌 국가에서는 수입자유화와 같은 무역여건의 변화가 어획노력량과 어획량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중국의 예를 보면, 최근 중국 어업의 어획노력량은 양식업을 포함하여 급

격히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여 어획량도 증가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출가격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동중국해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어로장이다. 동 해역에서의 조기어업을 보면 한·중간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어획량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증가한 어획량을 국내 가격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한다. 한편 중국은 자국 어획물의 수출에 상응하는 양을 개방정책을 통해 수입할 수도 있다. 결국 양국 모두 수출입이 증가하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구조 변화

(1) 어업부문별 생산실태

<표 3-3>은 최근 20년간의 우리나라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물 총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업부문별 생산량에 있어서도 전 부문에서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해면어업은 연근해어업의 생산성 저하와 최근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조업어장이 좁아진 결과이며, 원양어업은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원양어장의 상실과 국제적인 어족자원의 보호조치에 따른 일부어업의 규제, 그리고 연안자원국의 입어조건의 강화 등에 의하여 조업이 위축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로어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략적 정책추진에 의하여 성장해 온 양식어업에 있어서도 어장의 환경악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하락으로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우리나라의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 천M/T

연도	총계	원양어업	일반해면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1980	2,410	458	1,372	541	39
1985	3,102	767	1,494	788	53
1990(A)	3,274	925	1,524	773	34
1995	3,348	897	1,425	997	29
2000	2,514	651	1,189	653	21
2001(B)	2,665	739	1,252	656	18
B/A(%)	69.2	79.9	82.2	84.9	52.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2.

(2) 수산물류별 생산구조 변화

한편 수산물 종류별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총 수산물 생산의 약 60%를 담당해 왔으나 2001년도에는 약 55%로 그 비중이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패류·연체동물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갑각류는 1995년에 120만톤으로 1980년 대비 약 2배로 증산되었으나 2001년에는 1995년 대비 약 62%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우의 대량 폐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조류에 있어서도 1995년 67만 1천톤이던 것이 2001년에는 38만 8천톤으로 약 42%가 감소하였다(<표 3-4> 참조).

<표 3-4> 우리나라의 수산물 종류별 생산실태 단위 : 천M/T

연도	계	어류	갑각류	패류·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1980	2,410	1,498	53	524	317	18
1985	3,103	1,838	79	708	444	34
1990	3,275	1,888	119	784	442	42
1995(A)	3,348	1,695	120	827	671	35
2000	2,514	1,280	83	728	388	35
2001(B)	2,665	1,467	74	697	388	39
B/A(%)	79.6	86.5	61.7	84.3	57.8	111.4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2.

다음으로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 어종의 생산추이를 보면, 국내생산의 어종별 구성비가 최근 20년 동안 판이하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는 쥐치, 멸치, 갈치, 명태, 고등어 등의 순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멸치,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명태, 정어리, 쥐치 등의 어획은 연근해에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조기도 생산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그 대신 오징어가 대량으로 어획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주요어업구역인 동해뿐만 아니라 근년에는 서해와 남해에서도 대량으로 어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5>

연근해어업 어종별 생산량

단위 : 천M/T, %

연도	계	명태	갈치	조기	고등어	멸치	정어리	가자미	쥐치	오징어	기타
1980	1,440	96	120	49	63	170	38	19	229	48	608
1985	1,494	85	128	27	69	144	108	19	257	43	614
1990	1,542	27	104	43	97	168	133	13	230	75	652
1995	1,425	9	95	45	201	231	14	14	2	201	613
2000	1,189	1	81	27	146	201	2	15	3	226	487
2001	1,252	1	80	11	204	274	1	15	2	226	438
연평균 증가율	△0.6	△18.7	△1.8	△6.6	5.5	2.2	△15.2	△1.1	△19.4	7.3	△1.5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2.

한편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패류와 해조류의 생산량 모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패류는 1985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해조류는 1995년 64만 9천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약 58% 수준인 37만 4천톤으로 감소하였다. 해조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미역양식 생산량 감소인데, 이는 해조류의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의 한계로 양식경영체가 타 품목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류의 생산감소는 홍합, 피조개 등의 양식어장이 장기간의 연작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6>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추이

단위 : 천M/T, %

연도	계	패 류				해 조 류				기타
		굴	홍합	기타	김	미역	기타			
1980	541	283	173	61	49	258	56	196	6	-
1985	788	369	243	48	78	397	110	256	31	22
1990	773	326	219	10	97	412	98	269	45	35
1995	996	312	191	75	46	649	193	387	69	35
2000	653	222	177	12	33	375	131	212	32	56
2001	656	217	174	14	29	374	168	175	31	65
연평균 증가율	0.9	1.2	1.0	6.5	2.4	1.7	5.1	0.5	7.8	6.6

주 : 1983년부터 조사된 기타는 우렁쟁이, 미더덕, 해삼, 성게 등임.

(3) 생산전망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 생산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양식어업 육성사업 등 기존의 어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중장기 수산물 생산량을 추정하였다²⁴⁾(<표 3-7> 참조).

추정결과 2010년도 수산물 총생산량은 244만 8천톤으로 현재보다 1.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어로어업부문에서는 현재보다 약 3% 감소된 176만 2천톤으로 예측되며, 양식어업부문은 68만 5천톤으로 현재보다 3.3%가 증가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물 종류별로 보면, 어류의 생산량은 122만 7천톤으로 2001년에 비해 약 6.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해조류 역시 동 기간 약 23% 감소된 27만 9천톤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패류는 동 기간에 17%가 증가하여 94만 3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7>

한국의 수산물 생산전망

단위 : 천톤, %

구	분	2001(A)	2010(B)	B/A(%)
전체	총계	2,481	2,448	△ 0.1
	어류	1,313	1,227	△ 0.8
	패류	806	943	1.8
	해조류	361	279	△ 2.8
어로	소계	1,817	1,762	△ 0.3
	어류	1,263	1,155	△ 1.0
	패류	541	595	1.1
	해조류	13	13	0.0
양식	소계	663	685	0.4
	어류	50	72	4.8
	패류	265	348	3.5
	해조류	348	266	△ 2.6

24) 수산부문 중장기 전망은 ‘농어촌특별대책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KDI의 이진면 박사가 AREMOS 모형에 근거하여 수산부문 불변부가가치, 어업소득, 생산, 소비, 수출입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함.

3) 일본의 수산물 생산구조 변화

(1) 어업부문별 생산실태

일본의 수산물 생산기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1980년 약 1,100만톤을 상회하던 수산물 생산량이 그 이후 연평균 2.7%씩 감소하여 2001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600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어업부문별 생산추이를 보면, 1980년도 일본 수산물 총생산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던 해면어로어업 생산량이 2001년도에는 총 생산의 78% 수준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산물 생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해면양식어업은 최근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동기간 연평균 약 1%씩의 증가로 1980년도 8.9%에서 2001년도에는 수산물 총생산에 대한 비율이 20%로 상승하였다. 한편 내수면어업에 있어서도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8>

일본의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천톤

연도	총생산량	해 면			내 수 면			포경어업 (두수)
		소계	어업	양식업	소계	어업	양식업	
1980	11,122	10,901	9,909	992	221	128	94	5,191
1985	12,171	11,954	10,866	1,088	206	110	96	3,087
1990	11,052	10,843	9,570	1,273	209	112	97	91
1995	7,489	7,322	6,007	1,315	167	92	75	174
2000	6,384	6,252	5,022	1,231	132	71	61	188
2001	6,093	5,976	4,730	1,246	117	62	55	166
연평균 증가율(%)	△2.7	△2.7	△3.3	1.0	△2.8	△3.2	△2.4	△14.5

자료 : 日本 農林水産省, 「統計情報」, 2002.

(2) 수산물류별 생산구조 변화

<표 3-9>

일본의 수산물류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톤

연도	총생산량	어류	패류	기타 수산물	해조류
1980	10,901 (100.0)	8,582 (77.2)	640 (5.8)	983 (8.8)	696 (6.3)
1985	12,171 (100.0)	9,669 (79.4)	715 (5.9)	898 (8.1)	707 (5.8)
1990	11,052 (100.0)	8,312 (75.2)	869 (11.6)	898 (8.1)	773 (7.0)
1995	7,489 (100.0)	4,849 (64.7)	869 (11.6)	885 (11.8)	720 (9.6)
1999	6,555 (100.0)	4,202 (64.7)	898 (13.8)	778 (12.0)	677 (10.4)
연평균 증가율(%)	△2.7	△3.5	1.3	△1.2	△0.1

자료 : 水産社, 「日本 水産年監 2001」, 2001.
 日本 農林水産省, <統計情報>, 2002.

<표 3-9>에서와 같이 1980년도에 수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는 어류였으며, 다음으로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패류의 순서였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어류, 패류,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의 순서로 순위가 확연히 바뀌었다. 그리고 패류만이 절대량이 증가하였을 뿐 다른 종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류는 1980년 이후 연평균 1.3%씩 증가한 반면, 어류는 동기간 연평균 3.5%씩 감소하였으며, 해조류는 다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동일 종류 내에서도 구성비가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어류는 1980년 77.2%에서 1999년에 64.7%로 12.5%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패류,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의 비중은 각각 2.3%포인트, 3.2%포인트, 3.9%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어종의 일본내 연도별 생산량을 보면(<표 3-10> 참조),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어종은 붕장어로 연평균 8.8%씩 감소해 왔으며, 피조개 역시 연평균 7.6%씩 감소하였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1위 품목인 명태도 매년 6.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대일 수출 1위 품목인 눈다랭이와 황다랭이는 연평균 1.1%, 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굴의 경우도 연평균 1.2%씩 감소하고 있다.

<표 3-10>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위수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어 종	1980	1985	1990	1995	1999	연평균 증가율(%)
눈다랭이	123,168	148,940	122,148	116,232	98,600	△1.1
황다랭이	119,001	134,395	98,257	111,951	96,684	△1.0
굴(양식)	261,323	251,247	248,793	227,319	205,345	△1.2
피조개	-	-	-	15,426	10,413	△7.6
넙치(어로)	7,113	8,184	5,517	7,558	7,215	0.1
붕장어	-	-	-	12,978	8,168	△8.8
바지락	127,366	133,232	71,199	49,466	43,088	△5.3
명태	1,552,421	1,532,311	871,408	338,507	382,385	△6.8

자료 : 한국수산물회, 「한·중·일 수산통계」, 2002.

(3) 생산전망

수산물 생산량 급감으로 자국내 소비 충당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02년 3월 '2012 수산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산물의 생산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소비와 수입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해조류 제외)을 2012년까지 6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표 3-11> 참조).

EEZ 등 국제어장의 상실 여파로 원양어업의 생산량 감소를 용인하면서 어패류 자급률을 현재의 53%에서 2012년 66%로 끌어올리기 위해 근해어업의 생산을 2000년 259만톤에서 2012년에는 342만톤으로 연평균 2.3%의 높은 생산증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안어업(해조류 제외)에서 2012년까지 16.4%의 증가율을 실현하여 170만톤까지 증산하고, 해면양식업에서도 2012년까지 11.4%의 증산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78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생산목표는 자국의 자급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에 불과한 것이지만, 향후 일본의 수산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표 3-11>

일본의 2012년 수산물 생산목표

단위 : 만톤, %

구 분	연 도	2000	2012	증감률(%)
어패류 생산목표	전체(식용)물	574(453)	682(526)	18.8
	원양어업 ¹⁾	86	79	△8.0
	근해어업 ²⁾	259	342	32.0
	연안어업(해조류 제외) ³⁾	146	170	16.4
	해면양식업(해조류 제외)	70	78	11.4
	내수면어업·양식업	13	13	0.0
해조류		65	67	3.1
어패류 소비 목표(만톤)		1,086	1,037	-
어패류 자급률 목표(%)		53	66	-

- 주 : 1) 원양저인망어업, 원양가다랭이·참치선망어업, 원양참치연승어업, 원양오징어어업 .
 2) 10톤 이상의 동력선을 사용하는 어업 중 원양, 정치망, 지인망어업을 제외한 것.
 3) 어선비사용어업, 무동력선 및 10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는 어업 및 정치망어업, 지인망어업.

자료 : 日本 水産廳, 「水産基本計劃」, 2002.

4.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패턴은 최근 20여년 동안 질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다. 주식인 쌀 소비의 둔화, 외식수요 증가, 수산물을 비롯한 고단백식품 및 과채류 등의 지속적인 수요증가 현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수산물 수입의 완전한 개방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확대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식품산업을 보다 경쟁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제거를 통한 수산물 수입자유화 확대로 외국 수산식품

에 대한 거부감이 상쇄되어 외국산 수산물의 구매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수산물 소비행태는 전통적 소비구조에서 식품의 영양, 안전성, 편의성 등이 증시되는 새로운 소비행태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행태는 수산물 소비의 국제화를 촉발하게 되고, 기호도가 높은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제간의 수산물 교역을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와 구매행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소비 변화

(1) 수산식품 공급 추이

일반적으로 국민식량의 수급은 생산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형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동물성 식품의 공급량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은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식량수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수산물의 소비성향은 종래의 단순한 선어나 부식개념에서 탈피하여 즉석·편리·고차가공품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수산식품의 다양화 및 편리화 추세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표 3-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1인 1일당 수산물 공급량은 105.1g으로 1975년도의 82g에 비해 약 1.3배 증가하였다. 한편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1975년 이후 연평균 1.24%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96.9g으로 증가하였다. 단백질 공급량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 공급비율은 1975년 21.3%였으나 2000년에는 42.4%로 2배로 증가하였다. 이들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수산식품에서의 공급비중은 1980년대까지는 절반 이상을 담당해 왔으나 이후 육류의 비중이 수산물을 상회하고 있다.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식품기호의 변화와 공급조건의 변화에 따라 육류에 의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은 연평균 6.93%씩 증가해 온 반면, 수산물에 의한 공급은 연평균 1.48%씩 증가함으로써 2000년에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중 육류의 비율이 64%로 수산물의 36%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수산식품 공급 추이

단위 : g

구 분	수산물 총공급량	단백질 공급량					식물성 단백질
		합계	동물성 단백질			어패류	
			계	육류	어패류		
1975	82.0	71.1 (100.0)	15.2 (21.3)	4.9 (6.8)	10.3 (14.2)	55.9 (78.6)	
1980	73.7	73.6 (100.0)	20.2 (27.4)	9.5 (12.9)	10.7 (14.5)	53.5 (72.6)	
1985	102.0	86.6 (100.0)	28.5 (32.9)	12.1 (14.0)	16.4 (19.0)	58.1 (67.1)	
1990	99.1	89.3 (100.0)	33.2 (37.1)	17.3 (19.3)	15.9 (17.8)	56.1 (62.9)	
1995	123.5	96.9 (100.0)	39.3 (40.5)	22.9 (23.6)	16.4 (16.9)	57.6 (59.5)	
2000	105.1	96.9 (100.0)	41.1 (42.4)	26.2 (27.0)	14.9 (15.4)	55.8 (57.6)	
연평균 증가율(%)	1.0	1.24	4.06	6.93	1.48	0.0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한편 <표 3-13>에서와 같이 수산물의 종류별 소비를 보면, 1975년 이후 어패류의 소비는 연평균 1.74%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83.9g으로 1975년 대비 1.5배로 증가하였다.

<표 3-13>

1인 1일당 수산식품류별 공급량

단위 : g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연평균 증가율(%)
합 계	69.0	73.7	102.0	99.1	123.4	97.8	1.40
어 패 류	54.6	61.5	84.1	83.6	91.4	83.9	1.74
어 류	-	51.6	62.0	57.5	59.3	56.2	0.43*
패 류	-	9.9	22.1	26.1	32.1	27.8	5.29*
해 조 류	14.4	12.2	17.9	15.5	32.1	13.8	△ 0.17

주 : *는 1980~2000년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이러한 어패류의 소비 증가는 어류보다는 패류의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0년 이후 최근 20년간 어류는 연평균 0.43%씩 증가한 데 비하여 패류는 동 기간에 5.29%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조류는 1975년 14.4g에서 2000년에는 13.8g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수산물 생산실태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수산물 생산의 장기 변동추세에서 어류의 생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패류의 생산은 증가함으로써 국내공급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해조류의 공급량은 1990년 중반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후반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수산양식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정책에 따른 국내생산의 과도한 증산과 수출제약 등으로 인하여 국내공급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2) 수산식품 소비지출 변화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지출 규모는 소득수준 향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식품지출액 또한 1980년 5만 5,023원에서 1990년 9만 3,664원, 2000년 12만 6,271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출액 비중은 1980년 39%에서 1990년 33.2%, 2000년 현재 27.4%로 감소하였다(<표 3-14> 참조).

품목별로 살펴보면 1980년 이후 곡류의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데 반해, 육류, 수산물, 낙농품, 과일 등의 지출액은 증가하여 영양공급원의 고급화가 진행되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곡류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소득증대를 배경으로 고급 영양소, 즉 단위당 열량이 높은 단백질이나 지방질에 의한 섭취가 증가한 반면, 곡류를 중심으로 하는 탄수화물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섭취가 감소한 결과이다.

식품 가운데서도 주식인 곡류의 소비형태가 변화하면서 기타 부식의 섭취도 과거와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²⁵⁾ 품목별 지출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구성비중은 차이를 보인다. 1980년 곡류, 채소, 수산물이 각각 35.1%, 14%, 12.7%로서 가정내 식품지출액이 이들 세 가지 품목에 집중되어 61.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 41.6%, 2000년에는 24.5%까지 급속히 하락한 반면, 육류, 낙농품 등 타 품목에 대한 구성비가 늘어나 2000년 현재 주식, 부식재에 대해 고른 소비지출을 보이고 있어 식품 소비의 편중화 현상이 줄고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전통적인 식생활에서는 주·부식의 구분이 분명하나, 서구식이나 분식식단 형태는 주·부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부식내용도 전통식단과는 차이가 큼.

이상 식품소비를 양과 금액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쌀 중심의 전통형 식생활의 퇴조와 식단 형태의 다양화는 부식재의 소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전통형 식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산물, 채소류, 조미식품의 구성비는 감소한 데 반해, 어떠한 식단(분식, 양식, 중식 등)과도 잘 어우러지는 육류 및 낙농품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통식품에 대한 선호가 현대형 식품에 대한 선호로 이 전되고 있는 사실에서 식품에 대한 다양화 성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우리나라의 식품종류별 소비지출액(1인 1개월 기준)

단위 : 원,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소 득	155,308	216,640	389,948	625,649	674,265
소비지출액	141,038 (90.8)	163,712 (75.6)	282,039 (72.3)	412,203 (65.9)	461,102 (68.4)
식품지출액	55,023 (39.0)*	65,835 (40.2)*	93,664 (33.2)*	118,749 (28.8)*	126,271 (27.4)*
곡 류	19,305 (35.1)	18,830 (28.6)	18,799 (20.1)	15,740 (13.3)	11,864 (9.4)
육 류	4,666 (8.5)	6,300 (9.6)	8,596 (9.2)	13,074 (11.0)	12,712 (10.1)
수 산 물	7,007 (12.7)	8,565 (13.0)	10,326 (11.0)	11,861 (10.0)	9,717 (7.7)
낙 농 품	2,177 (4.0)	2,886 (4.4)	4,163 (4.4)	4,650 (3.9)	5,452 (4.3)
채 소	7,709 (14.0)	7,311 (11.1)	9,847 (10.5)	10,294 (8.7)	9,379 (7.4)
과 일	2,741 (5.0)	4,358 (6.6)	6,500 (6.9)	7,278 (6.1)	7,712 (6.1)
조미식품	3,629 (6.6)	4,323 (6.6)	5,315 (5.7)	4,718 (4.0)	4,266 (3.4)
외 식	3,018 (5.5)	5,985 (9.1)	20,181 (21.5)	35,491 (29.9)	49,718 (39.4)

주 : 1) 1인당 1개월 지출액으로서, 2000년을 기준년으로 한 품목별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값이기 때문에 식품지출액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2) (*)는 전체 소비지출액 중 식품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3) () 는 식품지출액 중 개별품목이 점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80~2000, 각 연호.

다음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인 수산물과 육류의 소비지출액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전반까지는 수산물의 지출액이 높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육류지출액이 수산물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1980년 대비 2000년 수산물 소비지출액의 증가율이 38.8%인 데 비해 육류는 172.5%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 대비 2000년에는 수산물이 5.9% 감소한 데 반해, 육류는 4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산물의 경우 <표 3-15>에서와 같이 1990년까지는 선어패, 염건어패, 어패가공품, 해조류 모두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어패가공품을 제외하고는 감소하였다. 어패가공품에 대한 지출액은 1990년 대비 2000년에 43.5%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5> 수산물 품목별 소비지출액 추이(1인 1개월 기준)

단위 : 원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수 산 물	7,007	8,565	10,326	11,861	9,717
어 패 류	6,508	7,844	9,528	10,941	9,039
선어패류	5,137	5,803	6,072	7,274	5,791
갈치	1,552	1,648	1,244	978	734
명태	768	903	621	404	395
조기	696	570	714	1,274	876
고등어	593	528	396	476	282
오징어	132	236	318	436	367
꽂치	87	28	55	90	56
가자미	83	68	63	92	113
도미	-	-	-	-	56
생선회	-	-	-	-	734
계	164	228	241	522	282
굴	168	270	207	156	169
조개류	559	648	356	435	339
기타선어패	333	675	1,857	2,411	1,384
염건어패류	1,371	1,763	2,472	2,525	1,836
복어	325	310	267	154	85
굴비	48	78	87	178	226
마른멸치	445	576	539	500	424
마른오징어	58	81	219	378	254
새우젓	-	-	-	-	141
멸치젓	-	-	-	-	113
기타젓갈류	-	-	-	-	226
기타염건어패	496	717	1,360	1,315	367
어패가공품	-	278	984	1,142	1,412
생선묵	-	217	513	379	367
맛살	-	-	-	-	141
어포	-	-	-	-	367
해산물통조림	-	61	427	444	282
기타어패가공	-	-	44	318	254
해조류	499	721	798	920	678

주 : 1인당 1개월 지출액으로, 2000년 불변금액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80~2000, 각 연호.

이상 수산물 소비성향을 양과 지출금액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수산물 소비는 198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 중반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양적으로 정제된 가운데 소비의 다양화·간편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나타난 품목별 소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소비의 다양성이다. 1990년 이후 갈치,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한 지출비중은 감소하고, 오징어 및 어패가공품에 대한 소비지출은 증가하였다. 즉 1990년 이후 수산물에 대한 기호가 이전의 대중어에 대한 강한 선호와는 달리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지출의 범위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조리환경 변화, 가사시간에 대한 가치 재평가 등에 기인하여 식품에 대한 간편화 및 외부화 지향이 강해지면서, 육류처럼 조리가 간편하고 용이한 생선묵·해산물 통조림 등의 어패가공품과 주로 견제품 내지는 염식품 등 가공품의 형태로 제공되는 마른오징어 및 굴비 등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데서 간편화 성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공품 내에서도 염건품 등 전통형 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은 감소세인 데 반해, 고차가공품은 증가세에 있어,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수산식품의 구매 행위²⁶⁾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재 식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표 3-16> 참조), 가족들의 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좋아함’과 ‘좋아함’을 합하여 74.7%로 비교적 높았으며 ‘보통’이 22.5%이었고 ‘싫어함’은 1.8%로 비교적 좋아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산식품의 주 구매장소는 슈퍼마켓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재래시장, 백화점 순이었으며, 수산물 전문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16.0%에 달하였다. 또 주부들이 생선류를 구매하는 형태는 생선 구입처에서 일차 손질한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으며 그대로 사서 집에서 다듬는 경우는 24.3%였고, 전처리되어 포장한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가 3.0%였다. 또한 반조리 형태나 거의 조리된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는 0.7%로 비교적 낮았다.

26) 경원대학교 김미경(해양수산부, 「수산물 연령별 수산물 기호도 조사 및 소비촉진 방안」, 2001)의 연구내용을 인용하였음.

<표 3-16>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및 주요 구매처

항 목		빈 도	구성비(%)
가족의 수산물 음식 기호도	매우 좋아함	107	15.8
	좋아함	398	58.9
	보통	152	22.5
	싫어함	10	1.5
	매우 싫어함	2	0.3
	무응답	7	1.0
	설문조사 응답자수	676	100.0
수산물 주구매 장소	슈퍼마켓	204	30.2
	재래시장	191	28.3
	백화점	136	20.1
	동네 정기시장	77	11.4
	수산물 전문시장	108	16.0
	기타	19	20.8
생선 주구매 형태	구입처에서 일차 손질한 형태	482	71.3
	집에서 손질	164	24.3
	전처리 포장된 형태	20	3.0
	매운탕 등 반조리 형태	3	0.4
	거의 조리된 형태(전)	2	0.3
	무응답	5	0.7
	설문조사 응답자수	676	100.0

자료 : 이영미, 「연령별 수산물 기호도 조사 및 소비촉진방안」, 2001. 3.

이상에서의 수산물 구매와 관련한 특징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매처는 거주지역 인근의 슈퍼마켓이 가장 많은 반면,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이용률이 낮아 접근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매형태는 1차 처리된 수산물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소단위 포장 수산물의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의 수산물 소비구조

(1) 수산식품 공급 추이

일본의 수산물 소비는 1970년대에 생산부문에서의 어로기술과 양식기술의 발달, 유통부문에서의 냉동·가공기술과 물류기술의 발전 및 보급, 그리고 국민소득 향상을 배경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소비계층의 양극화가 이루어져 안정적인 소비구조가 정착되었다.

<표 3-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국민의 1인 1일당 수산물 소비량은 1972~74년의 기간에 205g에서 연평균 0.46%씩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8~99년에는 182g으로 약 11% 감소하였다. 그러나 단백질의 소비는 동 기간에 매년 0.33%씩 증가해 왔으며,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1.02%씩 증가해 왔다.

<표 3-17> 일본의 어패류 1인 1일당 식품 및 단백질 공급량

단위 : g

연 도	수산식품 공급량	단백질 공급량			
		합계	동물성 단백질		
			소계	육류	어패류
1972~74	205	85.4	39.8	7.9(19.8)	22.1(55.5)
1974~76	205	85.1	40.6	8.3(20.4)	22.5(55.4)
1976~78	199	85.5	42.0	9.3(22.1)	22.5(53.6)
1979~81	193	85.5	43.1	10.6(24.6)	21.8(50.6)
1982~84	193	86.8	44.8	11.2(25.0)	22.7(50.7)
1984~86	200	88.1	46.3	11.9(25.7)	23.3(50.3)
1986~88	201	89.8	47.7	12.9(27.0)	23.1(48.4)
1989~91	196	94.4	52.6	14.1(26.8)	26.1(49.6)
1992~94	194	95.0	52.4	14.8(28.2)	24.6(46.9)
1995~97	194	96.6	54.3	14.0(25.8)	25.6(47.1)
1998~99	182	93.1	51.8	13.8(26.6)	23.7(45.7)
평균증가율(%)	△0.46	0.33	1.02	2.17	0.2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식품수급표」, 2001.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한 2대 구성요소인 어패류와 육류의 소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육류와 어패류 모두 동 기간에 공급량이 증가하였지만 육류는 연평균 2.1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온 반면, 어패류는 0.27%씩의 증가에 그쳐,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서의 어패류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즉 육류의 경우 1972~74년 기간에는 평균 19.8%를 담당한 반면, 어패류는 55.5%를 담당하였으나 1998~99년 기간에는 각각 26.6%, 45.7%로 구성비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용도별 소비구조

다음으로 수산물의 최종소비 용도별 수급구조를 보면, 수산물의 용도는 크게 식용 및 비식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출하되고 해당 용도별로 최종소비가 이루어진다.

한편 일본의 국내 소비에 있어서 제품형태별 소비변동 추이를 보면 <표 3-18>과 같다. 1978년 이후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품형태는 생선·냉동품과 염·건·훈제품으로 각각 연평균 1.1%, 1.8%씩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연제품은 동 기간에 3.1%씩 감소하였다. 그리고 비식용 소비 중에서 사료는 0.3%, 이료는 2.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생선·냉동품의 총 수산식품 소비에 대한 비중은 1978년 39.9%에서 2000년에는 46.5%로 6.6%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염·건·훈제품은 동 기간에 10% 높아졌다.

<표 3-18>

일본의 수산물 용도별 국내 소비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1978	1982	1985	1995	1999	2000	연평균 증감률(%)
합 계	10,695 (100)	13,068 (100)	12,263 (100)	11,906 (100)	10,659 (100)	10,857 (100)	0.1
식 용	7,742 (72.4)	8,765 (67.3)	8,416 (68.6)	8,921 (74.9)	8,311 (78.0)	8,514 (78.4)	0.4
생선·냉동품	3,087	3,448	3,342	4,167	3,929	3,959	1.1
염·건·훈제품	2,120	2,972	2,734	3,252	3,096	3,174	1.8
연제품	2,259	1,966	1,983	1,180	982	1,099	△3.1
통조림	276	379	357	321	304	282	0.1
비 식 용	2,953 (27.6)	4,303 (32.7)	3,847 (31.4)	2,985 (25.1)	2,348 (22.0)	2,343 (21.6)	△1.0
사 료	1,589	2,368	2,017	1,901	1,414	1,498	△0.3
이 료	1,364	1,935	1,830	1,804	934	845	△2.1

주 : ()내는 구성비임.

자료 : 日本 農林統計協會, 「水産白書 2001」, 2002.

(3) 어종별 소비

<표 3-19>는 연간 1인당 어개류의 품목별 가계 소비지출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89년 이후 일본 가계의 수산물 소비지출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총 수산물 소비지출액은 1990년대 후반 약간 늘어나긴 하였으나 다시 줄어 매우 미미한 변화만이 있었다. 수산물의 종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류와 패류는 동 기간 연평균 증감률이 각각 0.07% 감소, 0.2% 증가로 큰 변화가 없으나, 해조류만이 연평균 1.7%씩의 감소로 2000년의 소비지출액이 1989년에 비해 8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어개류 품목별 가계소비 지출액의 추이*

단위 : 엔

구분	1989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평균 증가율(%)
생선어개 계	20,900	22,247	21,878	22,167	22,036	21,248	20,792	△0.04
어류 계	18,984	20,203	19,852	20,120	20,017	19,225	18,827	△0.07
참치	2,184	2,611	2,493	2,525	2,708	2,624	2,609	1.5
전갱이	805	802	810	807	776	749	698	△1.2
정어리	298	313	343	385	371	396	350	1.3
가다랭이	565	622	574	705	706	735	746	2.3
연어	598	1,156	1,248	1,331	1,312	1,325	1,378	7.2
고등어	268	274	293	354	473	460	459	4.6
꽁치	493	401	421	509	524	454	489	0.1
방어	1,165	1,304	1,190	1,210	1,249	1,116	1,136	0.2
오징어	1,637	1,367	1,394	1,360	1,267	1,211	1,141	3.0
새우	2,174	2,030	1,957	1,867	1,746	1,648	1,571	2.7
기타	8,797	9,323	9,130	9,066	8,885	8,509	8,250	0.5
패류 계	1,916	2,045	2,026	2,047	2,019	2,023	1,965	0.2
염건어개 계	7,476	6,935	7,154	7,056	6,738	6,397	6,111	△1.7
염건연어	1,896	1,080	1,001	966	911	955	826	△6.7
명란	996	1,256	1,281	1,252	1,248	1,145	1,104	0.9
기타	4,585	4,600	4,872	4,838	4,579	4,296	4,181	△0.7

주 : *는 일본의 연간 1인당 금액.

자료 : 日本 農林統計協會, 「水産白書 2001」, 2002.

그러나 어종별 소비지출의 변화는 다소 두드러진다. 1989년 이후 소비지출이 감소한 어종은 전갱이 한 어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모든 어종의 소비지출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저급어에 속하는 전갱이, 정어리, 꽁치 등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낮은 반면, 중·고급어에 속하는 가다랭이, 연어, 새우 등의 소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변화해 왔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저가격어인 전갱이, 정어리, 고등어, 꽁치, 오징어 등 5개 어종이 생선 어개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절대지출액과 비율은 각각 3,137 엔과 16.7%이었다. 이에 비해 고가격어인 다랭이, 가다랭이, 연어, 방어, 새우 등 5개 어종의 절대지출액과 비율은 각각 7,440엔과 39.5%이었다. 이를 1989년과 비교해 보면, 저가격어의 소비지출액과 비율은 3,501엔, 18.4%이었고, 고가격어는 각각 6,686엔, 35.2%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일본가계의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 현상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저가격어의 소비지출과 고가격어의 소비지출의 상대적인 비율이 1:1.9에서 2000년에는 1:2.5로 변화하였다.²⁷⁾ 이와 같이 일본 가계의 수산물 소비는 과거의 고가격어가 점점 대중어적 성격으로 바뀌면서 주요 소비 대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일본 가계의 수산물 소비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 10여년 동안 일본 가계의 수산물 소비지출은 식료 총공급량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해조류 소비지출은 다소 감소한 반면, 패류의 소비지출은 약간 늘고 있다. 어종별로는 중·고급어종의 소비지출이 저가격어에 비해 절대금액 면에서나 구성비 면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일본의 수산식품 구매패턴 변화

최근 수입수산식품의 증가, 대형할인점 및 외식산업 등 대량수요자에 의한 직접 구매의 증가 등 시장 외 유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생선어개류의 유통은 산지 시장에서 스티로폼 어상자에 얼음을 채워 트럭(냉장차)으로 수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소량주문자를 위한 냉장 택배수송 네트워크²⁸⁾가 전국화되면서 급

27) 日本 總務廳, 「家計調査年報」(1998)에서 인용.

28) 택배 수송차량에 냉장고를 구비하고, 냉장수송을 위한 1회용 냉매를 이용하는 형태이다. 최근 고선도 지방과 통신 및 전자상거래 등의 증가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상품유통형태는 활어, 노지메²⁹⁾, 이케지메³⁰⁾, 선어, 단순가공, 냉동품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의 소매는 대규모 할인점의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매업의 수산물 판매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형할인점 등에서는 다른 점포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지역특산 어패류의 품평회와 같은 판매행사를 벌이는 등 갖가지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을 위한 「수산물표시 가이드 라인」에 따른 표시의 실시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9년 7월에 JAS³¹⁾법의 개정으로 전체 생선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유통채널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소비채널은 다양한 업체들이 출현하면서 소비자 기호의 변화를 쫓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외식산업의 성장과 양판점 등의 확대 등 최종 소비채널의 변화로부터 일본의 최종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을 추구하는 소비지향으로 일본 외식산업의 연간 판매액은 약 28조엔까지 성장했다. 그 중 식재료비가 약 40%를 차지하고, 식재료비 안에서 수산물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외식산업에서 수산물 수요는 연간 약 1조 7천억엔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998년 大日本水産會의 조사에 따르면 외식산업 메뉴 안의 수산가공품은 피레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산가공품 중심의 어패류 메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양판점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품관리, 검색도, 배송 등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판매정보를 기초로 EOS(온라인 발주시스템)를 이용해 발주를 한다. 이에 따라 양판점 등은 대자본을 중심으로 자사에서 상품의 기획개발과 상품의 구입처 개척 등 여러 방면의 상품조달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 최종소비자의 식료품 구매행동에 관한 조사결과,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처가 종래의 수산물 취급 전문점에서 슈퍼, 생협(生協), 데파트 등과 같은 양판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29) 얼음물에 넣어 즉살시켜 수송하는 형태.

30) 선도 유지를 위해 물을 빼서 수송하는 형태로 일본에서는 활어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어종에 따라 다르지만, 사후 6~8시간 정도 선도 유지가 가능하다. 참고로 노지메는 4~6시간이며, 이케지메의 진공포장은 2~3일까지는 횡감용으로 소비가 가능하다고 한다.

31) 일본 표준규격.

32) 大日本水産會, 「水産物消費調査(首都圏主婦アンケート)」, 1998.

5. 한·일 수산물 무역환경의 변화

국제 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으며, WTO/DDA 협상이 진행중인 최근에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의 하나는 비교우위론이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의하면, 교역당사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역으로부터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20>

WTO/DDA 수산물 협상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

국 명	관세인하	자원관리와 무역	보 조 금
미 국	관세 상호철폐	자원관리 강화와 동시에 자유화조치 실시	철폐(자원에 부정적 보조금 및 무역왜곡적 보조금 철폐)
캐나다	관세 상호철폐	개별분야 검토와 무역장벽 해소	부정적 보조금 철폐
뉴질랜드	관세 상호철폐	자원관리 강화와 동시에 자유화조치 실시	철폐
호 주	관세 상호철폐	자원관리 강화, 자유화조치 실시 불응	철폐
EU	필요성 인정	자원관리 강화와 동시에 자유화조치 실시	소극적 철폐,
노르웨이	관세인하 방향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철폐
일 본	APEC 관세 철폐 반대	자원관리 강화와 자원보호 고려한 자유화 논의 필요, IQ 존속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공헌하는 어업보조금
한 국	APEC 관세 철폐 동조	자원관리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산	어획능력 조장과 수산자원 보존 보조금 구별

주 : 주문배의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물 무역제도 개선방향」(1999)을 참조하여 작성.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WTO, OECD, APEC, FAO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수산자원 부국과 일부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수산물의 관세인하 및 무세화, 비관세의 관세화 및 철폐, 수산보조금의 감축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표 3-20> 참조).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쌍무협상 혹은 다자협상을 통하여 관세의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수산물 교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비관세 및 수산보조금의 무역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한·일 양국의 제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추진될 한·일 FTA협상에서의 중점논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세

(1) 관세인하의 무역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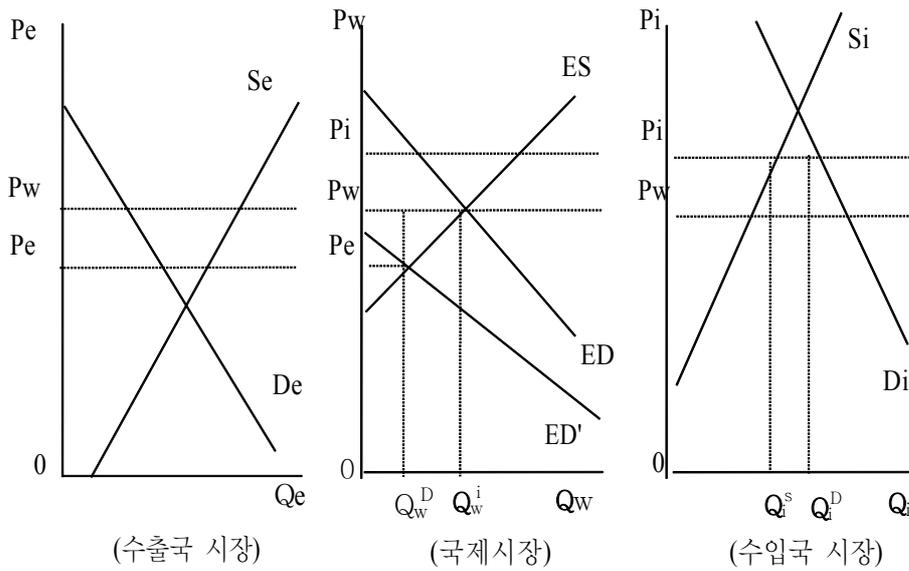
먼저 수입국이 관세를 감축해 나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제가격의 변동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수산물 수입국들은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왜곡 조치들은 자국의 수산업 보호와 재정적 수입의 확보가 주된 정책 목표로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WTO/DDA 협상에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각종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여 감축해 나가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논의의 간편화를 위해 수출국의 무역왜곡 조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림 3-2>에서 첫 번째 그림은 수출국시장, 두 번째 그림은 국제시장,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수입국시장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아래첨자 e 는 수출국(Exporter), i 는 수입국(Importer), w 는 세계시장(World Market)을 나타낸다. P 는 가격, Q 는 수량, S 는 공급, D 는 수요, ES 는 초과공급, ED 는 초과수요를 의미한다.

수입국의 무역규제가 없다고 할 때 그림과 같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수요와 공급 구조 하에서는 국제시장의 공급과 수요곡선은 각각 ES 와 ED 가 되고, 국제가격은 P_w 에서 결정된다. 만약 수입국에서 일정률의 관세(Ad Valorem Tariff)를 수입품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하고, 그 관세율은 국내가격을 P_i 로 유지하는 수준에 맞춘다고 하자. 이 때 수입국의 국내가격은 관세부과만큼 높아지게 되고, 수요는 감소한다.

<그림 3-2>

수입국의 관세율 감축과 국제가격 변동



따라서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초과수요도 감소하며, 초과수요곡선 ED 는 ED' 으로 이동하게 된다. ED' 가 ED 로부터 수평 이동하지 않고 회전한 것은 일정률의 관세 부과가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수입국의 관세부과로 국제시장 가격은 Pw 에서 Pe 로 하락하게 된다. 수출국은 국제시장 가격인 Pe 에서 수출을 하게 되지만 수입국은 Pe 에 구입하여 Pe Pi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에게는 Pi Qi^D 가 되며, 관세수입은 Pi Pe 에 수입량 Qi^S Qi^D 를 곱한 것이 된다. 자유무역과 비교할 때 수입국의 수입규제(관세부과)는 교역량을 줄이고, 국제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2) 한·일 수산물 관세율의 상호 비교

2002년도 우리나라의 수산물 HS품목은 총40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03개 품목 중에서 03류가 262개(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66개 (16.4%), 12류 39개(9.7%)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3-21> 참조).

전체 65%를 차지하는 03류의 기본관세 평균은 16.2%로 전체 평균세율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0301(활어) 및 0303(냉동어류)은 10%, 0302(신선·냉장

어류) 및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은 20%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표 3-22> 참조).

<표 3-21>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기본관세율 구조(2002년도)

HS분류 관세율	01	02	03	05	12	13	15	16	21	23	계
2%											
3%							5				5
5%			1	1						2	4
8%	2			15		3	2		2		24
10%			99								99
20%			162		25			63			250
30%		3						3	1		7
50%					14						14
계	2	3	262	16	39	3	7	66	3	2	403

주 : 01:산 것, 02:육류, 03:어류, 05:기타 동물성 생산품, 12:채유용 종자·인삼, 13:식물성 엑기스, 15:동식물성 유지, 16:육·어류 조제품, 21:조제 식료품, 23:사료, 41:원피·가죽, 43:모피, 모피제품.

자료 : 해양수산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HSK)-수산물」, 2002.

<표 3-22> 수산식품 품목분류별 기본관세율 구조(2002년도)

HS분류 관세율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5%							1	1
10%	28		55	10			6	99
20%		38		6	38	21	59	161
계	28	38	55	16	38	21	66	262

주 : 0301:활어, 0302:신선 또는 냉장어류, 0303:냉동어류, 0304: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자료 : <표 3-21>과 동일.

한편 일본의 관세제도는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의 소위 “관세3법”³³⁾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관세율은 획일적이지 않고 기본세율, 잠정세율, 특혜세율, 협정세율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세율의 적용순위는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근년에 수시로 관세율의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997년에 단순평균관세율이 9.4%에서 1999년에는 8%로, 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무역량 기준 가중평균관세율(1999년)은 4.3%로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가공단계별로 경사관세율 구조(Tariff Escalation)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산업 보호를 위해 종량세와 선택관세제도(종가세와 종량세 중 높은 세율 적용)를 채택하거나 자국의 국내상품과 경합이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광범위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³⁴⁾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율을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에 국제적으로 고관세의 기준이 되는 1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약 67%에 달한다. 1999년도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03류)는 155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적용한 관세율(=실적관세) 평균은 18.5%로 매우 높다.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 중 관세율 20% 품목이 9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로 51개이며, 30%와 40% 품목도 각각 3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신선·냉장어류(0302류)와 건조·염장·염수장·훈제어류, 어류의 분·조분(0305류)은 모든 품목이, 갑각류(0306류)와 연체·수생무척추동물(0307류)은 대부분이 20%이다. 반면 활어(0301류)와 냉동어류(0303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품(0304류)은 대부분이 1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999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어패류(03류)는 118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적용된 관세율 평균은 7.4%로 매우 낮다. 이 중 관세율이 5% 이하에 불과한 품목은 58개인 반면, 15%를 넘는 품목은 한 품목도 없었다. 품목별로는 신선·냉장어류(0302류), 냉동어류(0303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품(0304류)의 실적관세율은 대부분이 5%였고, 연체·수생무척추동물(0307류)은 10%가 많았다(<표 3-23> 참조).

33) 관세법은 관세의 확정과 납부, 적정한 세관수속을 도모하는 것이고, 관세정율법은 수입금지 품목을 정하는 것 외에 세율과 감면세 등 관세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임. 또한 관세잠정조치법은 다른 두 법의 잠정적 특례를 정해 두고, 경제사정 등에 대응해 긴급하게 개정함.

34) 박부규, 「일본의 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2000. 12.

<표 3-23> **한·일 양국의 수산물 기본 관세율 구조(1999년도 기준)**

단위 : 품목 수 (개)

구 분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합 계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 5%		5		14		21		11				5	1	2	1	58
~10%	9	1		4	29	10	8	2				10	5	24	51	51
~15%										5	1	1		3	1	9
~20%			25				4		20		10		33		92	
~40%	1				1		1				1		2		6	
40% ~	1				2						1				4	
합 계	11	6	25	18	32	31	13	13	20	5	13	16	41	29	155	118

주 : 1) 0301:활어, 0302:신선·냉장어류, 0303:냉동어류, 0304:어류의 피레트, 기타 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품,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2) 한국은 실행관세, 일본은 기본관세 기준임.

자료 : 해양수산부의 「1999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1999), 「1999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2000) 및 「日本 關稅率表 1999」(1999), 「日本水産物輸入統計年報 1999」(2000)을 참조하여 재구성.

특히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10대 품목에 적용한 관세율은 29%에 달하는 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10대 수산물(2001년 수입금액 기준)에 적용한 관세율 평균은 5.89%에 불과하여 우리가 일본보다 평균 4.9배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김에 대해서는 속(束)당 150엔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관세율로 환산하면 40%에 달하고 조미김에도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표 3-24> 참조).

<표 3-24> **10대 수입수산물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실행관세율 비교**

한 국		일 본	
품 목	관세율(%)	품 목	관세율(%)
명 태 (신선·냉장)	20	눈다랭이 (냉동)	3.5
갈 치 (신선·냉장)	20	황다랭이 (냉동)	3.5
돔 (활어)	65 또는 4,756/kg	굴 (활, 신선·냉장)	7
꽁 치 (냉동)	40	캐비아 대용물	6.4

10대 수입수산물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실행관세율 비교(계속)

한 국		일 본	
품 목	관세율(%)	품 목	관세율(%)
참다랭이 파레트(냉동)	10	피조개 (활,신선·냉장)	7
명 란 (냉동)	10	넙 치 (활 어)	3.5
먹장어 (활어)	10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3.5
농 어 (활어)	65	굴 (냉 동)	7
명 태 (냉동)	30	룻 (건 조)	10.5
전복(활어,신선·냉장)	20	바지락 (활, 신선·냉장)	7

2) 비관세

그 동안 한·일간 수산물 교역은 우리나라가 수출 편향적 구조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일본 수산물의 수입에 대해 특별한 비관세장벽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다만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극적 수입제한 조치인 수입수산물의 검사,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 원산지 표시제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긴급조정 조치 등을 시행·운영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으로 자국의 산업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비관세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구미 각국이 반덤핑관세 등 가격 메커니즘을 이용해 수입규제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수입할당, 관세할당 등 직접적인 수량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규제 외에도 일본은 엄격한 검사·검역, 표준·인증제도, 행정지도, 정부조달에서의 차별, 조합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유통관행 등을 통해 음성적인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어 상대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 일본은 수량규제만을 비관세 장벽으로 스스로 인정할 뿐 검사·검역, 유통관행, 표준·인증제도 등은 비관세 장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입할당은 일본의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대부분이 수산물에 한정되어 있다. 일본은 1966년부터 9종의 어패류(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건멸치, 가리비, 패주)에 대해 수입할당제(Import Quota; IQ)를 실시하고 있는데, 쿼터는 한국산과 기타 101개국산의 두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타 101개국산에 대해서는 쿼터를 꾸준히 증액(1982년 4,250만달러 → 2001년 약 6억달러)하고, 고등어, 전갱이(1997년), 정어리(1998년), 대구

(2000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액할당제를 수량할당제로 전환하여 수입어종의 단가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한국산에 대해서는 수입할당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금액할당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1983년 이후 19년간이나 연간 4천만달러로 동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일 수출시 쿼터를 가진 바이어와의 가격협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 3-25> 참조).

<표 3-25>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제도 시행 현황

품 목	대상국가	현황 및 문제점
어패류 (9종)	한국	- 1966년부터 대구, 방어, 가리비, 꽁치 등 9종의 어패류에 대해 한국산과 기타 101개국산으로 구분하여 수입쿼터 운영 - 한국산 쿼터는 19년간 4천만달러로 동결하고 있는 반면, 기타 국에 대한 쿼터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김	한국	- 우리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쿼터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2002년도의 경우 180만속으로 일본시장의 1.8%에 불과
다시마 조제품	한국	- 한국산에 대해서만 2001년도 현재 500톤의 수입쿼터 운영
명태	전세계	- 2001년도 현재 102만 7천톤의 쿼터 운영
청어	전세계	- 2001년도 현재 13만 1천톤의 쿼터 운영
명란	전세계	- 2001년도 현재 8만 3천톤의 쿼터 운영
오징어	전세계	- 2001년도 현재 6만 3천톤의 쿼터 운영
다시마	전세계	- 2001년도 현재 2,260톤의 쿼터 운영 - 실제로는 한국, 중국, 대만을 겨냥
견연사	한국 중국	- 2004년까지 수입할당 운영 - 합의물량이 소진되지 않는 반면, 값 싼 제3국산의 수입 급증

주 : 한국무역협회, 「일본에 대한 비관세 장벽 현황」(2000) 참조.

IQ의 규제 근거로 일본은 국내어업 보호를 위한 UR 세이프가드의 잔존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후 8년 이내 혹은 UR협정 발효(1995.1.1일부) 후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이 규정을 철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9종의 어패류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도 수입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WTO 및 UR협정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다(<표 3-26> 참조).

<표 3-26>

일본의 9종 어패류에 대한 쿼터량 추이

구 분		1982	1983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산	금액할당(만\$)	4,5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101개 국산	(a)금액할당(만\$)	4,250	6,250	30,200	17,300	18,000	2,400	4,900
	(b)수량할당(천톤)	-	-	276	319	345	430	440
	(a+b)총할당(만\$)*	4,250	6,250	60,000	56,000	57,000	59,000	60,000

주 : *는 97년 이후 101개 국산 총할당량은 평균수입가를 기준으로 환산·추정한 것임.

김에 대해서도 일본은 1959년부터 수입할당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978~1994년까지는 일본 자체의 생산량 증대 및 수입장구 단일화로 대일 수출이 중단되고, 1995년부터 양국 수산청장간 합의로 대 한국 수입을 재개하여 경제산업성이 공고한 할당량 내에서 양국 민간단체(한국; 수산물수출입조합, 일본; 김협회)가 합의한 물량을 과거 수입실적이 있는 상사에 할당(상사 할당)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수요자 할당과 선착순 할당을 신설하였다.

첫째, 상사 할당이란 경제산업성이 과거의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할당하며 김수입조합을 통하지 않고 상사가 직접 수입(건조김과 조미김의 구분이 없음)하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 할당은 김을 수입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 배정하는 것이며 셋째, 선착순 할당은 수산청 장관으로부터 발주한도 내시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쿼터량은 199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의 경우는 180만속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김 시장규모(연 1억속)에 비해 한국산 김의 쿼터량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1.8%에 불과하여 대일 수출의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기존 거래업체의 주문량을 소화하기 힘든 것은 물론 신규거래 희망업체와도 거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표 3-27> 참조).

수산물 부문의 통관제도는 세계 99개국과 한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2분류로 되어 있다. 수산물을 수입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화물이 통관하게 되는 관할 검역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골을 제외하고는 통관상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은 없다. 일본은 1996년 대일 수출 패류에서 패독이 검출됨에 따라 한국산 이매패에 대하여 통관전 패독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표 3-27>

일본의 한국산 김 수입 쿼터량 추이

단위 : 만속

연 도	쿼 터 량	입 찰 량		
		계	건조김	조미김
1995	20	20	20	-
1996	33	33	28	3
1997	40	40	31	9
1998	5	58	40	18
1999	69	46	37	9
2000	120	76	53	23
2001	150	94	61	33
2002	180	112	67	45

다만 한국 지정해역산 패류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부터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패독검사료는 회당 1만 7천~3만 8천엔 정도로 연간 총 건수로 볼 때,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패독이 검출되는 계절은 3~5월로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패류를 연중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통관상의 시간낭비로 인해 상품의 신선도가 낮아지거나 부패의 가능성도 발생함에 따라서 패류의 주생산해역에 대하여 1년간 위생 조사를 실시하고 위생기준이 적합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3)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WTO 환경무역위원회(The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에서 미국, 뉴질랜드 및 아이슬란드가 주축이 되어 1996년 말부터 1997년도에 걸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APEC, OECD, FAO에서 수산보조금의 정확하고 실제적인 분류와 이 같은 분류에 적용되는 각국의 자료를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³⁵⁾ 또 수산보조금에 대한 연구도 EU를 비롯한 지

35) WTO 보조금협정에 의하면 수산보조금은 그 성격상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및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OECD의 경우 보조금의 기능과 대상 목적에 따라 크게 직불보조금(Direct Payment), 비용절감 보조금(Cost Reducing Transfers) 및 일반서비스보조금(General Services)으로 분류하고 있음.

역 수산기구,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 ; WWF)과 같은 비정부단체(NGO)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산보조금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그 분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³⁶⁾

특히 지난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DDA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과 수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제를 포함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 각료회의 선언문 중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WTO 규범(paragraph 28~30) 분야에서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을 개시하며,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효과성 및 그 수단과 목적은 유지한다”는 조항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수산보조금은 향후 WTO/DDA 협상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수산보조금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간에 치열한 협상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조금 감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감축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일간 수산물 교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보조금 감축과 무역효과

어느 수출국(A국이라 함)이 세계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국내가격을 설정하고 생산자 지지가격 유지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을 수출보조금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며, 다음의 가정하에 있다고 하자. A국은 국제시장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교역량 비중이 커, A국의 수출량 또는 수출정책에 의해 국제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Large Country Assumption). A국의 생산자 지지가격은 소비자에게도 적용되며 수입국의 무역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이 가정은 단지 수출국의 정책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임). 국내외 시장은 안정적이다. 수요곡선은 우하향이며, 공급곡선은 우상향이다.

먼저 수입국과 수출국에 어떠한 시장왜곡 조치도 없다고 가정하자. 이 때 <그림 3-3>과 수요와 공급구조에서의 국제시장 가격은 초과공급곡선 ES와 초과수요곡선 ED가 만나는 P_w 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수출국에서 세계시장 가격(P_w)보다 높은 수준에서 국내가격(P_e)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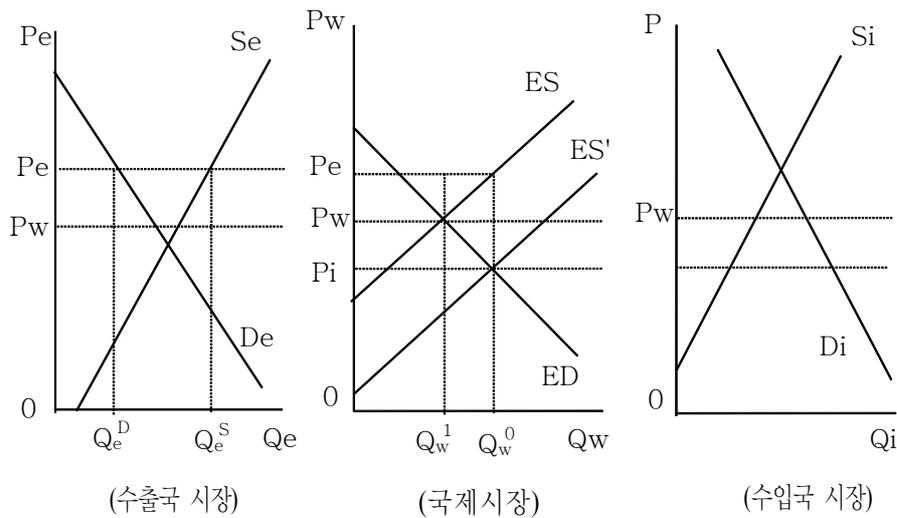
36) Steenblik Ronald P. and Wallis Paul F., *Subsidies to Marine Capture Fisheries*,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Gap, 2001.

이 때 수출국의 국내수요는 OQe^D 가 되고, 공급은 OQe^S 가 된다. 따라서 Qe^D Qe^S 만큼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며, 현재의 국제가격 Pw 하에서는 수출이 어렵다. 왜냐 하면 국내가격 Pe 가 국제가격 Pw 보다 높아 수출업자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수출국 정부는 결국 이러한 국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출보조금은 수출국의 국내가격 Pe 와 자유무역 하의 국제가격 Pw 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국내가격을 Pe 로 유지함으로써 수출 가능물량이 국내가격을 Pw 로 유지할 때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곡선은 ES 에서 ES' 으로 이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³⁷⁾

따라서 국제시장 가격은 ES' 와 ED 가 만나는 Pi 에서 결정되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수출보조금은 Pe 와 Pi 수준에서 결정된다. 수출보조금 총액은 Pe Pi 에 Qe^D Qe^S 를 곱한 것이 된다. 수출국의 국내가격 지지정책과 수출보조금 지불 정책으로 국제가격은 자유무역보다 Pw 에서 Pi 로 하락하고, 수입국은 Pw 보다 낮은 Pi 에서 보다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

<그림 3-3> 수출국의 재정지원과 국제가격 변동



37) 수출보조금이 물량단위 (Per Unit)로 일정액(Specific Subsidy)이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초과공급선 ES 는 ES' 로 수평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이 일정률(Ad Valorem Subsidy)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ES 는 수평이동이 아닌 회전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WTO/DDA 협상의 결과로 수출국의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이 감축될 경우, 국제가격은 P_i 에서 P_w 로 접근해 가게 될 것이다. 수출국의 국내가격은 P_e 에서 P_w 로 접근하며, 수입국의 국내가격은 P_i 에서 P_w 로 접근할 것이다. 결국 수출국의 수출보조금 감축은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국제가격 상승, 수출국 국내가격 하락, 수입국 국내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2) 국제적인 보조금 논의 동향

<표 3-28>은 주요 국가의 수산부문에 대한 분야별 기본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을 비롯한 자원보유 연안선진국들은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논의에서 WWF와 공조하여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수산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산보조금은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WTO 무역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주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형태의 정부보조금과 어선감척사업 등 자원보전에 긍정적인 보조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지 영어자금, 면세유, 정부수매자금, 해외어업 경비에 지원되는 수산보조금은 생산비용을 절감케 하고, 소득과 가격지지로 무역왜곡을 유발하므로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WTO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업의 경제적 가치 외에 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여 공산품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주목받지 못하였다.³⁸⁾ 이 중에서 전세계 수산물 수입액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은 수산보조금은 생산확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과잉어획능력의 삭감, 자원의 관리 및 보호육성 등 수산자원에 긍정적인 기능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수산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식량 안보적 차원이나 사회경제적 차원과 같은 다원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들은 경쟁논리만을 협상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OECD에서는 수산위원회를 통하여 1980년 이전부터 수산분야의 정부재정이전

38)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는 수산물을 반드시 공산품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물의 특성상 일반 공산품 협상이 아닌 별도의 협상으로 다루자는 입장임.

<표 3-28> OECD 주요 회원국의 수산분야 정부재정지원 실태(1999년도)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직접지불 (A)	비용절감 (B)	일반 서비스 (C)	총액 (A+B+C=D)	어업총 생산액 (TL)	(A+B) /TL(%)	D/TL (%)
호주	1,103
캐나다	318	25	144	4,874	1,157	29.6	42.1
E U	201	456	509	1,166	6,619	9.9	17.6
벨기에	96
덴마크	25	-	9	34	460	5.4	7.4
핀란드	2	2	22	26	19	21.1	136.8
프랑스	2	0	70	72	997	0.2	7.2
독일	6	9	52	67	216	6.9	31.0
그리스	29	13	1	44	93	45.2	47.3
아일랜드	2	-	113	115	224	0.9	51.3
이탈리아	65	8	71	145	815	9.0	17.8
네델란드	390
포르투갈	3	0	24	27	308	1.0	8.8
스페인	63	151	53	267	1,940	11.0	13.8
스웨덴	4	0	23	27	113	3.5	23.9
영국	0	0	71	76	948	0.6	8.0
아이슬란드	0	16	19	35	802	2.0	4.4
일본	26	35	2,481	2,542	10,725	0.6	23.7
한국	203	48	183	435	3,405	7.4	12.8
멕시코	960
뉴질랜드	0	0	13	13
노르웨이	12	53	116	181	1,270	5.1	14.3
폴란드	142
터키
미국	105	166	798	1,111	3,602	7.5	30.8
합 계	865	799	4,263	5,970	29,785	5.6	20.0

주 : [..] : 입수할 수 없는 자료, [-] : 적용할 수 없는 자료, [0] : 0과 0.5 사이의 데이터는 0으로 한다.

자료 : OECD, *Review of Fisheries(several issues) and Transition to Responsible Fisheries*, 2000.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다.³⁹⁾ 1999년의 연구⁴⁰⁾에 의하면, OECD 회원국들이 수산업에 지출한 정부재정이전은 약 6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재정이전이 일반 수산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가격지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 수산연구, 규제 및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한·일 FTA협상과 수산물 교역환경의 변화 전망

앞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체계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감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관세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세체계는 일본에 비하여 단순하며,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관세 조치에 있어서는 한·일간의 수산물 무역이 수출편향적 구조로 지속돼 옴으로써 우리나라는 수입관리체계가 미약한 반면, 일본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무역장벽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산보조금은 양국이 지닌 수산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수산물 교역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세, 비관세 조치에 대한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이는 어느 일방의 조치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쌍무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재 한·일간의 공동연구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수산물 교역부문도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일 FTA협상시 논의되어야 할 수산부문의 의제와 그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일 수산물 무역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수산업은 생산요소의 국가간, 산업간 이동이 대단히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한·일 FTA 체결의 무역창출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수산물의 생산, 소비 및 수출입 분야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물의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반해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의 무역전환 효과는 양국이 무역장벽을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무역전환 효과가 일본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로는 우선 한·일 FTA 체결에

39) 정부재정이전의 정의는 “The Monetary Value of on-and Off-budget Government Interventions Associated with Fisheries Policies”임.

40) 한국수산회, 「WTO/DDA 수산보조금협상 동향과 전망」, 국제전문가초청 심포지움, 2002.

따른 수산물시장 확대 효과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경쟁력 또한 우리가 일본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FTA의 체결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 중 관세장벽 인하 효과는 일본이 우리보다 클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이유는 이 효과를 좌우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과 수입의 가격 탄력성이 모두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 수출 가격탄력성보다 수입의 가격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량으로서의 인식보다는 기호품적인 성향이 더 강한 데다 일본이 우리나라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각종 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⁴¹⁾

관세장벽과는 달리 비관세장벽의 철폐 효과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것은 현재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상당히 높은 비관세장벽을 쌓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비관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품목인 김 등은 비관세장벽이 없을 경우 대일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품목이다.

이처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전히 철폐될 경우 일본은 활어 및 신선·냉장 어류의 대한(對韓) 수출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어류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급 생선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금도 20%가 넘는 높은 관세율에도 이들 품목이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의 수입할당에 묶여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어류의 대일 수출을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패류 및 해조류와 기타 수산물(037류)과 갑각류, 연체류(036류) 등의 대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이들 품목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일본의 주요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6. 구조변동요인 분석의 종합

이 장에서는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이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3/4을 차지

41) 주문배 외,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1999)에 의하면, 대일 수입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09인 반면, 대일 수출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는 일본 수산물시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의 수산물 수급, 소비, 유통 및 무역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EZ 체제의 정착으로 대표되는 국제어업질서의 재편은 연안국의 배타적 자원관리·이용의 결과로 귀결됨에 따라 EEZ 체제하의 수산물 무역은 종전의 개방적 공급형태에서 폐쇄적 공급형태로 전환되어 비교생산우위에 입각한 고전적 무역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폐쇄적 공급형태의 무역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수출주도 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육성하고, 기존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은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약간씩 줄어들고 있으나 생산이 더 크게 줄어 자급률이 53%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 결과 일본의 수산물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0년에는 50% 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공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국, 태국 등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동북아 역내 국가간의 수평적 분업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일본인들의 소비특성은 모든 면에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통품목의 다양화, 소비형태의 다양화, 구입처의 다양화이다. 우선 소비자 수요변화와 물류체계 개선으로 인하여 유통되는 수산식품 품목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비형태는 중·고급 어패류가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활어소비의 증가하고, 피레트나 모듬회 등 간편식품 및 조리식품 선호도와 외식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대형할인점, 카탈로그 구매 등 구입처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구조는 종래의 생산지향형에서 벗어나 품질의 고급화, 다품목 소량생산체제 구축 등 수입국의 소비자의 기호를 바탕으로 한 소비지향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 일본은 수입관리를 위하여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해 왔는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 보호 및 자원관리, 식품안전 등을 이유로 더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는 상품의 신선도, 상품의 안전성, 포장의 편리성, 디자인의 세련성이 흔히 가격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무역장벽의 제거를 요청하기보다는 이들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관리 및 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한 공세적 무역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구조 분석

이 장에는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 수산물의 시장지위와 경쟁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수산물 품목들 중에는 한국이 집중적으로 수출하여 일본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들도 있고, 거꾸로 일본의 일부 수산물 품목들이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품목들도 있다.

이처럼 한국 수산물의 품목별 경쟁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간 수산물 무역구조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먼저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의 각 품목에 대해 경쟁력 지표의 구체적 측정방법을 살펴본 다음,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수산물의 비교우위와 주요 경쟁국들간의 수출경합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물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수산물 무역구조 결정요인

1) 이론 모형

앞서 우리는 수산물의 수출과 수입이 어떻게 수산업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면 수산물의 수출입 구조는 또한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⁴²⁾ 수산물을 소재로 한 식품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입 구조를 결정하는 모형으로는 2국 다재(多財)의 국제무역이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Dornbush 등⁴³⁾의 연속적 상품의 교역을 대상으로 리카도 비교우위모형을 설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보면, 비교생산비에 따라 교역상대국들은 생산을 특화할 것이므로 자국의 산업구조는 여기서 특화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이 때 자국과 외국 수산물에 대한 상대적 비교우위를 표시해 주는 지표가 있다

42) 홍현표, “국제무역과 산업구조”, 「국제무역과 한국경제」, 1992, pp. 251~254.

43) Dornbush, R., Fisher, S. and Samuelson, P., “Comparative Advantage, Trade and Payments in a Ricardian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1977.

면 이를 가지고 자국이 특화하는 품목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산물 품목 z 가 자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데서 낮아지는 순서로 0과 1사이의 연속적인 공간에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z 품목의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자국에서는 $a(z)$ 단위, 외국에서는 $a^*(z)$ 단위의 어획노력량이 각각 투입된다고 하자. 이 때 자국의 비교우위 $A(z)$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가정에 의하여 z 에 대한 감소함수로서 표시된다.⁴⁴⁾

$$A(z) \equiv \frac{a^*(z)}{a(z)}, \quad A'(z) < 0 \quad (1)$$

단, $0 \leq z \leq 1$, 만일 자국과 외국의 어획노력량에 대해 단위당 비용의 상대비가 일정하다면 (즉 $c/c^* = \omega$), 자국은 외국의 가격보다 낮은 z 품목에 특화할 것이므로 ($p(z) \leq p^*(z)$)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조건에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구간의 z 품목에 특화하게 된다. 즉,

$$a(z) \cdot c \leq a^*(z) \cdot c^* \quad \text{혹은} \quad A(z) = \frac{a^*(z)}{a(z)} \geq \frac{c}{c^*} = \omega$$

다시 말해 특화의 한계상품을 z_M 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획노력량의 단위비용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z_M = A^{-1}(\omega)$ 로 표시될 수 있다. 이 때 자국은 $0 \leq z \leq z_M$ 구간의 품목에 특화하고, 반대로 외국은 $z_M \leq z \leq 1$ 범위의 품목에 특화하면 된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z 품목에 대한 기호 및 지출패턴이 양국에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면, 임의의 특화범위 z 가 주어졌을 때 양국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대적 단위당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즉 현재 상대비용 ω_0 하에서 z_0 의 특화범위에서 무역수지가 균형이지만(즉, B_0), 공급측의 요인에 의해 한계특화범위 z_M 까지 자국의 특화범위를 확대하면 수출이 증가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흑자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자국의 투입요소(어획노력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외국은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국의 투입요소의 단위비용은 상승하고 외국의 그것은 하락하므로 양

44) 자국의 수산물의 비교우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해당품목 1단위당 어획노력량은 점점 커지고, 외국의 경우는 그 배열이 거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므로, A함수값은 z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국간 상대비용 ω 는 증가하게 되어 결국 자국은 수출이 감소되고 수입이 늘어나므로 다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E 점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수요측면에서 무역수지 균형선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omega = \frac{\delta(z_M)}{1 - \delta(z_M)} \cdot \left(\frac{F^*}{F} \right) = B(z_M) \frac{F^*}{F} \qua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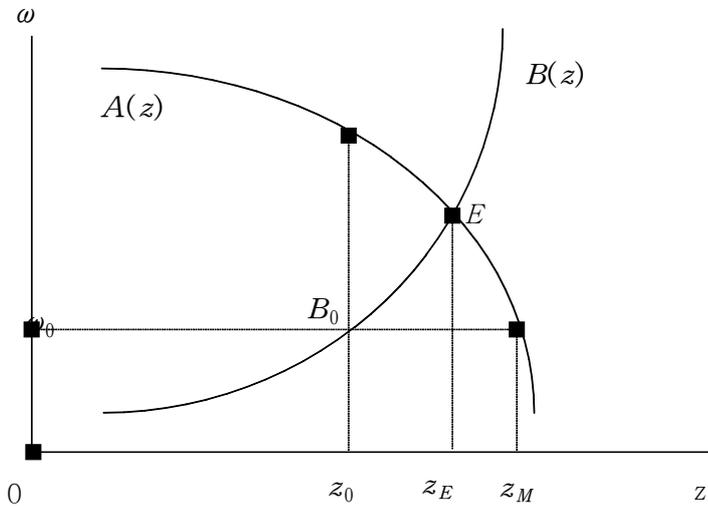
단, $\delta(z) = \int_0^z b(z) dz =$ 자국 비교우위 상품에 대한 소득지출 비율,

$b(z) = b^*(z) =$ 자국과 외국의 동질적 소비/소득비율,

$F, F^* =$ 자국과 외국의 어획노력량 단위(혹은 노동력 환산 수량)

이 분석에 따르면, 자국의 수출산업을 다양화시키는 한계산업 성장전략이 추진될 경우, 비교우위곡선 $A(z)$ 가 밖으로 이동하므로 자국의 특화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수요패턴이 자국비교우위가 가장 한계점에 이른 품목 쪽으로 확대될 경우, 수요곡선 $B(z)$ 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특화범위와 수출품목 구성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지만, 수요패턴이 그 반대의 방향으로 확산될 경우 특화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수산물 품목특화의 수요·공급 곡선



2) 경쟁력 측정 지표

(1) 비교우위지수

국제간 비교우위는 당해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지니고 있는 가격 및 비가격 측면에서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각국의 시장이 폐쇄된 상태 하에서 비교우위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WTO의 출범 이후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이 도래한 현 상황에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우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비교우위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지수가 고안될 수가 있다. OECD(1978)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교우위의 개념은 무역수행능력의 측정, 무역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변동 그리고 수출경쟁력과 수입대항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념파악에 따라 구체적인 요인들을 계량화할 수 있어야만 바람직한 비교우위에 대한 지표의 산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고 또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표를 이용하였다. 국제무역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의 도구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무역특화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IITI) 및 상대적 시장집중도지수(Relative Market Intensity; RMI) 등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현시된 비교우위, 즉 무역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alassa⁴⁵⁾에 의하여 고안된 지수이다. 동 지수는 수출시장 점유율을 기초로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가격 및 비가격 요인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서 가격만으로 비교우위를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산업내 무역의 존재로 인하여 동일한 산업이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산업분류 내의 상품이 수출되기도 하고 수입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 또는 순수입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순수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수출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산업 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수출이 비교열위를 가진 상품의 수입을 초과하는 정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다.

45) Balassa, B.,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European Common Market", *Economic Journal*, March 1967.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산업내 무역지수는 상품별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지역별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시장집중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2) 순수출 점유율

산업수준에서의 국제경쟁력은 시장점유율, 가격 및 생산비, 생산성에 의하여 측정되고 있다. 이 중 교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한 산업부문에 있어서 일국의 수출이 세계 총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 경우 세분류된 산업일지라도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만을 고려할 경우 실제의 경쟁력이 왜곡된 수치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순수출(수출-수입)이 더 적합한 지표가 되며, n개의 국가가 있을 때 한 산업부문에서 i국의 순수출점유율(Net Export Share ; NXS)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NXS_i = \frac{X_i - M_i}{\sum_j^n X_j} \quad (3)$$

위 식에서 X와 M은 각각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며, 한 산업부문에서 일국의 경쟁력은 상기 계수의 부호와 크기로 나타난다. 계수의 부호가 정(+)이고 절대값이 클수록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경쟁력에 의한 시장점유율의 측정은 일국의 교역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무역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간편한 방법이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왜곡되기도 한다. 만약 수출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촉진되거나, 수입이 교역장벽으로 인하여 억제된다면 국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실제의 산업경쟁력과 관계없이 과장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

한편 가격의 국가간 비교는 비교적 동질적인 상품의 경우에 효과적인 경쟁력 분석의 기법이 될 수 있다. 한 시점에서의 가격경쟁력은 단기공급함수(Short-term Supply Curve)에 의하여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자료의 제약상 생산비(Cost of Production) 추계치가 이용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산성 혹은 이윤율을 국가간에 비교하여 경쟁력을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격 및 생산성 지표들도 환율, 보호무역정책, 보조금, 가격지지, 시장구조 등에 의하여 그 수치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국내 수산물의 비교우위 분석

1) 분석의 개요

수산물의 비교우위 분석은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IITI) 및 상대적 시장집중도지수(RMI)를 이용하여 먼저 국가별로 수산업 전체 및 어종별, 그리고 지역별 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한다. 분석 대상국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스페인, 태국, 미국 및 홍콩으로 한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출 전략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개별 품목의 비교우위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품목별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미국 및 태국만을 비교 대상국으로 제한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일반적인 무역자료는 해양수산부와 FAO의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 등에서 구하였으며, 상품분류도 FAO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수출 품목별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FAO의 FishSTAT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시계열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수산업 자료의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FAO에의 보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1998년까지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품목별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전체 수산물 비교우위 분석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의 비교우위는 RCA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식(4)와 같다.

$$RCA = \left(\frac{X_i}{W_i} \right) / \left(\frac{X}{W_x} \right) \quad (4)$$

여기서, X_i : 일국의 i 상품의 총수출액, X : 일국의 총수출액, W_i : 세계의 i 상품의 총수출액, W_x : 세계의 총수출액이다.

동 지수는 일국의 총수출에서 특정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 국가의 전세계 수출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그 값이 1보다 크면 특정제품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지만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식(4)에 의하여 측정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한국의 평균 RCA를 살펴보면,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통조림(어류, 갑각류, 연체류)이며, 가장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어류(건조·훈제·염장) 품목이다. 즉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와 통조림 품목은 비교우위에 있는 반면, 어류(건조·훈제·염장)와 갑각류·연체류, 기타 품목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비교우위의 변화 추이에 있어서는 기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들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품목(1995년 0.192에서 2000년 1.566)은 비교우위로 완전히 돌아섰고 다른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들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평균 RCA를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D통조림(어류, 갑각류, 연체류)이며, 가장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어류(건조·훈제·염장) 품목이다. 즉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와 통조림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반면, 어류(건조·훈제·염장)와 갑각류·연체류, 기타 품목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은 기타 품목에서만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더욱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평균 RCA를 보면,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통조림(어류, 갑각류, 연체류)이며, 가장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기타 품목이다. 즉 통조림만 비교우위를 점하고 나머지 품목은 비교열위 품목에 있다. 그러나 기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비교우위의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여진다.

태국의 평균 RCA를 보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통조림(어류, 갑각류, 연체류)이며, 가장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기타 품목이다. 갑각류·연체류 품목과 통조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점하지만, 나머지 품목은 반대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별·품목별 RCA

<표 4-1>

어종	연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미국
어류 (활어, 신선·냉장, 냉동)	1995	1.189	1.036	0.782	0.230	1.535
	1996	1.136	0.991	0.750	0.238	1.494
	1997	1.101	1.099	0.878	0.240	1.439
	1998	1.146	1.129	0.887	0.219	1.339
	1999	1.101	1.056	0.855	0.228	1.301
	2000	1.062	1.091	0.831	0.205	1.359
	평균	1.123	1.067	0.831	0.227	1.411
어류 (건조·훈제·염장)	1995	0.133	0.602	0.872	0.145	0.572
	1996	0.121	0.481	0.469	0.136	0.684
	1997	0.151	0.409	0.629	0.126	0.442
	1998	0.134	0.343	0.554	0.091	0.443
	1999	0.176	0.324	0.520	0.096	0.498
	2000	0.192	0.564	0.605	0.153	0.510
	평균	0.151	0.454	0.608	0.125	0.523
갑각류 연체류	1995	0.781	0.413	1.107	1.660	0.715
	1996	0.801	0.570	0.888	1.635	0.764
	1997	0.843	0.570	0.885	1.470	0.833
	1998	0.897	0.575	0.824	1.461	0.820
	1999	0.741	0.471	0.794	1.375	0.855
	2000	0.812	0.482	0.741	1.399	0.822
	평균	0.813	0.513	0.873	1.500	0.802
통조림 (어류, 갑각류, 연체류)	1995	1.483	2.284	1.632	2.099	0.565
	1996	1.555	2.077	2.229	2.203	0.525
	1997	1.527	1.891	2.084	2.505	0.522
	1998	1.267	1.749	1.912	2.553	0.621
	1999	1.210	1.912	1.958	2.876	0.631
	2000	1.242	1.790	2.138	2.801	0.557
	평균	1.381	1.951	1.992	2.506	0.477
기타	1995	0.192	0.592	0.013	0.007	0.517
	1996	0.197	0.514	0.011	0.014	0.533
	1997	0.201	0.296	0.011	0.012	0.720
	1998	0.285	0.363	0.041	0.095	1.276
	1999	1.798	1.129	0.711	0.080	0.999
	2000	1.566	1.066	0.582	0.092	1.008
	평균	0.707	0.660	0.228	0.050	0.842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 2000. 및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로 계산.

미국의 평균 RCA를 보면,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이며, 반대로 가장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통조림(어류, 갑각류, 연체류) 품목이다. 즉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국의 자국내 품목간의 비교우위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수산물 교역국들은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와 통조림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여타 어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교열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국 중 3개국, 그리고 통조림의 경우는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전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류(건조·훈제·염장)와 기타 제품의 경우는 5개국 모두 비교열위에 놓여있으며, 갑각류, 연체류의 경우는 태국만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각 국가의 전체적인 수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어종이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국가·특정어종의 RCA가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어종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면, 해당 어종에 대한 높은 비교우위는 그 국가의 전반적인 수산업 국제경쟁력과 별 관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2>는 각 어종이 전세계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표이다. 세계 수산물시장에서의 수출 비중은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의 비중이 41.1%로 가장 높다. 그 다음 갑각류, 연체류(30.2%), 통조림(16.9%), 어류(건조·훈제·염장)(5.5%), 기타(5.3%)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 표에 의하면 분석 대상국이 전반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와 통조림의 비중이 58%로 전체 수산물 교역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분석 대상국의 수산업에 대한 비교우위가 여타 국가들과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세계 교역비중이 큰 갑각류·연체류의 경우는 동 국가들의 비교우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어종에 대한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품목별 세계시장 수출 비중

<표 4-2>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평균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	38.8	40.1	41.1	40.6	43.7	42.5	41.1
어류(건조·훈제·염장)	5.2	5.6	5.2	5.5	5.3	4.9	5.5
갑각류, 연체류	31.7	30.6	30.4	28.6	29.2	30.6	30.2
통조림	16.5	17.6	17.8	17.5	17.0	14.8	16.9
기타	4.7	5.3	5.4	4.0	4.8	7.4	5.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3) 수산물의 국가별 비교우위 분석

우리나라 수산물이 세계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교우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적 시장집중도지수를 측정하였다. RMI를 측정하기 위한 계산식은 식(5)와 같다.

$$RMI = [\frac{EX_i}{EX} / \frac{IM_j}{WM}] \times 100 = [\frac{EX_i}{IM_j} / \frac{EX}{WM}] \times 100 \quad (5)$$

여기서, EX_j : 한국 수산물의 j 국가로의 수출액, EX : 한국의 수산물 총수출액, IM_j : j 국가의 수산물 총수입액, WM : 세계의 수산물 총수입액이다.

만약 $RMI > 100$ 이면, 우리나라 수산물이 j 국가의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RMI < 100$ 이면, 우리나라 수산물은 j 국가의 시장에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확한 경쟁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RMI의 시계열 추이가 어떠한 경향을 갖고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경쟁력 측정이 된다.

따라서 <표 4-3>의 국가별 RMI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 수산물은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미국시장에서는 비교열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연도별 RMI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일본시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RMI가 200~300 사이를 움직이면서 안정적 추이를 보이는 반면, 중국시장의 경우는 최근 들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우리나라 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의 국별·연도별 RMI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일 본	257.6	270.7	249.3	256.0	235.0	252.0	248.7	281.4	298.4	292.2
중 국	5.9	4.3	50.7	69.0	22.8	202.8	368.0	395.7	199.4	188.6
태 국	107.9	174.0	208.0	259.0	201.8	161.7	198.9	162.2	129.4	113.7
미 국	59.7	56.9	52.0	42.5	42.9	41.0	33.0	30.9	31.0	30.6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2000.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1.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 4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 시장집중도지수를 보면,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및 태국에 대한 RMI가 모두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1996년부터 RMI가 100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만 이 100 이하로 측정되고 있다.

반면 태국시장의 경우 1994년을 기점으로 RMI가 감소추이에 있어 우리나라 수산물의 비교우위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시장의 경우는 우리나라 수산물이 비교열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대외 경쟁력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원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국가별·제품종류별 산업내 비교우위 분석

RCA를 이용한 국제경쟁력의 분석은 수입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내 무역의 규모가 클 경우에 국제경쟁력을 왜곡하여 측정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별·제품종류별 산업내 무역지수를 산출하였다. 무역특화지수(ITI)의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식(6)과 같다.

$$ITI = \left(\frac{X_i - M_i}{X_i + M_i} \right) \quad (6)$$

여기서, X_i : i 상품 수출액, M_i : i 상품 수입액이다.

무역특화지수(IITI)는 특정상품의 순수출을 해당상품의 총 무역액으로 나누어 구해지는 것으로, 그 값이 양(+)의 값이면 수출특화로, 음(-)의 값이면 수입특화로 그리고, +1이면 완전수출특화이며, -1이면 완전수입특화라고 할 수 있다.

식(6)에 의한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어류(활어, 신선·냉장, 냉동)의 IITI 평균값을 보면 중국(0.369)과 한국(0.040)만 동 제품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태국(-0.119), 미국(-0.224) 및 일본(-0.913)은 전부 비교열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CA 분석의 결과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RCA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일본, 미국이 동 제품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일본, 미국은 동 제품을 많이 수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입도 많이 하는 반면, 중국은 수출에 비해 수입을 더 적게 하기 때문에 IITI의 결과가 RCA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오직 우리나라의 경우만 RCA와 IITI의 평균이 비교우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 이후의 IITI가 부(-)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열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경우 IITI의 값이 -1에 가깝게 나와 동 제품의 수입이 수출에 비하여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수산물 소비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여타 수산물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어류(건조·훈제·염장)의 IITI도 RCA의 분석결과와 대단히 상이하여, 태국(0.854), 중국(0.488), 한국(0.123)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0.256), 일본(-0.888)은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CA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5개국 모두 비교열위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 제품 역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비교열위로 전환되어 비교우위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갑각류, 연체류의 평균 IITI를 보면 태국(0.816), 중국(0.589), 한국(0.287)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0.690), 일본(-0.959)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CA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면 태국의 경우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 결과가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RCA의 값이 0.8을 상회했었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역시 수출에 비하여 수입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국별·품목별 IIIT

구 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미국
어류 (활어, 신선·냉장, 냉동)	1995	0.191	-0.922	0.390	-0.099	-0.084
	1996	0.061	-0.992	0.389	-0.116	-0.138
	1997	0.010	-0.886	0.472	-0.175	-0.243
	1998	0.214	-0.882	0.344	-0.250	-0.370
	1999	-0.063	-0.904	0.366	-0.153	-0.314
	2000	-0.169	-0.893	0.251	-0.095	-0.316
	평균	0.040	-0.913	0.369	-0.119	-0.244
어류 (건조·훈제·염장)	1995	0.400	-0.900	0.693	0.832	-0.136
	1996	-0.025	-0.917	0.385	0.851	-0.046
	1997	0.078	-0.885	0.494	0.886	-0.336
	1998	0.214	-0.883	0.449	0.895	-0.394
	1999	0.334	-0.903	0.448	0.826	-0.304
	2000	-0.263	-0.841	0.457	0.833	-0.319
	평균	0.123	-0.888	0.488	0.854	-0.256
갑각류 연체류	1995	0.370	-0.974	0.694	0.860	-0.635
	1996	0.193	-0.963	0.624	0.846	-0.634
	1997	0.200	-0.949	0.688	0.822	-0.690
	1998	0.536	-0.952	0.634	0.811	-0.745
	1999	0.251	-0.961	0.530	0.777	-0.701
	2000	0.174	-0.957	0.365	0.780	-0.728
	평균	0.287	-0.959	0.589	0.816	-0.690
통조림 (어류, 갑각류, 연체류)	1995	0.627	-0.788	0.975	0.985	-0.496
	1996	0.529	-0.805	0.991	0.988	-0.570
	1997	0.504	-0.776	0.991	0.989	-0.647
	1998	0.750	-0.785	0.990	0.993	-0.682
	1999	0.628	-0.793	0.986	0.992	-0.679
	2000	0.486	-0.817	0.993	0.977	-0.723
	평균	0.587	-0.794	0.988	0.987	-0.633
기타	1995	-0.469	-0.903	-0.989	-0.977	0.318
	1996	-0.509	-0.893	-0.994	-0.955	0.226
	1997	-0.454	-0.921	-0.995	-0.908	0.277
	1998	-0.250	-0.925	-0.972	-0.180	0.394
	1999	0.443	-0.840	-0.570	-0.701	0.061
	2000	0.330	-0.808	-0.690	-0.636	0.065
	평균	-0.152	-0.882	-0.868	-0.726	0.224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 2000. 및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통조림의 IITI 분석결과는 RCA의 분석결과와 비교적 유사하다. 일본(-0.794)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분석결과는 전부 일치하기 때문이다. 태국(0.987), 중국(0.988), 한국(0.587)이 동 제품 종류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태국과 중국의 IITI 값이 1에 가까워서 그 비교우위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국가의 경우 수입은 거의 없고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수산물의 IITI를 살펴보면, 미국(0.224)만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0.152), 태국(-0.726), 일본(-0.882) 및 중국(-0.868) 등은 전부 그 값이 음수로 나와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동 결과는 RCA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분석 대상국들은 동 제품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품목별 국제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대상품목은 우리나라 대일 수출 10대 품목 중에서 자료가 가용한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4-5> 참조).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RCA를 보면 봉장어, 캐비아, 굴, 참치의 순서로 국제경쟁력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봉장어(10.8)와 캐비아(10.8)의 RCA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TI를 보면, 넙치(0.97), 참치(0.94), 굴(0.91)의 순서로 국제경쟁력이 높다. 이 중에서 상위 4개 품목의 지수값이 분석기간 동안에 대체로 0.9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동 품목의 수출에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봉장어는 1999년 이후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 지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넙치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대체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RCA와 IITI의 값이 모두 높은 굴, 캐비아, 참치의 국제경쟁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국가별 특징을 보면 일본은 전 제품종류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은 RCA 분석결과 일부 제품종류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었지만 IITI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제품종류에 대하여 비교열위를 지니고 있다. 일부 제품종류는 그 값이 -1에 근접해 있어서 비교열위의 강도가 대단히 큰 편이다. RCA와 IITI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도 전반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 국가별로 많아야 한 두 개의 제품종류에 대해서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표 4-5>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품목별 국제경쟁력 지수

구 분	품 목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RCA	넙치	0.01	0.34	0.62	0.52	1.06	0.10	0.18
	캐비아	1.31	9.09	79.21	7.87	7.88	5.64	10.80
	붕장어	21.79	28.01	25.64	34.58	36.36	8.64	10.80
	굴	13.78	21.25	22.56	23.76	26.28	18.72	21.75
	참치	2.52	1.98	2.31	2.23	2.10	2.33	2.55
IITI	넙치	-0.97	-0.74	-0.66	-0.40	-0.31	0.88	0.97
	캐비아	0.96	0.98	0.98	0.94	0.91	0.91	0.91
	붕장어	0.95	0.93	0.83	0.98	0.97	-0.94	-0.91
	굴	0.98	0.94	0.91	0.89	0.99	0.99	-0.91
	참치	0.96	0.94	0.96	0.86	0.94	0.97	0.94

자료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2.

반면 RCA의 분석과는 상이하게 IITI의 분석은 한국, 중국, 태국이 많은 제품종류에서 대체로 큰 폭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기타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종류에서 전부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비교우위의 강도가 우리나라보다 큰 편이다. 태국은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와 기타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종류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 제품종류의 비교우위 강도는 역시 우리나라보다 강한 편이다.

3. 주요경쟁국과의 수산물 수출경합도 분석

수출경합도지수는 비교대상 국가의 수출상품 구조가 유사할수록 양국간 경쟁의 정도가 높다는 전제 하에 특정시장에 있어서 비교대상 국가간의 수출상품 구조가 유사한 정도를 지수화하여 경합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수출경합도지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수출경합도(ECI)} = \sum \text{Min} [X_i(AC), X_i(BC)] \quad (7)$$

단, $X_i(AC)$: A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 의 비중이며, $X_i(BC)$: B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 의 비중이다.

수출경합도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C국가 시장에서 i 품목에 대하여 A국가와 B국가간의 경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특정 국가간의 경쟁지수만을 제공할 뿐 여타 국가들과의 상대적 경쟁정도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요 수출시장을 일본만으로 한정하고,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주요국가의 품목별 수입점유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 경쟁국간의 경합도를 측정하였다.⁴⁶⁾

1) 분석범위

분석대상의 수출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수출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대상 국가는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을 선정하였다.

<표 4-6> 수산물 수입 점유율 분석 범위

분석자료	일본 수산물수입통계(1995~2000년)
분석대상 국가	주요 수출시장 : 일본 주요 경쟁국 :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5개국)
분석대상 품목	4단위 :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1212, 1604, 1605류 9단위 : ① 0301-99-290 (0301-99-210 이외의 기타어류 : 0301-99-5000) ② 0303-42-000 (황다랭이 냉동 : 0303-42-0000) ③ 0303-49-020 (눈다랭이 냉동 : 0303-49-1000) ④ 0304-20-099 (기타 어류 피레트 : 0304-20-9000) ⑤ 0307-10-100 (산것·신선·냉장 또는 냉동 굴 : 0307-10-1090) ⑥ 0307-91-460 (바지락 : 0307-91-1800) ⑦ 0307-91-470 (신선 대합 : 0307-91-1500) ⑧ 1212-20-131 (투스신선, 냉장, 냉동 및 건조 : 1212-20-3010) ⑨ 1604-20-020 (잘게 썰어 저장처리한 어류: 1604-20-9000) ⑩ 1604-30-090 (캐비아, 캐비아 대용물 : 1604-30-2000)

주 : 세부 HS 9단위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상위 15개 품목을 선정한 후, 그 중 일본의 품목기준에 맞추어 유사한 10개 품목을 선정함.

46) 주문배 외, 전게서, pp.93~94.

그리고 분석대상 품목은 일본의 HS품목 기준에 따라 4단위 품목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으며, 세부 HS 9단위 품목별 경쟁력 분석을 위해 2000년도 기준 우리나라 대일 수출 상위 15개 품목을 선정한 후, 그 중 일본의 품목기준에 맞추어 유사한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표 4-6>참조).

2) 분석방법

수출경합도는 특정시장 J 국에서 경쟁국(I)간의 품목별(H) 수입시장 점유율을 한국의 수출로 가중평균함으로써 한국과 경쟁국간의 경합도(경합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계산식은 다음의 식(7)과 같다.

$$C_I = \sum_J \sum_H \left(\frac{E_{IJ}^H}{M_J^H} \right) \times \left(\frac{E_{KI}^H}{E_K} \right) \quad (7)$$

C_I = I 국의 한국(K)과의 경쟁도(경쟁지수)

E_{IJ}^H = I 국의 J 국에 대한 H 품목의 수출

M_J^H = J 국의 H 품목의 대경쟁국 총수입(한국 제외)

E_{KI}^H = 한국(K)의 J 국에 대한 H 품목 수출

E_K = 한국(K)의 총수출

3) 분석결과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본시장에서의 품목별·국별 경합도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7> 및 <부표 1>과 같다. 5개 경쟁국가의 평균 경합도는 0.20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1995년도 0.462에 비해서는 다소 경합도가 약화되었으나, 1999년부터 다시 경합도가 높아져 2000년에는 0.415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과는 1996년 0.345를 기점으로 점점 약화되어 2000년에는 0.275로 다소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도 매년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경합도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품목별 경합도지수는 0301류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합도가 매년 매우 치열해지고 있으며, 0302류는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와의 경합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0303류는 미국과 경합도가 가장 심하며, 러시아와도 경합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0304류는 현재 미국과 경합도가 가장 심한데, 태국·중국과의 경합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0305류는 1995년도에는 미국과 가장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306류는 러시아·태국과 경합도가 치열하며, 0307류는 중국·태국이, 1212류와 1604류는 중국, 1605류는 중국·태국과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품목별(4단위)·국별 경합도(2000년도)

국가 \ 품목	전체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1212	1604	1605
중국	0.415	0.927	0.391	0.098	0.317	0.473	0.111	0.436	0.947	0.744	0.451
미국	0.275	0.026	0.162	0.545	0.332	0.458	0.061	0.182	0.034	0.106	0.006
러시아	0.133	0.000	0.027	0.331	0.025	0.030	0.355	0.068	0.005	0.008	0.020
태국	0.136	0.009	0.041	0.003	0.306	0.018	0.141	0.301	0.006	0.094	0.426
인도네시아	0.041	0.038	0.379	0.023	0.020	0.021	0.331	0.014	0.008	0.048	0.097

주 : 1) 경쟁국가간의 경합지수의 합은 1.0임.

2) 경쟁국의 평균경합도가 0.20임을 감안할 때 경쟁도가 0.20 이상일 경우 경합이 치열, 0.40 이상일 경우 경합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평가됨.

그리고 HS 9단위 기준의 품목별·국가별 경합도의 분석결과는 <표 4-8> 및 <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쟁정도를 살펴보면, 주요 10개 품목 중 ⑩ 1604-30-090(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 1604-30-2000)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① 0301-99-290(0301-99-210 이외의 기타 어류 : 0301-99-5000), ⑥ 0307-91-460(바지락 : 0307-91-1800), ⑧ 1212-20-131(툰 신선·냉장, 냉동 및 건조 : 1212-20-3010)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두 국가간의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0303-42-000(황다랭이 냉동 : 0303-42-0000), ③ 0303-49-020(눈다랭이 냉동 : 0303-49-1000)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최근 중국과의 경쟁 정도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주요품목별(9단위)·국별 경합도(2000년도)

국가 \ 품목	전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중국	0.755	1.000	0.394	0.692	0.707	0.839	1.000	0.962	1.000	0.427	0.103
미국	0.028	0.000	0.000	-	0.031	0.161	-	-	-	0.235	0.234
러시아	0.001	-	-	-	0.003	-	-	0.038	-	0.002	0.663
태국	0.006	-	0.012	0.005	0.209	-	-	-	-	0.261	-
인도네시아	0.209	-	0.595	0.304	0.050	-	-	-	-	0.075	-

주 : 1) <표 4-7>과 같음.

2) <표 4-7>과 같음.

3) <표 4-6>의 분석대상 품목 9단위 품목(①~⑩)임.

4.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점유율 분석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추세가 둔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주도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불변시장점유율 분석(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출성장과 무역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의 주된 가정은 세계시장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정한 점유율에 의한 수출성장과 실제성장의 차이는 그 나라의 경쟁력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은 주로 경쟁력 분석에 사용되었다.

불변시장점유율 분석모델은 세부품목별 시장점유율의 변동을 경쟁력 변화의 결과로 보고 이를 세 부분으로 요인을 찾고 있다. 즉 수출성과의 변화를 첫째, 수출국의 경쟁력(가격 및 비가격) 요인, 둘째, 상품구조 요인, 셋째, 수입국의 수요 요인으로 분해한 후 경쟁력 요인의 추이를 통해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1) 분석범위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5년부터 1999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분석대상 시장 및 경쟁국가, 품목은 앞서의 수입점유율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CMS 모델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은 <표 4-9>와 같다.

<표 4-9>

CMS 모델의 분석기준

구 분	분석기준
수출국의 경쟁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에서의 시장점유율(HS 4단위 기준) 변화를 경쟁력 변화로 간주 -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이 1997년 2%에서 1998년 1%로 줄었다면 점유율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경쟁력 약화로 야기된 수출감소액으로 봄 - 수출증감액이 마이너스이면 동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
상품구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의 품목별 수입비중의 변동에 따른 수출증감액 - 특정품목의 경쟁력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당해품목의 수입비중이 상승하면 동 품목의 수출 증가 - 이는 수입국의 수입상품구조별 수요증가율 격차와 수출국의 수출공급 구조와의 정합성(Matching)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동 효과가 +이면 수입국에서의 수요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주로 수출함을 의미하며, 수출상품구성이 타국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의미
수입국의 수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의 경쟁력 요인과 상품구조 요인을 제외한 잔여분으로 수입국의 총수입 규모 변동에 따른 요인

2) 분석방법

분석절차는 첫째, HS 4단위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한 품목별 수출증감액 계산, 둘째, 계산된 수출증감액을 경쟁력 요인, 상품구조 요인, 수입국의 수요 요인으로 분해한 후, 셋째, HS 4단위로 계산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4단위 품목별로 수출액의 변동을 3개 요인으로 분해한다. 분석을 위한 모델은 다음 식

(8)과 같다. 즉

$$\begin{aligned}\Delta E^t &= \sum_i (E_i^t - E_i^{t-1}) \\ &= \sum_i M_i^t \Delta w_i^t + \sum_i w_i^{t-1} M^t \Delta \alpha_i^t + \sum_i w_i^{t-1} \alpha_i^{t-1} \Delta M^t \quad \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8)\end{aligned}$$

단, $w_i^t = \frac{E_i^t}{M_i^t}$ = 일본의 i 품목 수입액 중 한국의 i 품목 점유율,

$\alpha_i^t = \frac{M_i^t}{M^t}$ = 일본의 수산물 총수입액 중 i 품목 수입비중,

Δ = t 기와 $t-1$ 기의 변동

이 때, $\sum_i M_i^t \Delta w_i^t$ = 상품구성 요인, $\sum_i w_i^{t-1} M^t \Delta \alpha_i^t$ = 경쟁력 강화 요인,

$\sum_i w_i^{t-1} \alpha_i^{t-1} \Delta M^t$ = 수요 요인을 각각 의미한다.

3) 분석결과

CMS 모델을 통해 1996년부터 1999년 기간중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수출 변동 요인을 분석해 보면 <표 4-10>과 같다. 경쟁력 요인 및 상품구조 요인은 대일 수출에 플러스로, 수요 요인은 마이너스로 작용하였다. 동 기간중 수출증감액은 1억 6,700만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보면 경쟁력 요인은 3억 3,900만달러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상품구조 요인은 1,200만달러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수요 요인은 1억 8,400만달러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수산물의 대일 수출증가는 대부분 경쟁력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연도별 대일수출 증감요인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996~1999년
경쟁력	319	-91	99	12	339
상품구조	4	-7	8	4	12
수요	-41	-100	-182	139	-184
수출증감액	282	-198	-75	155	167

연도별 추이를 보면 경쟁력 요인은 1997년 수출감소 요인으로 전환되었다가, 1998년 수출을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999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요 요인은 1998년까지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999년에는 수출증가 요인으로 전환하여 1999년의 수출증가 요인은 일본의 총수입규모 변동에 의한 수요 요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목별 수출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경쟁력 요인은 0303류의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상품구조 요인은 0301류와 0302류를 제외하고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요 요인에 있어서는 모든 품목이 수출감소 요인으로 나타났다.

4단위 품목별로 요인을 분석해 보면, 0301류는 경쟁력 요인에 의한 수출증가액이 3,200만달러로 나타났으며, 0302류는 모든 요인이 수출감소 요인으로 나타났고, 0303류는 경쟁력 요인이 3억 200만달러로 수출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0304류는 수요 요인에 의해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0305류와 0307류는 모든 요인들이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 0306류는 상품구조 요인이, 1212류는 경쟁력 요인이, 1604류와 0605류는 수요 요인이 수출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11>

품목별 수출증감요인 변동 추이

단위 : 천달러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996~1999년	
0301	경쟁력	-6,992	2,218	6,999	29,388	31,613
	상품구조	-3,327	6,092	4,373	-8,799	-1,661
	수요	-3,160	-4,841	-11,131	9,253	-9,880
	합계	-13,479	3,469	241	29,842	20,073

품목별 수출증감요인 변동 추이(계속)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996~1999년	
0302	경쟁력	-15,878	-1,030	3,973	7,857	-5,079
	상품구조	-3,830	448	1,676	-230	-1,936
	수요	-2,000	-1,975	-3,829	3,441	-4,363
	합계	-21,708	-2,558	1,821	11,067	-11,378
0303	경쟁력	346,264	-2,724	35,268	-76,738	302,071
	상품구조	3,795	-23,405	8,387	48,790	37,566
	수요	-1,682	-31,963	-58,957	46,546	-46,056
	합계	348,377	-58,092	-15,302	18,598	293,581
0304	경쟁력	3,900	-13,086	13,859	-6,487	-1,814
	상품구조	-5,346	24,687	-15,757	13,988	17,573
	수요	-5,013	-8,914	-19,830	13,192	-20,565
	합계	-6,459	2,687	-21,728	20,694	-4,806
0305	경쟁력	758	-6,469	2,294	1,189	-2,228
	상품구조	760	-2,734	-246	-65	-2,285
	수요	-518	-1,058	-455	614	-1,417
	합계	1,001	-10,261	1,592	1,738	-5,930
0306	경쟁력	-1,065	93	2,464	2,911	4,404
	상품구조	-1,646	-255	399	-1,903	-3,405
	수요	-878	-1,359	-2,676	2,244	-2,669
	합계	-3,589	-1,520	187	3,252	-1,670
0307	경쟁력	-24,247	-28,053	48,466	-18,340	-22,174
	상품구조	14,077	-28,931	8,958	-601	-6,497
	수요	-13,090	-22,744	-35,066	32,357	-38,543
	합계	-23,260	-79,728	22,358	13,416	-67,214
1212	경쟁력	-12,478	-9,228	6,036	-10,873	-26,542
	상품구조	-4,526	8,647	7,447	2,340	13,908
	수요	-5,050	-7,693	-15,215	12,341	-15,617
	합계	-22,054	-8,274	-1,731	3,809	-28,250
1604	경쟁력	-3,347	-27,317	2,062	23,647	-4,955
	상품구조	13,915	10,656	-6,980	-7,048	10,544
	수요	-6,093	-11,852	-20,611	13,274	-25,281
	합계	4,475	-28,513	-25,528	29,873	-19,693
1605	경쟁력	19,240	-12,627	-27,490	15,736	-5,142
	상품구조	3,377	4,618	4,423	998	13,416
	수요	-3,221	-7,672	-13,840	5,978	-18,755
	합계	19,396	-15,682	-36,906	22,711	-10,481

5. 국제경쟁력 분석의 종합

일본수산물 수입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주요 경쟁국들과 대비하여 한국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RCA, IITI, RMI, 수출경합도지수 등을 활용하여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 수산물의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틀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산물 제품종류별 무역특화 수준에 있어서, 통조림의 경우 한국, 중국, 태국 등이 비교우위에 있고, 미국은 비교열위에 있다는 점이다. 갑각류·연체류 및 어류(건조 등)의 경우는 일본, 미국, 스페인이 비교열위에 있어서 순수입량이 많았으며, 태국은 어류(활어등)에 있어서 분명한 비교열위를 보여 순수입이 더 많았다.

둘째, 한국 수산물이 주변의 어떤 경쟁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RMI로 측정한 결과, 한국 수산물은 일본, 중국, 태국의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시장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였다.

셋째, 한국 수산물이 일본 수입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주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수출경합도지수로 측정한 결과,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태국 등과는 경쟁관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수산물의 대일수출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6~1999년 기간중 일본시장의 수요침체로 대일 수출감소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국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대일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였고 일본의 수산물 수입품목 구성 변화도 대일 수출 증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일본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우위의 원천이 경쟁력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우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태국 등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산물 공급기반의 강화와 더불어 차별화된 품질 비교우위의 확보와 수출 전략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제 5 장 수산물 무역구조의 고도화 전략

1. 기본방향

앞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수산물 무역구조를 비교, 정태분석 혹은 동태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국내외 자료의 한계로 분석 대상기간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못함으로써 일부 분석의 결과는 유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가 현실을 보다 확대 또는 축소하여 도출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목적이 매우 정밀한 수치를 이용하여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기보다는 한·일간의 전반적인 무역흐름과 변화의 요인을 찾아서 양국간 수산물 수출입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지닌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분석결과는 각 장별로 종합하고 그 정책함의를 각 장의 말미에 절로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의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한·일간의 수산물 무역구조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첫째, 일본 국민의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일본 수산물시장 경쟁국가들과의 경쟁구조를 감안하여 수산물 무역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둘째, 국내 어업생산구조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산물 공급기반을 정비·강화해 나가야 하며, 셋째, 장기적인 국제비교우위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넷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한·일간의 수산물 수출입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 두고자 한다.

2.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첫째, 수출상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 둘째, 해외수요 변화에 대응한 수출주도 상품의 지속적 개발, 셋째, 어민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내수시장의 확대, 넷째, 동북아 역내 국가의 국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수산물 수출의 경쟁전략은 종래 인건비의 비중이 큰 노동집약적 상품 생산을 통한 가격 비교우위의 전략에서 향후에는 자원절약적이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통한 품질 비교우위 전략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적 향상을 통한 품질의 비교우위 확보가 중요하다.

수출 수산상품의 품질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수출상품 중선어는 원형 및 저차가공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원료어의 처리, 포장, 수송기술을 고도화하여야 하며, 원료어의 처리는 어획 후 어체의 변질이나 성분의 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어장과 양륙항과의 원격성, 수산물의 부패·변질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산물 수송기술의 고도화는 중요한 과제로서 수송과정에서의 생존율 향상과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기술개발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양식수산물은 생산과정에서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종묘의 생산확보와 양성관리의 전문화를 촉진하여야 하며,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수산상품의 질적 개선과 아울러 수산물 소비의 편리성·간편성 등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변화에 부응하고, 제품의 표준화, 제품의 등급화 등 제품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일본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점차 소량구매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상품구매에 있어서도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고 있어 소포장 및 개성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강화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이 부패성, 잔류물질 허용기준(항생제, 공해물질 등)의 준수 여부, 기생충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위해 미생물의 함량, 화학물질 오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위해성, 새로운 제조·포장·유통기법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위생검사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수산물의 제품안전성 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새로운 수출상품의 지속적 창출

향후 수출전략은 국내 소비가 크고 가격이 낮은 품목은 적절한 수준에서 수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해외 수요가 큰 품목은 적극적으로 수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은 여전히 냉동 원형어류나 신선·냉장 패류의 비중이 높다. 이들 품목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앞의 분석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품목의 일본시장에서의 비교우위와 경쟁국과의 수출경합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주도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소비자들의 외식화, 국제화, 레저화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즉석식품 혹은 간편식품의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미(냉동고기푼), 어육연제품, 맛살, 어단, 조미오징어, 어육 피레트, 조미패류, 어육분말스프, 해조분말 등의 재료, 소재 및 제품과 이를 이용한 즉석식품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일본인의 수산물 선호체계가 생체방어기능 및 조절기능을 강조하는 건강식품 선호로 전환됨에 따라 연제품을 원료로 한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능성 식품의 경우 그 자체를 식품으로 소비하기는 어려우나 유용성분을 적당량 함유하는 일상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고차가공기술의 개발과 국내 관련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수출주도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수출 공급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품목의 소량생산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형태로 중소 수산가공산업 육성이 바람직하다. 수산가공 중소기업은 전문화된 상품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설립자금의 지원과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의 지역내 유보를 위한 지연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3)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시장의 구조는 일본시장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하여 일본의 국내여건 변화, 특히 연화 환율의 변동, 일본의 재고량과 생산량, 기타 외생적 요인에 종속적이다. 따라서 시장다변화는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시장다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해외소비자의 기호,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 수출경쟁관계 등의 시장조사와 정보수집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업의 수출 전략에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별 혹은 국가별 특화상품 개발을 통해 해외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수산박람회의 참여 및 개최 확대, 시장개척단의 파견, 주요 해외시장별 수출 수산물 특판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의 수산식품이 국제 수산물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의 확대와 국내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유도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장기적인 대외경쟁력을 배양하고, 해외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의 확대와 이의 활용이 요구된다. 내수의 확대는 수산물 수출의 일본시장 의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외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동북아 수산물 국제 분업체제 구축

동북아지역의 역내 수산물 생산과 무역의 연계를 통한 수산물 수급의 안정화와 생산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어업 관리체제 및 분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중·일 3개국의 어업자원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무역질서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3국은 수산경제의 기본 생산체제가 이질적이고 발전단계도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수산업의 성장·발전이 이미 성숙기를 넘어 조정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국내 경제의 개방에 따라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숙단계에 있다. 일본은 이미 수산업의 구조조정이 완결된 안정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역수산경제체제나 어업관리체

제를 무역과 연계시켜 보다 합리적인 광역 해양생태적 자원 및 어업생산관리를 달성하고, 동시에 무역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최근 일본에 의하여 창안된 바가 있다.⁴⁷⁾

둘째, 극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시장에서 중국의 저차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수산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신장되고 있고, 일·북한간 저차상품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상품 구성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시장인 일본시장 지향적인 극동아시아 권역(한국, 일본, 대만, 중국, 북한)내 수산식품의 제품차별화를 위한 수직적 분업체계를 주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산물 Hub시장을 통한 국제 거래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시장의 국제화와 WTO의 영향으로 국제 수산물교역은 질과 양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국제 수산물교역의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수산교역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기반을 이용한 물류중심기지로서 부산감천항을 동북아 Hub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Hub시장에는 관세부과 유보상태에서 수입물품의 보관, 집배송, 가공제조, 판매 등의 종합적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수산물 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산물종합보세구역을 설정하여 One Stop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과 국내 어획물 등에 대해 단순중계가 아닌 가공·포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하여 동북아 중심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양륙 및 반출기능과 식품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보증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수산물 종합거래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3. 수출 공급기반의 확충

수산물 수출의 기초는 경쟁력 있는 국내의 수산물 생산력이다. 저비용 고품질의

47) APEC 자원관리 분야에서 일본이 자원관리와 무역제한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참치의 경우 자원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참치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참치의 국제무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임.

생산능력을 가져야 시장개척도 가능하고 지원도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국내 공급기반의 확대는 자원제약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국내 소비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처럼 ‘수산물은 수출산업으로서 해외시장 개척만이 수산업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증산정책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고려할 때 수산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 수산물 수출상품의 공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증산정책이 아니라 국내 수산업 생산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물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공급능력의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연근해어업의 생산구조를 장기지속 가능한 어업체제로 전환하되 경쟁력을 지닌 어종의 자원증식과 품종 확대를 추진하며, 둘째, 양식어업은 인위적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셋째, 원양어업은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선생력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1) 연근해어업의 적정자원관리체제 구축

연근해 어로어업부문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생산된 수출상품은 일본시장 의존도가 매우 크다. 또한 일본의 수입할당 대상이 되는 상품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생산량이 수출공급의 가장 큰 결정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근해 어로어업부문의 수출 공급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지속적 어업생산 증대가 가능한 적정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근해어업 자원재생력의 회복 및 향상을 위한 자원조성관리를 고도화하여야 한다. 자원조성기술은 현재 인공종묘기술이 확립되어 있는 정착성 및 준정착성 어종과 미확립된 수출유망 어종에 대해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한편 인위적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은 어종별 생태를 고려, 인공종묘 방류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어종을 개발 투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사업시행 및 민간부문의

로의 전환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정균형점을 상회한 어업의 어선세력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선세력 조정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원량과 어획노력량의 불안정 균형상태가 지속되어 자원량 감소가 누적되고 자원고갈 상태에 의한 자원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자원관리 수단인 어선세력을 감축하여 어획능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어선세력의 감축은 단기적으로는 수출공급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재생능력의 회복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게 됨으로써 수출 공급확대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것이다.

2) 수출전략 양식품목의 중점 육성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패류, 해조류는 대부분 양식부문에 공급되고 있다. 양식부문의 수출은 일본시장 의존도가 거의 모든 품목에서 100%에 이르고 있어 공급량 조절이나 수출가격 결정에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혹은 과소생산의 문제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근년에 이르러 양식기술의 국가간 보편화 현상으로 인한 중국의 양식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본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의존적 일본 수입시장의 점유율 유지와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첫째, 양식품목의 전략적 분류와 선별적 육성, 둘째, 지역별 특화 양식품목의 조정, 셋째, 어장이용의 적정화와 우량어장 확보, 넷째, 소비자의 신뢰성에 부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수출가능 양식품목의 전략적 분류 및 선별적 육성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수준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양식품목군의 전략적 분류와 선별적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양식수산물의 전략품목군 분류는 전체 양식수산물에 대한 생산증대품목, 생산조정품목, 수입대체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상 양식품목과 육성방안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수출가능 양식품목의 전략적 분류 및 육성방안

<표 5-1>

구분	분류기준	대상품목	육성방안
생산 증대 품목	현재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산증대가 요망되는 품목	넙치, 굴, 피조개, 전복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기술 고도화 추진 - 생산단지 조성 및 우량어장 확보 -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생산체계 수립
생산 조정 품목	현재 경쟁력은 있으나 국내외 수요의 감소 및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품목	우럭, 김, 미역, 톳	- 어장이용의 적정화 - 대체작목 개발 유도 - 어장이용제도의 개선
수입 대체 품목	국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경쟁력이 뛰어나 기술진보가 빨라 곧 경쟁력을 갖출 품목	가리비, 새우	- 종묘생산기술 등 양식기술의 개발·보급 - 생산성 제고

(2) 수출 전략품목의 지역별 차별화 및 규모경제 실현

어장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식어업의 능률화 및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양식품목의 지역별 재조정을 통해 특화품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식생산의 지역특화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은 생산 입지 조건 내에서 각 해역에서의 유리한 전문화가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 조건과 지역어민의 양식기술 수준,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 고려된 적지적작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화품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특화품목의 선정을 위한 지표는 상대어장면적 비율, 어장생산성 등의 특화계수 뿐만 아니라 각 품목의 국내외 수급, 수입자유화의 영향, 해당적지의 대체품목에 대한 정보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화품목 육성의 공간적 체계는 물적비용의 절감과 어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지화가 필요하며, 특화단지별 생산·유통·가공·가격·수급 등에 관한 종합정보 수집과 생산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어업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3) 환경수용력 및 수급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절

양식어장의 환경수용력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양식어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양식어장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수출유망 품목의 어장실태 및 기초환경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해 주요 해역별 환경수용력을 산정하여 양식어장을 재배치하고, 과잉생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급 불균형 및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위적 생산조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수산물시장 상황에 따라 양식어민들이 스스로 양식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에 관한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관측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안정적 어업경영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4) 환경친화적 양식어업 기반의 강화

해양오염 및 장기 연작으로 인하여 저하된 양식어장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의 개선 및 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 개발 및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어장정화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양식폐기물 집하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어장을 보전하고, 어장관리법에 의해 어장관리특별해역 내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어장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어장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생사료 대체 고품질 배합사료의 개발·보급과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품질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원양어업의 어선생력화

1980년대의 EEZ 체제의 정착과 UN해양법 발효로 인한 원양어장의 상실과 연안 자원 보유국 어장의 입어제한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원보유 선진국의 어업자국화 정책에 의한 생산확대와 후발 수산국의 가격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 수출로 인하여 우리나라 원양어획물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원양어업 생산 및 무역조건 하에서의 경쟁전략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선생력화를 통한 효율적인 어업생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어선은 어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경제성 어선의 확보는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원양어업은 외국 어선과 경쟁조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획성능의 우수한 어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양어선의 생력화는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부문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특히 어획장비, 어로방법의 개선은 어선의 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어선의

노후화는 이들 부문의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원양어업은 조업해역과 양륙항의 원격성으로 인하여 어획된 수산물의 선상처리와 수송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품질고급화의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시설현대화와 작업환경의 개선 및 선원의 작업기술 고도화가 관건이다.

4. 수산물 무역촉진을 위한 성장동력의 강화

1990년대 중반에 타결된 UR협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WTO 체제의 출범,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 등 새로운 경쟁구조 속에서 장기간 누적되어 온 수산물 무역의 구조적 장애를 극복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수산정책이 주로 직접적인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됨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수산물 무역의 패러다임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의 동력으로서 광범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수산가공산업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적합한 제도의 개선 등 수산물 교역의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수산물 종합무역정보 체계 구축

세계적인 개방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상품교역의 최고 비교우위 요소가 정보이다. 따라서 세계 수산물의 수급상황과 경쟁국가의 수산물 생산·소비·가격 등의 시장정보 및 새로운 제품생산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산물 교역에 관한 해외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인 ‘수산물 수출조합’은 수출수산물 추천과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고상태, 가격 등 극히 제한적인 단기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무역협회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일부 수집·발표하고 있으나 매우 단편적인 자료의 제공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계 수산물 무역과 관련된 정보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가공원료의 저장, 수송, 가공량, 필요인력, 가공시간, 신선도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량 조절을 통한 수취가격의 제고와 수출업자의 합리적 구매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국내 수산물 생산·시장정보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관측 및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공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의 강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간접지원 방식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양한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 연구체제를 확립하여 고부가가치의 신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하여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설과 운전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가공식품 개발에 참여한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둘째,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하되, 수산물 가공업체의 급격한 비용증가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HACCP 표준모형을 개발·지원함과 동시에 HACCP 적용업체에 대해 시설현대화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셋째, 소규모 가공업자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공업자간 상호 원료공급체계의 구축과 수입원료에 대한 공동구입할당 확보 및 가공업자간 연대에 의한 원료의 공동구매체제를 도입한다.

넷째, 국내외 수산식품의 차별화된 품질유지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수산물품질인증제도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운영자금 지원시 품질인증업체에 우선 배정하며, 아울러 수산물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확대·발굴과 더불어 인증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3) 자금 및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1) 수산보조금 정책의 전환

무역 왜곡적 또는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WTO/DDA 보조금 협상에서 축소 또는 철폐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자원조성

및 일반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며, 예상되고 있는 보조금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업인 자생력 강화사업에 대한 투자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 확대

금지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에 대한 금지보조금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금리우대는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자유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용대출 활성화, 신용보증기금 확충 및 무역어음 인수한도 폐지 등으로 가용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 중 금리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재정정책자금의 운용은 일반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자금으로 흡수하여 보조금적 성격을 가급적 희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중복자금 등 운영상의 문제소지가 많은 각종 기금을 통폐합, 담당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수출금융지원 방식의 전환

중·고소득국의 경우 연불수출금융은 연불금융의 최장 상환기간을 OECD 가이드라인에 비해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용자조건 중 외자재 의존율 또는 국산기자재율 요구조항은 국산품 사용을 촉진하거나 수출억제를 위한 조치에 해당되므로 지원확대 상황에서 일어날 선진국 등과의 마찰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지원 안건을 국제적 규칙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불수출금융을 결합시킨 혼합신용방식(Mixed Loan)으로 확대하거나 최장 상환기한을 중·고소득국의 경우 10년에서 8.5년(고소득국의 경우 8.5년에서 5년)인 OECD 가이드라인을 감안, 이에 일치시켜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4)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수출지원 조세제도에 있어서 직접세 형태의 지원제도는 점차 축소시키거나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간접세 지원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등은 금지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개선하거나 비보조금적인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떨어지므로 수혜의 규모가 상

대적으로 작은 세계보다도 금융지원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초과환급이 발생한 때 초과분을 재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보조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서류를 단순화·표준화하여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급소요기간을 단기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5. 수산물 수출입관련 제도 개편

앞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비관세 체계를 상호 비교하였으며,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감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관세체계는 일본에 비하여 단순하고,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비관세조치는 우리나라가 매우 단순한 반면, 일본은 다양한 무역장벽의 비관세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산보조금은 양국 모두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국 모두 국제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개선 혹은 수정이 요구된다. 특히 한·일간에는 종래의 일방적 무역흐름이 점차 쌍방의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어 양국간의 산업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역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일방의 조치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결과의 수용이나 쌍무협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수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수산물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1) 관세율의 다단계화 및 차등관세체계 도입

관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균등관세체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본관세의 관세율 단계는 8단계이고, 실행관세는 15단계로 되어 있다. 이것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단순한 구조이다.⁴⁸⁾ 관세율의 조정은 경쟁국들의 관세 수준,

48) 미국은 증가세로 25단계(General Tariff 기준), 종량세로 5단계의 관세율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EU는 32단계(양허세율 기준)의 관세율 단계를 가지고 있음.

국내외 가격차, 자급률, 양허관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목별 자급률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현저한 품목은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하하여 통상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⁴⁹⁾ 그리고 현행의 중심관세율이 국제협상에서 수산식품의 인하율 기준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품목분류 및 기본관세율 체계 합리화

실적관세를 중심으로 수산식품의 품목분류 체계 및 기본관세율 체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국제사회에서 관세인하 압력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율의 상향조정은 비양허품목을 중심으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추진될 WTO 실무협상에서 양허품목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품목은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종량세제도 도입·확대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산업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관세에 종량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관세 등 활용 가능한 탄력관세에도 종량세(종가종량선택세, 복합세) 도입을 확대하여 수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수입억제와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종량증가병과세(미국), TQ제도(EU), IQ제도(일본), 품목별차등관세제도(중국)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관세율과 증가세 위주의 관세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저관세율 체제에서의 수산업 보호가 어렵게 되어 있다. 즉 저가 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수산업의 보호와 생계형 어업인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량세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 탄력관세제도 활용

수입수산물로부터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현행 관세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산식품 관세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정관세제도는 조정관세율

49) 무역자유화의 수준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Standstill”의 원칙을 고려해야 함. 즉 현행 무역자유화 수준 이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은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접근이 또한 요구됨.

의 결정과 조정관세를 통한 효과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이는 조정관세율의 결정에 있어 조정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생산, 소비, 국내외 가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수준의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동시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산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 수입되는 수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⁰⁾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조정관세품목과 최근 3년간 또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 국내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 어종 및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에 따라 최종적으로 할당관세품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⁵¹⁾ 또한 물가안정용, 가공원료용, 어업협력용, 일반내수용, 신규개발품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품목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⁵²⁾

그리고 할당관세 외에 활용 가능한 탄력관세로서 계절관세를 검토할 수 있다. 계절관세는 EU 등에서 수산식품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수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어종 및 수출입되는 어종, 품목, 수량이 다르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다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절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EU는 계절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부과로 수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 비관세조치의 개선

국제 무역환경은 저관세율 체제로 이행되고 있다. 저관세율 체제에서는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관세체계 개편의 효율성 확보는 관세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무역자유화와 함께 주요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산식품의 안전성(WTO/SPS협정) 및 지속가능한 개발, 원산지 표시제도, 환경라벨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약화된 관세

50) 할당관세제도는 EU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음. 할당관세제도는 순수한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보다 덜 수입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음.

51) 구체적인 어종의 예를 들면, 대중어종인 고등어, 조기, 갈치, 오징어, 꽁치 등임.

52) 예를 들면, 신규 양식품목으로 개발단계에 있으나 잠재수요가 대단히 큰 동해안의 비단가리비 등에 대하여 국내산업이 수입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의 산업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산식품 관세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관세조치로 인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생 및 검사·검역제도(SPS)와 원산지표시제만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위생 및 검사·검역제도(SPS)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산물 검사·검역제도는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옴으로써 수입억제와 국내산업 보호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유통 수산물의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WTO/SPS 협정상의 “동등성의 원칙”은 수입수산물 검사·검역에 대한 각종 검사와 그에 따른 기준치가 국내산의 그것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국은 국내유통 수산물의 위생수준과 동일한 수입검사·검역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유통 수산물의 검사는 비단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WTO/SPS 협정의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국내 검사체제가 요구된다.

둘째, 검사·검역제도에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검사·검역제도는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달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전 품목과 전세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각 지역이나 품목별로 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금지지역이나 품목을 해제하는 방법으로서, 전 지역의 전 제품에 대해 검사와 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역규제의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보다 우월하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이 전통적으로 수출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네거티브 시스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향후 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수산물 수입확대로 다양한 수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수출 및 수입검사 근거법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수산물 수입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고유업무는 수출수산물과 일부 국내 소비용 수산물, 그리고 정부비축 수산물에 대한 검사이다. 이 중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수출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사대상 품목수가 줄어 현재 13개 품목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 자율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1991년부터 국립검역소로부터 의뢰받아 위탁업무로 시작된 수산물 수입검사는 1994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신고 검사업무가 수산물검사소로 일원화되었으나 법

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이므로 수출검사와 수입검사의 일관된 업무처리와 공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검사업무가 다른 근거법에 의해 관장되고 있으므로 수산물검사소가 검사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

넷째, 수산물검사소의 기능을 정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준에 맞는 수산물을 수입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산물검사와 국내 유통 수산물의 검사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 각종 국내외 동향 및 정보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의 전문성과 수출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에 검사관이나 검역관을 파견하여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에 대해 현지에서 검사·검역업무를 수행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수입수산물을 줄이고, 저장이나 수송 도중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수산물과 국산 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제공으로 국내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소비자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수산물에 대한 표시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산 원산지표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수입수산물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비하여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관세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확대 강화를 통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 획득을 통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수산물의 원산지 통합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산물은 생물적 특성 때문에 보관이 어려우며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유통물량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보종합화를 추진하여 수입시 이를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내 생산 수산물과 함께 수산물 통합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수산물의 현황 파악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주요국가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내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산물의 세부품목별/유통기 구별 원산지표시제 활용 및 실행에 관한 국내 원산지표시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수산물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강화방안으로 대중매체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는 일회성으로 인해 홍보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특히 TV를 통한 홍보의 경우, 홍보용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내용을 방영한다면, 일반 국민의 이해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해역별 원산지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원산지표시제도는 크게 국내산, 외국산, 원양산으로 나뉘고, 국내산은 다시 대략적인 해당 해역표시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는 생산주체와 생산지역만을 대략적으로 구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어획 또는 수산식품의 생산지역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해역의 구분과 이에 따른 해역별 관리체제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생산력과 수급구조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는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둘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 위주의 원산지 구분은 그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원산지표시제도와 환경표시제도(Eco-Labeling)를 연계하여 식품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산식품에 있어서 원산지표시제도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당한 소득과 지출을 보호하는 경제적 역할 외에도 식품위생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와 환경표시제도의 연계는 이 제도의 장점을 배가시킬 수 있다. 농림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도를 일원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산식품에 있어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해역별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1. 요약

1980년대 후반을 분수령으로 세계 어업질서와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19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과 국내 수산물시장의 불가피한 개방화 추세, 1992년의 한·중 수교와 중국산 저가수산물의 유입 증가, UN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EEZ체제 정착, WTO체제의 출범과 GATT체제 하에서 약속한 수산물 전 품목의 수량제한 철폐 및 수입자유화 실시, APEC 조기 자유화 조치에 의한 수입 수산물의 무관세화 동향, 한·일, 한·중 어업협상에 따른 어장축소와 생산기반 약화 등 변화와 충격의 연속이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 수출의 장기정체와 지속적인 수입증가로 인하여 야기된 지난해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한·일간의 수산물 무역구조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교역국가를 일본으로 한정된 것은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총 수출액의 73%가 일본시장에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어서 양국간의 수산물 무역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 전반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각 장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교역실태와 구조분석을 통하여 유사 이래 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일본의 수산물 수입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양국간의 수산물 교역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수산물 무역수지의 적자는 단순히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국내 수출의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국내 수출 공급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 ii) 한·일간에는 국제적인 개방화에 따른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인하여 교역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일한 품목간에도 기호나 품질의 차이에 따라 산업내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 iii)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교역은 무역구조의 커다란 전환에도 불구하고 신상품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 등 무역기반 조성정책의 미흡으로 과거의 수출패턴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 iv) 한·일간의 제품별 수산물 수출입 실태분석의 결과는 EEZ체제의 확산과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상실의 결과, 국내 공급기반의 약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무역구조 변화를 요인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양국의 수산물 수급·생산·소비·유통 및 무역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 EEZ체제의 정착으로 대표되는 국제어업질서의 재편은 연안국의 배타적 자원관리·이용의 결과로 귀결됨에 따라 EEZ체제 하의 수산물 무역은 종전의 개방적 공급형태에서 폐쇄적 공급형태로 전환되어 비교우위에 입각한 고전적 무역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 ii) 일본이 자국내 수산물 공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시장을 다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국·태국 등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 iii) 일본인들의 소비특성은 유통품목의 다양화, 소비형태의 다양화, 구입처의 다양화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 iv) 일본은 수입관리를 위하여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해 왔는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 보호 및 자원관리, 식품안전 등을 이유로 더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시장지위와 경쟁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과의 경쟁력 지표와 수출경합도 및 시장점유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 수산물의 어종별 무역특화 수준에 있어서, 통조림의 경우 한국, 중국, 태국 등이 비교우위에 있고 미국은 비교열위에 있다. 갑각류·연체류 및 어류(건조 등)의 경우는 일본, 미국이 비교열위에 있어서 순수입량이 많았으며, 태국은 어류(활어 등)에 있어서 분명한 비교열위를 보여 순수입이 더 많았다.
- ii) 우리나라 수산물이 주변의 어떤 경쟁국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를 RMI로 측정한 결과, 한국 수산물은 일본, 중국, 태국의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 등의 시장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였다.

- iii) 한국 수산물이 일본 수입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주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수출경합도 지수로 측정한 결과,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태국 등과는 경쟁관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 수출 점유율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산물의 대일 수출증가는 대부분 경쟁력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우위의 원천은 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의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한·일간의 수산물 무역구조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첫째,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 둘째, 수산물 수출공급기반의 강화, 셋째, 수산물 수출 성장동력의 확충, 넷째, 수산물 수출입관련제도의 정비에 두었으며, 이러한 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i) 수출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제고해야 하며, ii) 해외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주도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며, iii) 일본시장 의존적 수출구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여야 하며, iv) 일본시장 지향적인 한국, 대만, 중국, 북한 등 극동아시아 권역내 국가들이 수출상품 차별화를 위해 수평적 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물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 연근해어업의 생산구조를 장기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되 경쟁력을 지닌 어종의 자원증식과 품종을 확대하고, ii) 양식어업은 인위적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iii) 원양어업은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선생력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물 수출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i) 세계 수산물의 수급상황과 경쟁국가의 시장정보 및 새로운 제품생산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ii) 수출 신제품 개발과 기존 수출 수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수산가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iii) 각종 보조금의 운용에 있어 수혜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직접세 형태의 지원제도는 점차 축소시키거나 간접세 지원형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산물 수출입관련 제도의 개편은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관세조치가 단순하며 미비되어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i) 관세율의 다단계화 및 차등관세체계 도입, 품목분류 및 기본관세율 체계의 합리화, 종량세 제도 도입·확대, 탄력관세제도 활용 등 수산물 관세체계를 개선하고, ii) 수산물 관세체계의 개선과 위생 및 검사·검역제도(SPS), 원산지표시제 등 비관세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한국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는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어 온 국내 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국제어업질서의 재편에서 비롯된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정책이나 단편정책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수산물 수출의 장기정책과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시대의 도래는 단기적·단편적 전략의 추진만으로 반전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다. 본문의 국내 수산물 중장기 생산전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에도 수산물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시장에서의 수출경쟁국가들과의 국제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내 수산물 공급기반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국제적인 개방화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심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산물 무역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추진하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수출증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수출촉진 전략보다는 수산물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 전략을 바탕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동북아 수산물 허브(Hub)시장 조성.

동북아 수산물 교역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기반을 이용한 물류중심지로서 부산감천항을 동북아 허브(Hub)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시장의 국제화와 WTO의 영향으로 국제 수산물교역은 질과 양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국제 수산물교역의 중심으로 시장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동북아 Hub시장은 관세부과 유보상태에서 수입물품의 보관, 집배송, 가공제조, 판매 등의 종합적 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수산물 반출입이 자유로운 수산물종합보세구역을 통해 원 스톱(One Stop)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과 국내 어획물 등의 단순중계가 아닌 가공·포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도 수산물 구매의 형태는 간편식품, 고기능성 식품의 선호체제로 변화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은 수출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 수산물의 수급상황과 경쟁국가의 수산물 생산, 소비, 가격 등의 시장정보 및 새로운 제품생산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산물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 연구체제를 확립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제품 혹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하여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설과 운전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가공식품 개발에 참여한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HACCP 적용을 확대하되, 수산물 가공업체의 급격한 비용증가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HACCP 표준모형을 개발·지원함과 동시에 HACCP 적용업체에 대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 수산물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수출 수산물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획강도를 유지하여 자원회복 및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입구규제 방식인 종전의 어업관리 방식을 어획량을 규제하는 출구규제 방식인 TAC 제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 및 어업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식어업은 어장의 환경 수용력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양식어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양식어장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과잉생산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수급 불균형 및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인위적 생산조정에 대하여 국내 양식어업의 존립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도입·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오염 및 장기 연작으로 인하여 저하된 양식어장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의 개선 및 휴식년제 도입 등 양식어업의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해외 수출시장의 다변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시장의 구조는 일본시장 의존 현상이 심하여 일본의 국내 여건 변화, 특히 엔화 환율의 변동, 일본의 재고량과 생산량, 기타 외생적 요인에 종속적이다. 따라서 시장다변화는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소비자의 기호, 수출 대상국의 무역 정책, 수출경쟁관계 등의 시장조사와 정보수집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업의 수출전략에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별 혹은 국가별 특화상품을 개발해 해외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수산박람회의 참여 및 개최 확대, 시장개척단의 파견, 주요 해외시장별 수출수산물 특판전 개최 등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교역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로 수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수산물 수출의 증가보다는 효율적인 수입관리 방안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수급조건과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를 고려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수산물의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대영, “동중국해 및 황해에서 국제적 어업재편과 과제”, 「춘계학술발표초록집」, 한국수산경영학회, 1999.
- 김동민, 「일본의 수산물 수입분석과 한국의 대일 수출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병희, “2001년 지역별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 러시아”,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김승진,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경쟁력과 산업내 무역의 변화추이」, 한국경제연구원, 1987.
- 김정봉, 「UR이 수산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개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김정봉 외, 「중국 수산업의 조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김현용, 「WTO 관세인하가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박명섭 외, “WTO 뉴라운드 하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연구”, 「수산경제연구」, 제 6권 1호, 1999.
- 박성쾌, 「제90차 OECD/수산위원회 참석결과보고서」, 해양수산부, 2002.
- 박성쾌 · 김정봉, 「UR 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박성쾌 외, 「수산물수입개방 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손찬현 외,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외교통상부, 「WTO 뉴라운드 논의현황 및 우리입장(II)」, 1999.
- 유철호·허덕,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 수출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이상고,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계와 TAC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0권 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1999.
- , “지구환경질서에 따른 환경친화적 수산업 실현을 위한 제도적 이론체계

- 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0권 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1999.
- 이영미, 「연령별 수산물 기호도 조사 및 소비촉진방안」, 2001.
- 이용발 외, 「수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의 수입개방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응」, 국립수산진흥원, 1993.
- 임송수, 「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논의와 쟁점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장영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성격구분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8권 1호, 1997.
-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계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
- 조덕래, 「한국의 농산물 수입수요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주문배, 「한·일 수산업 구조와 관세분야 협상 대응방안」, 한·일 FTA 체결과 수산업 대응방안 심포지움, 한국수산회, 2002.
- , 「수산물 HS 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해양수산부, 2001.
- 주문배 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 최정윤·최종화, “동북아시아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안”, 「수산경영론집」, 제30권 2호, 1999.
- 한국수산회,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과 전망」, 국제전문가 초청 심포지움, 200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일 FTA추진과 수산업부문의 정책적 시사점」, KMI 해양수산현안분석, 2002.
- 해양수산부, 「2001년도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 홍성걸 외,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 홍현표 외, “국제무역과 산업경제”, 「국제무역과 한국경제」, 박영사, 1992.
- <외국문헌>
- 小野征一郎, “公海漁場の現状と課題”, 「漁業經濟研究」, No.39-2, 1994.
- 秋谷重男 外, “食肉と魚介の競合に關する研究”, 「水産經濟研究」, No.31, 1979.
- 水産社, 「水産年鑑 2001」, 2001.

- 大日本水産會, 「水産物消費調査(首都圏主婦アンケート)」, 1998.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譜」, 2002.
- 農林水産省, 「2001農林水産物貿易レポート」, 2001.
-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水産物輸出入実績」, 2002.
- Balassa, B.,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European Common Market”, *Economic Journal*, 1967.
- Bhagwati, J., “The Heckscher-Ohlin Theorem in the Multi-Commodity Case”, *JPE*, 1972.
- Brander, J. A. and Taylor, M. S., “International Trade and Open-Access Renewable Resources: The Small Open Economy Cas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30, 1997.
- _____, “Open Access Renewable Resources Trade and Trade Policy in a Two-Country Model”,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44, 1998.
- Chenery, H. B.,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ER* 50(Sep), 1960.
- Deere, Carolyn, *Sustainable Fisheries: Making the Links with International Trade*, Washington, D.C. : IUCN and ICTSD, 1999.
- Dornbusch, R., Fisher, S. and Samuelson. P., “Comparative Advantage, Trade and Payments in a Ricardian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1977.
- FAO,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isheries Managemen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Fish Trade*, Bremen : FAO Committee on Fisheries CIFI:FT/VI/98/4, 1998.
- _____, *Environment, Trade and SARD : Concepts, Issues and Tools*, Background Paper 4: Environment and Trade, 1999.
- _____,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FAO : Rome, 1998, 1999.
- _____, *Year Book of Fisheries Statistics* Vol.87, Rome, 2000.
- GATT,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arket Access for Goods and Services”, *Overview of the Results*, Geneva : GATT, 1994.
- Grubel, H. G. and Lloyd, P. J., *Intra-industry Trade*, Macmillan, London, 1975.
- Hannesson, Rögnvaldur, “Optimum Fishing Capacity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Excess Allowable Catches”, *Land Economics*, Vol.70, 1994.
- _____, “Renewable Resources and the Gains from Trade”, *Canadian Journal of*

- Economics*, Vol.33, 2000.
- Krugman, P. R.,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 No.4, 1979.
- Kuznetz, S., *Modern Economic Growth*,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6.
- Leamer, E. E., “The Leontief Paradox, Reconsider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6, No.3, pp.495 ~ 503, 1980.
- Milazzo, Matteo, “Subsidies in World Fisheries: A Reexamination”,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406,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1998.
- OECD, *Transition to Responsible Fisheries-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Paris: OECD Publications, 2000.
- , *Effects of Liberalizing Trade in Fish, Fishing Services, and Investment in Fishing Vessels*,(by Rögnvaldur Hannesson) AGR/FI, 2001.
- Steenblik, Ronald P. and Wallis, Paul F., *Subsidies to Marine Capture Fisheries: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Gap*, 2001.
- Sen, Sevaly,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in the Fisheries Sector”,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Paris : OECD , 1994.
- WTO, *Environmental Benefits of Removing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Note by the Secretariat)*,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O Doc. No. WT/CTE/W/67), Geneva, 1997.
- , *Trade and Environment news bulletin-TE/029*, 1999.
- , *Trade and Environment news bulletin-TE/031*, 8 November 1999.
- , *Environmentally-harmful and Trade-distorting Subsidies in Fisheries*, WT/CTE/W/154(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0.
- <http://www.fao.org/docrep/x2775e/x2775e06.htm>.
- <http://www.fishing-in-the-dark.org/docs/link.html>.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te029_e.htm.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te031_e.htm.

<부표 1>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품목별(4단위)·국별 경합도
(1999~1995)

품목 국가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1212	1604	1605	전체
1999년도											
중국	0.929	0.421	0.072	0.240	0.416	0.079	0.421	0.946	0.767	0.439	0.414
미국	0.028	0.146	0.551	0.395	0.526	0.095	0.187	0.028	0.063	0.007	0.268
러시아	0.000	0.023	0.351	0.057	0.023	0.350	0.060	0.001	0.008	0.016	0.134
태국	0.008	0.055	0.003	0.294	0.013	0.144	0.320	0.013	0.091	0.430	0.139
인도네시아	0.035	0.356	0.023	0.014	0.022	0.332	0.012	0.012	0.071	0.109	0.046
1998년도											
중국	0.907	0.418	0.052	0.214	0.497	0.078	0.405	0.934	0.760	0.374	0.377
미국	0.035	0.134	0.572	0.409	0.421	0.086	0.191	0.030	0.051	0.007	0.291
러시아	0.000	0.028	0.329	0.056	0.042	0.272	0.058	0.000	0.009	0.010	0.135
태국	0.013	0.038	0.004	0.291	0.010	0.156	0.330	0.015	0.094	0.487	0.141
인도네시아	0.045	0.381	0.044	0.030	0.031	0.408	0.016	0.021	0.085	0.122	0.055
1997년도											
중국	0.876	0.451	0.062	0.180	0.411	0.078	0.391	0.902	0.799	0.390	0.377
미국	0.051	0.177	0.630	0.473	0.485	0.065	0.234	0.043	0.029	0.005	0.318
러시아	0.000	0.021	0.267	0.048	0.027	0.300	0.039	0.000	0.008	0.019	0.107
태국	0.020	0.041	0.004	0.258	0.027	0.179	0.318	0.021	0.092	0.465	0.143
인도네시아	0.052	0.310	0.038	0.041	0.050	0.379	0.018	0.033	0.071	0.121	0.056
1996년도											
중국	0.796	0.411	0.054	0.167	0.314	0.076	0.349	0.868	0.780	0.418	0.354
미국	0.085	0.196	0.673	0.445	0.592	0.082	0.286	0.062	0.042	0.009	0.345
러시아	0.000	0.019	0.240	0.056	0.034	0.303	0.034	0.001	0.009	0.024	0.097
태국	0.027	0.039	0.005	0.271	0.022	0.200	0.315	0.025	0.095	0.459	0.151
인도네시아	0.092	0.336	0.028	0.061	0.039	0.340	0.016	0.044	0.074	0.089	0.053
1995년도											
중국	0.790	0.395	0.133	0.112	0.208	0.080	0.339	0.833	0.758	0.404	0.462
미국	0.100	0.284	0.160	0.516	0.675	0.099	0.301	0.069	0.049	0.006	0.216
러시아	0.000	0.004	0.616	0.076	0.035	0.254	0.024	0.002	0.013	0.074	0.057
태국	0.030	0.011	0.012	0.249	0.059	0.258	0.321	0.041	0.117	0.424	0.200
인도네시아	0.081	0.306	0.079	0.048	0.022	0.310	0.015	0.055	0.063	0.093	0.066

<부표 2> 일본시장에서의 연도별주요 품목별(9단위)국별 경합도
(1999~1995)

품목 국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999년도											
중국	0.998	0.164	0.443	0.717	0.825	1.000	0.926	1.000	0.457	0.249	0.641
미국	0.001	-	0.001	0.046	0.175	0.000	-	-	0.203	0.001	0.027
러시아	-	-	-	0.014	-	-	0.074	-	-	0.749	0.002
태국	-	0.069	0.000	0.179	-	-	-	-	0.236	-	0.012
인도네시아	0.001	0.767	0.556	0.045	-	-	-	-	0.104	-	0.319
1998년도											
중국	0.998	0.034	0.362	0.633	0.710	0.999	0.893	1.000	0.525	0.141	0.558
미국	0.001	0.140	0.000	0.080	0.290	0.001	-	-	0.224	-	0.054
러시아	-	-	-	0.016	-	-	0.107	-	-	0.859	0.002
태국	0.000	0.112	0.003	0.169	-	-	-	-	0.143	-	0.018
인도네시아	-	0.715	0.634	0.102	-	-	-	-	0.108	-	0.368
1997년도											
중국	0.999	0.077	0.386	0.634	0.817	0.997	0.899	1.000	0.531	0.179	0.538
미국	0.000	0.280	0.002	0.099	0.183	0.003	-	-	0.257	0.020	0.077
러시아	-	-	-	0.008	-	-	0.101	-	-	0.801	0.001
태국	0.001	0.093	0.011	0.161	-	-	-	-	0.128	-	0.024
인도네시아	-	0.549	0.600	0.098	-	-	-	-	0.085	-	0.360
1996년도											
중국	0.999	0.136	0.232	0.520	0.872	1.000	0.909	1.000	0.443	0.204	0.505
미국	0.001	0.132	0.001	0.162	0.128	-	-	-	0.314	0.016	0.040
러시아	-	-	-	-	-	-	0.091	-	-	0.780	0.000
태국	-	0.121	0.001	0.201	-	-	-	-	0.168	-	0.021
인도네시아	-	0.611	0.766	0.117	-	-	-	-	0.075	-	0.434
1995년도											
중국	1.000	0.032	0.187	0.564	0.768	1.000	0.908	1.000	0.513	0.132	0.495
미국	0.000	0.009	0.001	0.087	0.232	-	-	-	0.254	0.005	0.035
러시아	-	0.111	0.004	-	-	-	0.092	-	-	0.863	0.018
태국	-	0.043	0.000	0.137	-	-	-	-	0.215	-	0.008
인도네시아	-	0.806	0.809	0.212	-	-	-	-	0.017	-	0.443

한·일 수산물 무역구조 변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2002年 12月 26日 印刷
2002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李 廷 旭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서울기획문화사 2272-153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